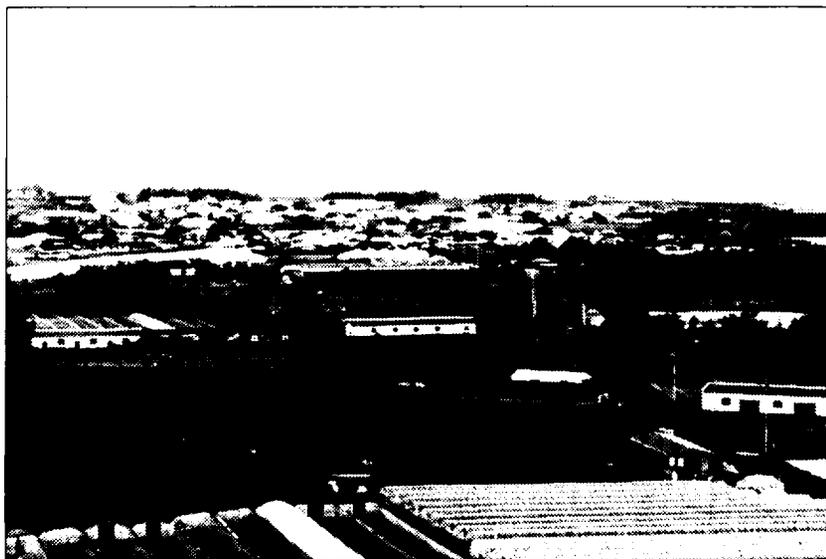


南濟州郡 大靜邑 日果里

現地學術調查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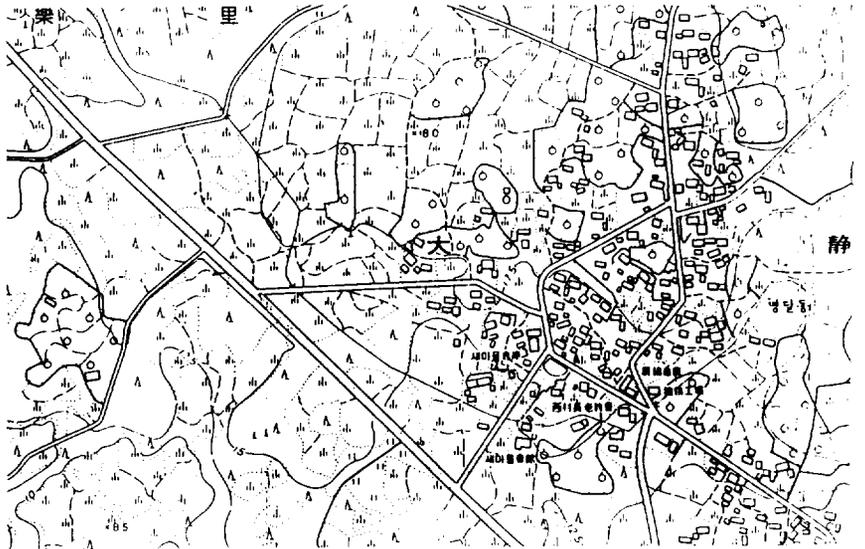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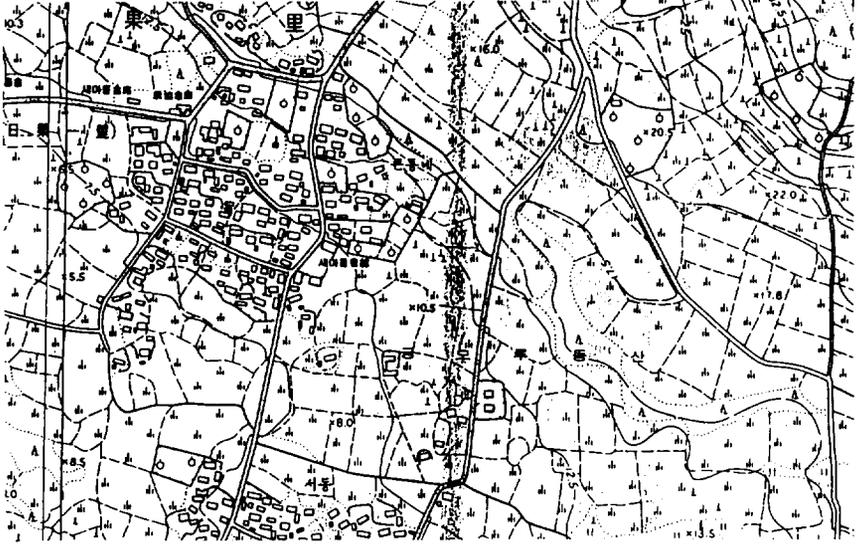
(1997. 8. 1 ~ 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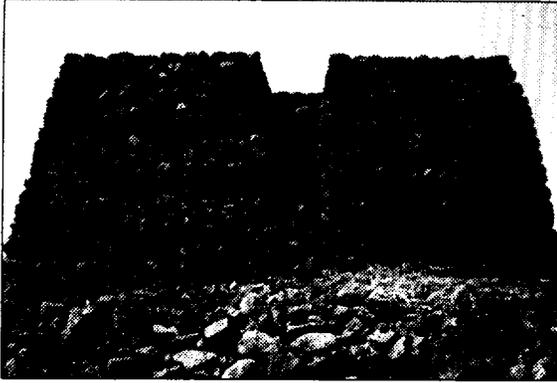
- 調査経緯 ● 202
- 마을개황 ● 205
- 方言 ● 231
- 民謠 ● 262
- 說話 ● 289
- 信仰 ● 361



일과리 전경

일과리 부근지도





◁서림연대



▷대정서초등학교◁



◁고인돌

調查經緯

이번에 조사지로 선정된 곳은 남제주군 대정읍 일파리이다. 일파리는 일파1리, 일파2리로 나뉜다. 본래 이웃 동일리까지 포함하여 '날외'라 불리는 마을이었다. 매년 여름방학에 벌여온 국어교육과의 학술조사는 그 역사가 오래지만, 대정읍 지역에 대한 조사는 아직 벌인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여 일파리를 조사지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학생회 임원과 조사반장을 중심으로 사전답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이 때 얻은 기초자료로 답사자료집을 만들었다. 이 자료집은 조사에 참여한 교수, 학생, 동문, 백록어문학회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번 조사에도 국어교육과 교수님들이 각 반을 맡아 지도하여 주셨다. 최규일·김태곤 두 분 교수님은 방언반을 지도하셨고, 윤석산 교수님은 민요반을 지도하셨으며, 문성숙·안성수 교수님은 설화반을 맡아 지도하셨다. 또한 손오규 교수님은 신앙반을, 현승환 교수님은 마을개황반을 맡아 지도하여 주셨다. 그 밖에도 고창근·장훈(방언), 좌혜경(민요), 강정식(설화), 임용진(신앙), 현승춘(마을개황) 동문 선배님들이 또한 학생들을 이끌어 주셨다.

조사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안은 학년이다.

마을개황 : 신지향, 고은정, 서마음, 강정희(3), 양정환, 문지원, 이선에, 고진숙(2), 이후경, 강은주(1)

방 언 : 사중희경, 김영희(3), 박소영, 이은희, 김은정(2), 현금미, 문행선, 김애리, 강상희(1)

민 요 : 부경실, 이은정, 홍경애, 양진희(3), 이지윤, 김은주, 김인영, 임순심(2), 김초롱, 양정생, 김민경(1)

설 화 : 김명수, 허순덕, 송정일(3), 김은영, 오윤정, 이행주, 강혜자(2), 한선미, 강연심, 오유정, 송지연(1)

日果里 學術調查報告

신 앙 : 변숙자, 김소현, 홍경남, 심금현(3), 김지현, 신순심(2), 위지현, 이향숙,
강은애, 김성립(1)

조사 활동은 3박 4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일(8월 1일) : 오전 9시 30분에 학교에 집결하여 인원과 장비를 점검하고 10시에 학교 버스에 승차하여 11시 경 숙식장소인 일과1리 마을회관에 도착하였다. 1시까지 숙소 정리와 점심식사를 마친 뒤에 노인회장님으로부터 마을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들었다. 2시부터 각 반별로 조사 준비를 하고 3시부터 예비조사를 겸하여 조사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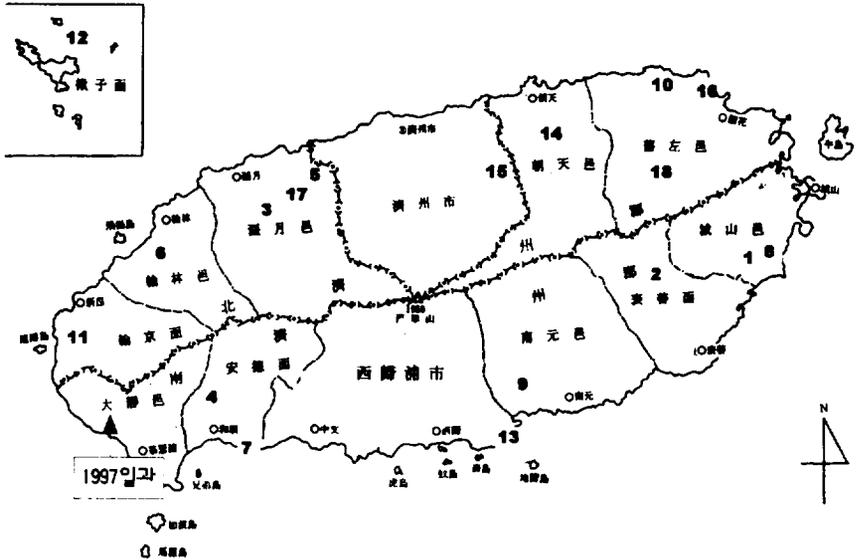
제2일(8월 2일) : 첫날의 대략적인 조사 성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오전, 오후, 저녁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제3일(8월 3일) : 지금까지의 조사를 자체 평가한 다음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밤에는 '국교인의 밤' 행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조사 현황에 대한 평가회 및 정리 시간을 가졌다.

제4일(8월 4일) : 미비한 부분을 보충, 마무리하여 오후 12시에 귀로에 올랐다.

이번 학술조사와 이 보고서 간행에는 고장권 전 제주대학교 총장님이 60만원을 지원하여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아울러 조사를 하는 데 있어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일과1리, 2리 주민 여러분과 이장님, 노인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자리를 함께 하셔서 지도해 주신 교수님과 여러 동문선배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땀흘리며 조사를 이끈 각 반장과 조사반원들, 참가자의 건강에 힘쓴 여러 학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가온 조사지역도(1976~1996)



- | | |
|-------------------------|--------------------------|
| ①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1976. 8) | ⑩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1988. 7) |
| ②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1977. 7) | ⑪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1989. 7) |
| ③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1978. 8) | ⑫ 북제주군 추자면(1990. 7) |
| ④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1981. 7) | ⑬ 서귀포시 보목동(1991. 7) |
| ⑤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1983. 8) | ⑭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1992. 7) |
| ⑥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1984. 8) | ⑮ 제주시 봉개동 회천리(1993. 7) |
| ⑦ 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1985. 8) | ⑯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1994. 7) |
| ⑧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1986. 7) | ⑰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1995. 8) |
| ⑨ 남제주군 남원읍 하폐리(1987. 8) | ⑱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1996. 8) |

마을개황

목 차

- I. 自然環境
- II. 歷史的 背景
- III. 人文環境
- IV. 產業環境
- V. 歲時風俗
- VI. 其他

I. 自然環境

일과리는 제주도 서남방, 남제주군의 가장 서쪽에 자리잡은 대정읍의 중심권에 위치해 있다. 동남쪽에 동일리, 서북쪽에 영락리와 인접해 있고, 읍소재지인 모슬포 까지의 거리는 약 2Km정도이다. 일과리는 일과1리와 일과2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과1리는 일주도로에서 약 300m 벗어난 곳에 마을이 있고, 일과2리는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마을이 이루어져 있다.

겨울철에도 비교적 따뜻한 기후를 보여주고 4계절이 뚜렷할 뿐더러 해풍을 덜 타 농사짓기에는 천혜적인 조건을 갖추었다.

기생화산인 모슬봉(160m)과 가시악(118m)이 현무암층으로 이루어 지고 일과리를 비롯한 부근 일대도 역시 같은 토질로 형성되어 있어 하나의 지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 기온은 가장 추운 1월이 5~6℃로서 성산포보다 약간 높고 가장 더운 8월의 평균 기온은 26.3℃이다. 연중 강우량은 1,600mm~1,800mm이고 비오는 날은 100여 일 정도로 일조시간이 짧다.

일과리에는 대수동에 큰 용천수가 있어 식수로 사용하였다. 일명 '서림물'이라고

도 하는데 제주도 3대 수원으로 제주시 산지물, 한림의 용포물과 함께 주민의 소중한 젖줄로서 그 역할이 크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무분별한 지하수굴착으로 수량이 줄어들고 전분공장 등 산업시설 폐수로 말미암아 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어 관리와 정화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과리는 천일 염전 조성에 알맞는 해안선에 인접해 있어 예로부터 소금 생산지로 유명하였다. 일제 초기인 1920년대에는 일부 주민에 의한 염전사업이 매우 활발하여 생산된 소금을 육로, 해로를 통해 도내 각지로 운반 공급할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약 200년 전인 1790년대에 마을 주민 文聖周, 金在光 등이 주동이 되어 비로소 첫 선을 보인 소금생산은 쓸모없이 버려지고 있는 해안가의 모래섞인 빨밭을 개척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속칭 '흰 모살밭', '모살밭', '쇠늪'이 그곳이다. 날외소금은 고산, 한림등지는 물론 정의현의 남원에까지 공급되어 쌀, 보리 등의 곡식으로 교환되었다. 현재는 모슬포에 나가 장을 보곤 하지만 예전에는 소금과 다른 물품을 물물교환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다.

일과리는 연근해 어업이 발달하지 않아 어선을 이용한 '멸치후리기'는 생소한 편이었으나, 속칭 '원'을 만들어 멸치떼가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주민들이 모여들어 이를 집단으로 잡았다. 멸치잡이는 주민들의 협동심을 강하게 보여준다. 해변이 육지 쪽으로 좀 깊숙히 들어간 곳에 들담을 쌓아 막아 두었다가 썰물 때 미처 빠져 나가 지 못한 멸치떼를 잡는 방법이 그것인데 일과리의 '장수원'이 대표적이다. 멸치떼가 들어오는 날이면 '구덕'과 '죽바리'(소형그물)를 든 주민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다시피 했다.

II. 歷史的 背景

1. 실촌유래

古老들의 구설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4백 50년 전인 中宗 말엽에 政爭과 士禍로 세상이 어수선해지자 권력에서 배제된 일부 선비들이 정치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은둔생활을 하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와 각기 새 터전을 잡아 정착한 것이 마을을 형성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세종 이후 퍼지기 시작한 유교문화가 일반에게 보급되면서 글을 배운 선비의 위상이 높아지고, 訓學의 표적으로 존

경을 받았고 항상 선비의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정신적 지주로서 군림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선비들은 鄕校 또는 서당을 통해 인지를 깨우치고 예의범절과 충효사상을 심어 人道가 무엇인가를 후진들에게 가르쳤다.

실제로 高·良·夫 3姓이 지배하던 제주도에 육지의 다른 성씨가 들어와 정착한 것은 고려중기인 명종 24년(1194)의 일로 南平文氏南濟公派 入島祖 文緯이 처음인 것으로 기록은 전한다. 과거에 올라 大司馬 大元帥를 역임한 후 대제학의 신분으로 제주에 들어온 文緯은 文教에 빈약한 탐라백성을 교화하고 중앙문물을 주입시키는 등 업적을 남겼다.

그후 제주도는 고려가 망하고 이씨조선이 들어서서 역사변혁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忠義志士 및 선비들의 귀양지로 탈바꿈하고 土禍, 또는 정쟁에 휘말린 高官 大爵의 피난지로 변하여 새로운 문화를 개화시키는 결정적인 바탕을 마련한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일과리가 설촌하게 되었는지는 증거할 만한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정확한 근거를 댈 수는 없다. 그러나 리민의 한 사람인 丁奎安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나의 15세조 丁震의 아들이 池씨와 任씨(혹은 羅씨)를 거느리고 아버지를 찾아 일과리에 정착하게 된 것이 일과리 설촌의 근원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마을지에서 밝히는 것처럼 任亂 때인지, 아니면 몽고항쟁 시기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때문에 일과리의 역사는 4백여년 전일 수도,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증과 사료의 발굴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일과2리는 약 135년 전에 일과1리에 사는 주민이 이주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당시 문형옥(현재 일과2리 거주)씨의 4대祖인 斯舜이라는 분이 일과 1리에서 이주해왔다고 한다. 그 분이 우마를 방목했는데 물을 찾아서 이곳으로 왔다고 했다. 처음에는 종경목이에 몇 년을 살다가 일과2리로 왔다고 한다. 그 후에 그분의 육촌 되는 분이 이주하였고, 그 다음에 신도에서 김씨 성을 가진 분이 이주하여 점차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2. 문헌 기록

문헌상으로 일과리란 마을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22년전인 영

조 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관이라는 사람이 쓴 「大靜城南門樓重修記」에 일과리 마을 이름이 처음 나타난다. 또 정조대(1777~1797)에 편수된 「大靜縣誌」에는 당시 대정현을 좌우면으로 나누어 22리를 여기에 소속시켰는데, 여기에서는 좌면에 일과리를 포함한 12개 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 기록 외에는 일과리의 역사를 상고할만한 문헌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3. 행정구역 변천

‘날외’(일과)의 범위는 ‘웃날외’라 부르는 신평리와 ‘앞날외’라 하는 동일리, 일과1리, 일과2리, 대수동. 그리고 ‘서날외’라 하는 신도리까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일과1리와 일과2리만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날외’는 과거 조선 태종 16년(1415) 지금부터 약 570년 전 대정군 설군초에 동삼서사에 속한 日里이다. 원래 이 고장은 ‘날외’가 설동되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철종 15년(1864) ‘웃날외’는 분리되어 신평리로 되었고, 고종 37년(1900) 동쪽의 동일리가 분리되었으며, 명달동은 일제시대에 일과2구라고 하였다가 광복 후 일과2리로 분리되고, 동일리와 대수동은 1988년 분리되어 일과2리로 되었다.

Ⅲ. 人文環境

일과리는 일과1리와 일과2리로 나누어지는데, 두 마을에는 1997년 2월 현재 354세대 1,214명이 살고 있다.

〈표〉 세대 및 인구

(단위 : 가구, 명)

리 별	세대	인 구			20세 미만		20~50세		50세 이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일과1리	175	609	307	302	97	79	150	113	60	110
일과2리	179	605	294	311	95	97	114	118	55	96

〈대정읍사무소 제공〉

日果里 學術調查報告

〈표〉 일과리 가호별 성씨분포(다수동 제외)

성 씨	가 구 수	성 씨	가 구 수	성 씨	가 구 수
南平文氏	35	淸州鄭氏	6	原州邊氏	2
慶州金氏	20	濟州高氏	5	原州元氏	2
古阜李氏	20	文化柳氏	5	安東權氏	1
晉州姜氏	14	羅州丁氏	4	濟州夫氏	2
谷山姜氏	5	金海金氏	4	青松沈氏	1
淸州宋氏	12	密陽朴氏	3	豊基姜氏	1
軍威吳氏	2	礪山宋氏	3	延州玄氏	1
和順吳氏	8	羅州林氏	3	南洋洪氏	1
信川康氏	3	水原白氏	4		

(1997. 2 현재, 일과리 노인회 제공)

일과리의 조직기구를 보면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어촌계, 영농회가 있다. 이들 조직은 각기 분야와 연령층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경비일체도 회비로서 충당한다. 특히 청년회와 부녀회는 작목 및 분야별로 구성된 다른 조직과는 달리 마을의 대소행사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친목과 결속을 도모하고 웃어른을 모시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며 이웃끼리의 화합을 다지는 등 민심순화와 기풍 진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노인회는 5년전에 조직되었고 만 65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회비와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강사를 초빙하여 한자 등을 배우고 있다. 폐품을 수집하고 경로잔치를 열고 있다.

일과리 부녀회는 해방 전에 자생적으로 활동하다가 약 40~50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나이제한은 없고 결혼하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도 자율적이다. 회비는 1년에 20,000원이며, 현재 인원수는 67~70명 정도이다. 어버이날 마을경로잔치를 주관하며 노인들에게 버선이나 양말 등을 선물한다. 2~3년마다 효도관광을 실시한다. 여기에 드는 경비는 부녀회 수익사업을 통해서 충당한다. 주로 폐품수집과 밭을 임대해서 콩이나 마늘을 경작하여 기금을 적립한다. 1997년의 경우에는 마늘을 400평 정도 심었다고 한다. 또한 절미운동을 통해서

즈냥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부녀회 총회는 12월에 열리고 임원으로는 회장, 부회장, 총무, 반장이 있다. 회장의 재량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일과1리의 청년회가 발족한 것은 대정읍 연합청년회가 구성된 1971년이었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개인의 창의력과 기술을 개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마을과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연중행사로 리민 단합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는 등 질서운동과 창의력 제고를 통해 마을의 기풍을 일신시켰다. 청년회 회칙은 다음과 같다.

청년회 회칙(일과1리)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일과 1리 청년회는 숭고한 정신과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며 새로운 일과 1리 청년회를 이끌어 나갈에 있어서 개인의 기술과 창의력을 배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청년생활의 균등한 생활을 기하고져 자질을 개발하며 일과 1리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목적

제 1 조 : 본회는 일과 1리 청년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회는 청년회로서 일과 1리와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본회는 청년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우의를 사랑하며 일과 1리의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의 자격

제 4 조 : 본회의 회원 자격은 만22~35세까지로서 일과 1리 거주자로 한한다.

제 3 장 운영

제 5 조 : 본회의 회원은 회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 6 조 : 본회의 구성은 회장과 부회장 총무외에 필요한 각부서는 섭외부, 체육부를 두고 기타 고문 감사를 둔다.

제 7 조 :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으로 정하고 임시총회는 회장과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을 요구할때 실시한다.

제 4 장 권한

日果里 學術調査報告

제 8 조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운영과 관리를 통괄하고 모든 주권을 행사하며 회장으로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 9 조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께위시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 10 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 조 : 본회의 임원은 청년회의 책임과 의무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 5 장 사업

제 12 조 : 사업계획은 정기총회에서 수립하고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결에 통과시킨다.

제 13 조 : 일과 1리 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며 그 운영 기금을 조성 설치한다.

일과1리의 어촌계는 1962년 4월 1일 처음으로 발족하였다. 연안공동어장을 중심으로 어민에 의한 어장을 전용관리한다는 근본정신을 살려 생산력의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설립목적에 입각, 이를 어민의 자율조직으로 육성해 왔다. 현재의 계원수는 64명이고, 이 중에 해녀는 30명 정도이다. 1986년에 해녀 탈의장이 건설되었다. 어촌계에서는 소라, 오분자기, 전복 등을 양식하여 다시 바다에 뿌리는 종패사업을 실시하여 어종을 보호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과1리의 어업권은 1백 82ha의 공동어장으로 명시되었다.

해녀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회비는 수수료로 대체한다. 공동작업을 하고 정해진 날짜에만 물질을 한다. 만약 이것을 어겼을 때는 하루 일당을 물어내게 한다. 2월 말쯤에 툿을 공동으로 채취한다. 현재 해녀 수가 감소하고 있고, 40대가 가장 젊은 편에 속한다.

일과1리에는 다음과 같은 향약이 있다.

향약(日果一里)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향약은 수세기 동안 고유한 전통으로 면면히 이어 내려오는 우리 고장 일과1리가 리민총화로 향구적 융성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및 대상)

1. 일과리 전지역
2. 본 리 거주 외래인이라 하더라도 본 리에 거주하는 자는 본 향약에 적용된다.

제 3 조 (향약의 의무)

향민은 국가시책에 호응함은 물론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각분야에서 맡은바 직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4 조 (리법과의 관계)

국가에서 재정 수행하고 있는 제법규의 준수는 물론 이고장 주민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하여 또는 본 향약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리장선출

제 5 조 리장의 선출은 리민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득표여야 한다. 단 1 차 투표에 선출이 안됐을 경우에는 2 차투표로서 다득표한자로 한다.

1. 리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상 본리 3년이상 거주한자로 하며, 연령은 만 30세 이상으로 한다.
2. 리장이 되려는 자는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자기의 포부를 간단히 발표하여야 한다.
3. 선출된 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다.
4. 리장 재임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자문위원장이 리장 직무를 대행하고, 7일 이내 후임리장을 선출한다.
5. 리장 재임 중 직무대만 또는 무능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자문위원회 의장은 자문위원, 개발위원을 소집하여 협의한 후 리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기에 관계없이 후임리장을 선출한다.
6. 리장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4명과 개발위원회에서 3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3 장 리장의 직능

제 6 조 리장은 부락 대표자로서 본 리내에 모든 사항을 통괄할 권한과 직분을 가지며 리민에게 지도계몽함은 물론 아래 각종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리내의 공공건물 및 소유재산 관리 보존
2. 리 전지역 개발 및 환경조성 정리, 비품관리 보존
3. 시행 문서, 회의록을 철저히 보존 및 기록
4. 리장은 공공건물, 중요 비품 문서등 대장을 정리, 비치하여야 하며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5. 기타 본 향약에 열거치 않은 제반 문서의 보존

제 4 장 배상

제 7 조 리장은 재임 중 마을의 공동재산, 공공건물 및 비품 등 관리소홀로 분실 훼손 또는 파손되도록 이를 적절히 조치를 못하였을 시는 원상복구나 배상한다.

제 8 조 리장은 직무 소홀로 리민생활에 누를 끼쳤을 시에는 당연히 이에 상응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장 협의기구구성

제 9 조 리장은 이행정전반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 및 개발위원으로 협의 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자문위원은 리장을 자문하는 협의체로써 덕망이 있고, 식견이 있는 유능한 전 직리장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추대한다.

2. 추대 받은 자문위원은 리장과 유대를 강화하여 리정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지역발전을 심의한다.

3. 자문위원은 전직리장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를 대표할 의장은 본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분과부서를 둘 수 있다.

4. 개발위원은 지역개발을 위하여 리장을 협조하는 기구로서 개발위원 선출은 자문위원회 협의하에 리장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개발위원은 6명으로 하고 각 자생조직장이 우선한다.

6. 리장은 본 회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른 기구를 둘 수 있으며, 리업무 보조를 위하여 리서기를 둘 수 있다.

7. 자문위원은 만70세까지이며, 개발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0 조 리장은 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개발위원회의 리운영과 자생조직 등 제반사항을 심의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11 조 리 정기총회는 매년 1월 30일 이내여야 한다. (단, 리행사 및 긴급사항때에는 7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1. 정기총회는 당해연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 등 제반업무 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2. 결산보고는 리장이 하며 감사로 하여금 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 보고토록 한다.

3. 감사는 유능한 자로서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감사는 수시로 하되 리행정의 모순을 발견함에도 묵시할 시는 자문위원회에 통보하여 총회를 열 수 있다.

5. 총회는 각반 단위 7인이상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리장은 회의에 참석한 자의 명부를 작성, 참석인원을 파악한다.

7. 리장은 긴급한 사항으로 자문위원, 개발위원 및 소집 임시총회를 대행한다.

8. 리장은 행정공문 및 기타 행정공문의 사항중 자생 조직장에게 위임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 6 장 재정

제 12 조 리운영재정은 리운영비 및 회사품, 기타로 충당한다.

제 13 조 리장은 리의 중요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 14 조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일까지 한다.

제 15 조 리장은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자문위원, 개발위원과 협의 수립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7 장 관혼상제

제 16 조 관혼상제시는 가정의례준칙을 절대 준수한다.

1. 혼례시는 검소하게 행한다.

2. 관혼상제시 (혼례, 초상, 대소기, 혼장잔치)는 답례품 제공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장례일 당일 장지에서는 일절 답례품을 금한다.

제 17 조 리장은 청년·부녀회로 하여금 본 향약 제 16 조의 내용을 리민에게 철저히 지도계몽토록 함과 더불어 준수토록 한다.

제 18 조 리장은 자문위원과 개발위원으로 하여 본 향약 제 16 조의 실천여부를 감시케 한다.

제 19 조 청년·부녀회의 협조를 얻어 제 16 조의 이행여부를 확인 리장에게 보고한다.

제 20 조 제 16 조, 제 17 조를 불이행하였을시는 리장은 리상임기구를 긴급소집 협의 조치한다.

제 8 장 사회부조리척결

제 21 조 리장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직권 또는 자문위원회 및 개발위원회로 하여금 지도 정화한다.

1. 음주함을 기회로 예절을 저버리고 웃어른을 학대하거나 후배를 경시하여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2. 음주만취하여 노상을 배회하면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고성방가로 인한 리민의 안일을 해하는 자.

3. 리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및 회의시에 질서를 문란케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자.

4. 기타 단체 및 클럽 (청소년 포함)을 빙자하여 리 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위

5. 도박행위를 일체 금한다.

제 9 장 상벌

日果里 學術調查報告

- 제 22 조 리장은 리민으로서 리발전에 공헌이 많은 유공자를 선발, 자문위원과 협위하에 포상할 수 있다.
- 제 23 조 본 향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리장의 지도함에도 불응하고 반항하는 자는 자문위원 및 개발위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24 조 회의의 참석은 물론 리발전과 리 공공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리민에 대하여는 리장이 자문위원과 개발위원협의하에 직권으로 특별혜택을 배려할 수 있다.

부칙

1. 본 향약은 공포하는 199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향약은 리발전을 위하여 영구한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3. 본 향약은 이행 과정에서 미비된 사항은 보완할 수 있다.
4. 본 향약에 열거치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통상관례에 준하며, 또한 자문위원 및 개발위원 연석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을 이행한다.

일과2리의 조직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 작목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회는 65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되며 현재 회원은 약 67명 정도이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6명)로 구성되었다. 아직 노인회관을 짓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세우지 못하였고, 노인회칙을 만들어 이제야 틀을 잡아가고 있다. 노인회칙은 다음과 같다.

노인강령(일과2리)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 날 우리가 체험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얼을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지각하여 아래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한다.

1.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경로효친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3.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여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제 1 장 : 총칙

-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일과2리노인복지 상호회(이하본회)라 칭한다.
- 제 2 조 본회의 사무소는 일과2리 노인회관 1509-2번으로 한다.

제 2 장 : 목적과 사업

제 3 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 상부상조의 인보정신과 우리의 전통적 민속양식인 충국효친사상의 계승발전을 꾀하고 노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 경조사시 적극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족고유의 전통적 미풍양속의 전승 발전과 인보정신의 함양
2. 회원의 의료혜택을 위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질병치료를 안내

제 3 장 : 회원

제 5 조 (회원) 1. 본회의 회원은 본 마을에 거주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

2. 정회원은 본회 가입을 희망한 64세 이상인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필한 자

3. 특별회원은 본회의 가족 또는 보호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 4 장 : 임원

제 6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남, 여 각 1인)
3. 이 사 : 4인 (남 3, 여 1인)
4. 감 사 : 1인
5. 고 문 : 2인
6. 총 무 : 1인

제 7 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임된 회장은 지부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 유고시 그 후임자는 제 1 부회장이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무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의 회무를 집행한다.

3. 이사 : 이사는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4. 감사 : 감사는 회계연도의 사업 및 회무를 감사하고 매년 총회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5. 총무 : 총무는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며, 본회의 회계사무를 행한다.

6. 고문 : 본회는 고문을 두어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이를 추대하여 회의 운영상 중요한 일 발생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日果里 學術調查報告

제 5 장 회의

제 10 조 (회의의 종류)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1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개선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운영에 대한 재반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요청시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3 조 (회의 성립)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을 행사한다.

제 14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 15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 16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요구시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결 가부동수시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회계

제 17 조 (기금조성) 본회의 기금적립은 보조금 또는 찬조금으로 한다.

제 18 조 (경비) 본회 회원의 사망시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 적립금에서 사용한다.

1. 회원사망시 :
2. 사업추진시 :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제 19 조 (회계감사) 감사는 년 1회이상 회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 20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1 조 (보고승인) 회장은 매년초 다음의 서류를 작성,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사업실적 및 수치계산서
3.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이사회 회의록

부 칙

제 1 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노인회의 제반규정을 적용 시행하고 기타 사항은 통상관계에 준한다.

제 2 조 (시행) 본규약은 9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일과2리 부녀회는 약 20년 전에 조직되었다. 회원자격은 55세 미만으로 일과2리 주부이어야 한다. 회비는 10,000원이며 현재 회원수는 42명이다. 부녀회는 주로 어버이날과 설날에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마을회관에서 경로잔치를 연다. 이에 사용되는 경비는 부녀회원들이 농협을 통한 망대수선 등의 활동에서 모은 기금을 적립했다가 충당한다. 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없이 탈퇴가 가능하고 이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한다.

어촌계의 인원은 55명이다. 어촌계의 사업은 툇을 채취하고, 소라와 성계를 잡아서 조합을 통해 판매하는 일을 한다. 툇채취는 1년에 1,000만원(1인당 2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해녀는 약 12명 정도인데 45세 정도가 가장 젊은 층이다. 60~65세 정도가 5명이고, 50대는 2명, 나머지는 40대이다.

일과리의 인구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일과1리의 경우 시설원예로 인한 마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타지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 일과2리 역시 1997년도에 약 15가구, 30~40명이 늘어났다. 일과2리에 농공단지가 있고, 해안도로 변으로 양어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이주해 온 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과 2리에는 다음과 같은 회칙이 있다.

日果2里마을회 會則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日果2里마을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일과2리 주민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2리 1517번지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주민 화합과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2. 경로효친에 관한 사업
3. 경영수익사업
4. 일과2리 출신 재외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업
5.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가 본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용어의 정의) 일과2리, 또는 일과2리마을회와 관련된 각종 문서, 또는 발인

日果里 學術調查報告

을 통해 표출된 '리민' 과 '주민' , '회원' 은 모두 같은 뜻의 용어로 간주되며 각각의 복합어, 파생어도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제 6 조 (자문기구) 일과2리 원로회는 본회의 자문기구로서 본회 활동 전반에 걸쳐 조언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里長은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7 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되며 정회원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개발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판정한다.

1. 정회원 : ① 주민등록상 일과2리에 주소를 둔 세대주. 단, 위장전입자와 장기 출타자는 제외한다.

② 사정상 다른 지역으로 일시 퇴거했으나 실제로 일과2리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2. 준회원 : 정회원이 아닌 자 가운데 장기간 거주를 목적으로 일과2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대주

3. 명예회원 : 일과2리 출신 재외 주민은 모두 명예회원이 되며, 이와는 별도로 里長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8 조 (권리)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회원은 본회 총회와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발언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9 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이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임원

제 10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里長 1인

2. 개발위원 15인 이내

3. 반장 10인 내외

4. 기타 里長이 본회의 특정 업무를 맡겨 임명한 자

제 11 조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里長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里長 임명에 관한 남제주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된 요건을 갖춰야 임기가 시작된다.

2. 개발위원은 남제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다.

3. 반장은 里長이 임명하되 남제주군 반설치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4. 기타 임원은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도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2년으로 한다.

- 제 13 조 (직무) 1. 里長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개발위원회 등 본회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개발위원회는 본회의 대의기구인 개발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본회 운영과 관련된 시책 발굴과 주민의 이해 조정 등을 위해 노력한다.
3. 반장은 각 반을 대표하며 반원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업무와 의견수렴 업무를 맡는다.
4. 기타 임원은 里長의 업무분담에 따라 맡은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회의

제 14 조 (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 승인
4. 재산권의 변동
5. 회비등 분담금의 책정 및 기금 운용

제 15 조 (개발위원회) 1. 개발위원회는 남제주군리개발위원회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개발위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고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처리한다.

2. 개발위원회의 감사위원은 본회 활동 전반에 걸쳐 감사하고 그 결과를 개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3. 반장과 제10조 제4항의 기타 임원은 개발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 16 조 (개최 시기)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와 개발위원회는 里長, 또는 개발위원 과반수가 필요로 할 때 개최한다.

제 17 조 (소집방법) 1. 제14조 각 항에 명시된 안건을 다룰 총회는 개최일 2일 이전에 마을 게시판에 안건을 명시한 소집공고를 부착하고 마을 방송과 반장을 통해 알린다.

2. 개발위원회 및 기타 회의는 그 구성원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제 18 조 (정족수) 1. 제14조 각 항에 명시된 안건을 다룰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성립하며 기타 총회는 출석회원을 성원으로 한다.

2. 개발위원회 및 기타 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총회 및 개발위원회가 성원미달로 결렬될 경우 7일 이내에 재차 회의를 소집하며 재차회의는 출석 인원을 성원으로 한다.
4. 정회원의 배우자 및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만 20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는 세대주를 대신하여 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정회원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모든 회의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日果里 學術調查報告

제 5 장 재정

제 19 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회비와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책정, 기금 조성, 운용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총회의 승인을 얻어 마련할 수 있다.

제 20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회칙은 1997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각종 사업과 결정 등은 본 회칙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3 조 (통상관계)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계에 따른다.

일과리에는 향사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여 경조사 등 미풍양속과 예의범절 등 모든 규범을 토론하던 마을회관이었다. 1935년 주민들의 자치부담으로 세워졌다. 마을의 자치활동을 돕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밤에는 야학을 열어 문맹퇴치에 기여하는 등 향토교육의 교육장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야학은 갑, 을, 병, 정으로 우열반을 편성하여 한글과 수학을 가르쳤다.

일과리에는 초등교육 기관인 대정서초등학교가 있다. 대정서초등학교는 1969년 4월 26일 대정서국민학교로 개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7년 현재 6학년 13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표 3〉 대정서초등학교 학생수

학 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학 급	1	1	1	1	1	1	6
학생	남	15	13	11	9	6	60
	여	9	12	16	10	12	70
계	24	25	27	19	18	17	130

(대정서초등학교 제공)

〈표4〉 대정사초등학교 교직원현황

성별 \ 직	교장	교감	주임 교사	교사	양호 교사	유치원	사무 주임	기능직	영양사	계
남	1	1	2	2	-	-	-	2	-	8
여	-	-	-	3	1	1	1	-	1	7
계	1	1	2	5	1	1	1	2	1	15

(대정사초등학교 제공)

〈표5〉 대정사초등학교 교지 및 건물

교 지		건 물						급식소
대 지	체육장	교실	교무실	과학실	숙직실	창고	화장실	
9,373m'	7,221m'	7실	1실	1실	1실	1실	12칸	198m'

(대정사초등학교 제공)

IV. 産業環境

일과리를 중심으로 하는 대정지구의 토양은 대체적인 경작지가 표고 100m 이하에 위치하는 관계로 砂質壤土 또는 殖壤土로 되어 있어 자갈이 많은 편이며 물이 잘 빠져 홍수피해를 입는 일이 드물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서남부 일대에 펼쳐진 입만한 경사도가 바다와 맞닿아 토양의 분포가 다양하며 현무암층의 토질이 비옥하여 일반 농업은 물론 축산에 이르기까지 입지적 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1960년대 이전에는 보리·조·콩·고구마·감자·밭벼·참깨를 주로 경작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 마늘·양파·감자 등이 대량 생산되었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일과리의 농업은 그 구조면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각 작물별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협동심이 강화되고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기계화운동이 추진되면서 농업의 전문성이 제고되었다.

일과리 일대에서는 기후와 지질, 토양 등 재배조건이 맞지 않아 감귤재배는 소외되었다. 이런 여건 때문에 이 지역의 농업은 맥주맥을 포함한 보리 및 콩, 참깨,

日果里 學術調查報告

고구마, 감자, 마늘, 유채 등으로 보편화되었고 일부의 원예작물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러 그 부가가치가 높아졌다. 특히 비닐하우스 설치에 의한 토마토 재배는 대정지방에서 가장 앞장선 것으로 다른 마을에도 이를 확산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 농가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고구마 재배는 장수원에 있는 한홍산업과 농협에서 운영하는 서림전문공장 등 처리시설이 인접해 있어 많은 혜택을 보았으나 근래에는 농산물 수입 자유화정책에 의한 외국산 당면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6> 1996년도 토지 이용 현황

(단위: ha)

리 별	총면적	경지면적				임야	대지	기타
		소계	전	답	과수			
일과1리	226	149.2	146.4	1.8	1	48.7	8.7	19.4
일과2리	151	120.8	97.6	1.2	22	11.5	5.7	13.0

(대정읍사무소 제공)

<표7> 1996년도 하직물 재배면적 조사 집계표

(단위: ha/호)

리 별		가을 감자	고구마	일반콩	춘저리콩	녹두	참깨	마늘	양파	봄감자	
일과1리	농가수	99	14	4	11	46	2	23	95	5	14
	재배면적	89.4	4.04	0.95	3.22	24.14	0.20	4.32	50.79	1.38	4.04
일과2리	농가수	73	13	20	11	56	-	22	4	-	-
	재배면적	76.3	3.02	8.60	5.76	38.60	-	5.60	14.45	-	-

(대정읍사무소 제공)

<표8> 시설원예

(단위: 가구/평)

구분 \ 작목	방울토마토	상추	오이	계
가 구 수	12	3	3	18
면 적	10,000	1,000	1,000	12,000

(일과1리 사무소 제공)

〈표9〉 1997년도 일과리 가족 사육 현황

리 별	소	돼지	닭	개	산양
일과 1리	663	-	-	79	-
일과 2리	159	9,838	5,120	55	199

(대정읍사무소 제공)

그 밖에 일과 1리에서 1가구가 양봉(70군)을 하고 있다.

V. 歲時風俗

세시는 자연의 주기이며, 농사의 주기다. 그러므로 세시풍속은 농사의 주기, 즉 절기에 따라 신앙과 생산의 공동체가 절후에 맞게 또는 ‘달거리’로 일정하게 치르는 명절 의식, 놀이의 관습이다. 매년 그 날이 되면, 생활 속에서 밟고 지켜온 절기에 따르는 생활 풍습이다. 세시풍속에는 생활과 의식이 융결되어 엮여지고 있어서 폭 넓은 생활문화가 반영된다. 계절에 따라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의식이기 때문에 한 지역의 사람들의 생업 역사 사회를 반영한다. 일과리의 세시풍속은 다음과 같다.

1월(正月)

떡점보기 : 정월 대보름의 민속에는 ‘떡점’이라는 게 있다. 보름 전 날, 새 날과 묵은 날 사이에 식구 수대로 떡을 찌는데 찹마다 식구의 이름을 써 넣는다. 떡을 다 찌고나서 보면, 그해에 액운이 있는 아이의 이름이 있는 찹은 익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이의 액운을 막기 위하여 처방을 한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나 두 가지 정도로 행해졌다. 하나는 신방을 불러다가 굿을 하여 그 아이의 액운을 막고, 다른 하나는 경문을 읽는 사람을 불러다가 경문을 읽게 하여 액운을 막는다.

연날리기 : 정월 대보름에 연을 날리는데 멀리 띄워 보내거나 연싸움을 한다. 이때 띄워 보내는 연에는 그 사람의 소원을 적는다. 연이 멀리 날아갈수록 그 사람의 운수가 한 해 동안 좋다고 한다. 또 연을 날리면서 연싸움을 하게 되는데 날의 틈과 상하모퉁이로 나누어 서로의 연을 끊는다. 먼저 끊는 편이 이겼다고 한다.

2월

영동 : 영동할망이 오는 초하루부터 열나흘까지는 특히 흰 빨래를 널지 않는다. 이때 빨래를 널면 구더기가 생긴다고 한다.

4월

초파일 : 신자들은 대원사를 찾아가 등을 달고 가족의 안녕을 기원한다.

쇠태우리개 : 4월 5일은 청명이라고 해서 이 때는 풀이 나기 시작한다. 일파리에 는 쇠태우리가 두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동네 사람들이 농사일로 바쁘기 때문에 샴을 받아서 소를 맡아 준다. 청명날로부터 시작되는데 아침에 쇠태우리가 “쇠 뭉 씨, 쇠 뭉 씨.” 하면 동네 사람들은 소를 밖으로 몰아준다. 그러면 그들은 소를 몰고 가시악이나 모슬봉 쪽에서 방목을 한다. 저녁이 되면 소를 몰고 집으로 오면 소들 은 자기 스스로 자기 집을 찾아갔다고 한다. 이 때부터 시작해서 7월 전까지 하고, 또 8월부터 가을걷이 전까지 한 다음에 겨울에 소는 집에서 보낸다고 한다. 샴으로 는 곡식으로 대치했다.

5월

단오명절 : 한식, 설, 추석과 더불어 4대 명절 중의 하나이다. 조상을 모셔서 차례를 지내는 것 이외에, 이 날은 솔붕, 땃순, 검은 콩, 검은 쇠똥 등을 모아 두었다가 약을 고아 먹는 풍속이 있었고, 여자들은 이슬이 마르기 전에 약초를 캐어다가 말렸다. 주로 집 주변의 흔한 쑥과 익모초, 인동 등을 캐어 처마나 외안간에 매달아 말린다. 또한 그네뛰기를 한다.

개역 : ‘개역’은 보리를 술에 볶아서 땃돌로 갈아 가루를 만든 ‘미숫가루’를 말한다. 망종이 지나고 보리를 수확할 무렵이면, 초여름의 더위가 시작되고 장마가 들어 비오는 날이 많다. 맹벌레 더위를 식힐 때도, 장마 비를 보며 마루에 앉아 냉수에 탄 개역을 들이키면, 그 맛이 그만이다. 즙낭을 잘하는 제주 사람들에게 중요한 계절 음식이다.

6월

닭잡아 먹기 : 유월 스무날이 되면, 집에서 기르던 닭을 잡아먹었다. 닭에 마늘과 쌀을 같이 넣어 끓여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었다.

갈증이 만들기 : '갈증이'는 제주도 전 지역에서 만들어 입는 노동복이다. 풋감이 여물면, 이를 따서 뿔아 즙을 낸 후에 이 즙을 무명에 적서 햇볕에 말린다. 처음에는 매우 뻣뻣하고 거칠며 색이 붉으나, 조금 지나면 부드러워지고 색깔도 갈색으로 변한다.

7월

백중날 물맞기 : 백중날에는 물을 맞으러 가는 풍습이 있다. 일파리 주민들은 대수동에 있는 서림물로 물을 맞으러 간다. 특히 찌는 듯한 퇴약별 아래서 여름 농사의 검질매기(김매기)를 끝낸 주민들은 가을건이 때까지 여가를 활용, 물맞이로서 피서를 즐겼는데 발이 시리는 차가운 냉기와 시원한 물맞이는 심신의 피로를 씻고도 남았다. 물가에는 참외, 물외(오이)가 담가지고 한 쪽에서는 닭을 삼고, 술잔을 돌리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8월

벌초 : 8월이 되면 초하루에서부터 추석 전날까지 조상의 무덤에 벌초를 한다. 특히 초하룻날은 묘제나 시제를 하는 옷대조의 묘소에 친족집단이 공동으로 벌초를 하는데, 이를 '모듬벌초'라 한다.

추석 : 팔월 보름날로 이날은 집에서 차례를 지내며, 어떤 집에서는 성묘를 가기도 한다. 저녁이 되면 줄다리기나 씨름 또는 여자들은 달을 보러간다고 한다.

말똥줍기, 출베기 : 팔월 명절을 전후로 하여 월동 준비를 하게 되는데 마소의 먹이로서 출을 베어다가 말린 다음 겨울용으로 늘을 만들어 쌓아 놓는다. 이 일이 끝나면 '물망태이'를 둘러매고 산과 들에 나가 말똥을 줍는데, 이는 잘 말려서 겨울 동안의 땀감으로 쓰기 위한 것이다.

11월

지붕잇기 : 제주도의 초가집은 새(띠)를 덮는다. 바람이 많고 습기가 많은 탓에 새를 덮고, 새를 엮어 굵은 줄을 만들어 지붕을 단단히 묶었다. 집줄 놓는 일은 한 집안의 식구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이웃들끼리 서로 '수눌음(품앗이)'한다.

동지팔죽 : 동짓날은 팔죽을 쑤어 먹는데, 동지가 동짓달 초열흘 전에 들면, '애기동지'라고 하여 아기가 있는 집에서 팔죽을 쑤지 않는다. 팔죽을 쑤어 먹기 전에

집 어귀와 우영에 손가락으로 떠, 뿌리면서 액을 막기도 한다.

장담그기 : 가을에 건어들인 콩을 깨끗하게 씻어 솥에 넣고 익을 때까지 불을 댈다. 다 익은 콩을 포대에다 넣고 발로 밟아 으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등글게 만들어 15일 동안 그늘진 곳에 놓아둔다 그러면 곰팡이가 생긴다. 이것을 햇볕에 말린다. 이것을 메주라고 하는데 이 메주는 소금물을 넣은 장독에 넣어 3개월 있다가 그 메주는 꺼내 된장을 만들고 장독에 남은 물은 간장이 된다.

VI. 其 他

1. 민간요법

1) 개에게 물렸을 때 : 개 주인집의 행주로 그 집의 된장을 싸서 감는다. 지금도 개에게 물렸을 때에 이렇게 한다고 한다.

2) 기침, 감기, 열이 날 때 : 뽕나무 속에 있는 잣이라는 벌레를 들 혹은 넷으로 짝을 채워서 대나무가지로 머리를 잘라 손가락으로 파서 우유에 타 먹이면 효능이 있다. 그 외 국가시, 닥당도 달여서 먹이면 좋다.

3) 낮들일 때 : 메, 과일, 물 1그릇, 고기류를 준비하여 낮이 난 곳으로 가서 상을 차린다. 낮이 난 사람의 속옷을 들고 낮을 들여 달라고 빈다. 낮이 들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물그릇에 생쌀을 떨어뜨려 본다. 쌀알이 물 위로 둥글둥글 떠 오르면 아직 낮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다시 비념을 시작한다. 물을 머리에 적시면서 “아이고, 할마님. 할마님 즈손 살려줍서. 낮 들게 해줍서, 낮 들게 해줍서.” 라고 빈다. 비념이 끝나면 다시 쌀을 물에 떨어뜨려 본다. 쌀이 물에 가라앉는 과정을 통해 낮이 들어옴을 확인한다. 낮이 들어옴을 확인한 후에는 낮이 낮던 사람을 멀리 보내고 사방에 물을 뿜은 다음, 제물을 잡식하여 땅에 묻는다. 또한 낮이 난 사람의 속옷을 “이 낮 들여줍서. 삼 낮 들여줍서.” 라고 하면서 빌다가 “이 낮 오랐수가.” 하면 “예. 오랐수다.” 하고, 대답하고, “삼 낮 오랐수가.” 하면 “예. 오랐수다.” 대답을 하면, “아이고, 오랐구나.” 하면서 낮이 낮던 사람을 멀찌감치 보내고는 잡식을 해서 땅에 묻는 경우도 있다.

4) 어린이 낮들일 때 : 해 돌아오는 곳으로 돌아서서 땅을 세 번 두드리면서

“넋들라, 넋들라.”고 외친다.

2. 産俗

—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통과의례

1) 임신부의 금기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임신부가 지켜야 할 禁忌事項이 아주 많다고 한다. 이는 대체로 “임신 중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무엇 하게 된다.”는 투로 표현된다. 따라서 임신부는 항상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1) 임신 중에 말을 매어 놓은 줄을 넘어가서는 안된다. 줄을 밟고 건너지 않고 넘어가면 아기를 열 두달 밴다(말을 닦아서 열두달이 되어야 분만한다.).

임신부는 함부로 물건을 뛰어넘는 일을 삼가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말의 고삐를 넘지 말라는 금기를 비롯해서 뛰어넘지 말라는 규제는 꽤 많다.

비단 임신부가 아닌 평상인이라 하더라도 담, 울타리를 뛰어넘거나 도마, 화로, 체를 뛰어넘는 행위는 불미롭다. 더구나 임신이나 출산은 특별한 상황이고, 특별한 고비로서 轉移期間인데 어찌 어정쩡하게 담이나 울타리를 뛰어넘는다는가, 도마, 화로 따위를 뛰어넘는 행위가 용납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담이나 울타리를 뛰어넘다가는 자칫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게 되면 임신부는 물론 태아에게도 이로운 것 없다. 심하면 낙태할 우려마저 있다. 도마나 화로 따위를 뛰어넘는 행위도 위태롭고 불손하며 불미롭다.

(2) 임신 중에 원숭이 놀이 보지 말라. 그러면 원숭이 같은 아이 태어난다.

이것은 임신중에 언짢은 것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금기에 해당한다. 이 밖에 회로하며 서로 다투는 모습과 형벌하는 모습, 광대·난쟁이, 뭍쓸병을 앓는 모습, 물난리와 화재 따위, 불타는 나무와 쓰러지는 집 따위, 짐승의 음란함과 병들고 상한 모습, 더럽고 흉칙한 벌레 따위 등을 보아서는 안된다.

(3) 임신 중에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손버릇이 나쁘다. 자그만 절도라도 삼가야 하는 것은 그 업보가 두려울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신부의 정서로 보더라도 안정을 해친다.

(4) 앞에 임신한 사람이 지나갈 경우, 뒤에서 불렀을 때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아

들을 낳고, 왼쪽으로 돌아보면 딸을 낳는다.

2) 출산에 따른 속담 및 금기

(1) 난산일 경우

- ① 산파가 없을 경우 옆 집에 사는 수덕 있는 할머니를 청해다가 입담을 하면 아이를 순산한다.
- ② 대문을 열고, 지방굽을 민물에 행귀다가 먹이면 순산한다.
- ③ 푸는체에 향물을 행귀다가 먹이면 순산한다.
- ④ 대문을 열고 지붕 위에 지계를 지고 올라가 쇠집을 놓으면 순산한다.

(2) 출산 후

- ① 향물이나 썩물로 아거나 산모를 목욕시킨다.
- ②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금줄을 치는데, 그 새끼는 대개 부모가 끈다. 부모가 나이가 많거나 돌아가셨을 적에는 남편이 끈다. 보통 새끼는 오른쪽으로 끄는데, 출산을 알리고 액을 막는 금줄은 왼쪽으로 끈다. 아들과 딸의 구분은 없다.
- ③ 아이를 해산한 뒤 이웃에서는 아이를 보고 싶어도 3일에서 5일을 넘어야 보러 갈 수 있다. 친족인 경우는 언제든지 보러 갈 수 있다. 집에 상이 나거나 몸이 비린 사람,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은 아기 보러 가는 것을 삼가야 한다. 아이가 태어난 집 뿐 아니라 목을 졸라매어 자살하거나, 임종을 앞두고 있어 곳을 하기 위해 심방이 오는 집에도 사흘 이전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다. 몸과 주위를 깨끗이 하여 정성을 들이고, 잡신을 예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 ④ 금줄은 아이가 태어난 후 5~7일이 지나면 내리고, 아예 안 하는 집도 있다고 한다.
- ⑤ 아이가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할망상을 차리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할망상을 차리지 않는다. 메에는 띠를 꼴으며 터진 방향인 동쪽을 향해 비נם을 한다.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병이 들면 할망상을 차리고 심방을 데려다가 의례를 행한다.
- ⑥ 두건을 모아두었다가 베옷을 만들어 입혀 아이가 피부병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3. 기타

- 1) 혼인 지역은 일과리를 중심으로 서쪽에 한하며 모슬포 동쪽으로는 혼인하지 않는다.
- 2) 집안에 상이 났을 때는 상주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사위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3) 재산분급 : 전적으로 큰아들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며 서열에 따라 비율을 따져 차별을 둔다. 집안 사정에 따라 다르다.
- 4) 제사 : 보통 장남이 지내지만 형제가 몇 개씩 맡아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方 言

목 차

- I. 농업
- II. 어업
- III. 가옥구조
- IV. 식생활
- V. 의생활
- VI. 가축·곤충·새
- VII. 지명

I. 농 업

1. 곡류

(1) 보리

① 술오리·술보리 : 쌀보리 ② 맥주보리 ③ 걸보리

(2) 나뭇 : 쌀·벼

산디 : 밭벼

(3) 콩 : 콩

① 검은 콩 ② হল근 콩 ③ 좁진 콩 ④ 돔비 ⑤ 강낭콩 ⑥ 준자리 ⑦ 대철 ⑧
날래콩 ⑨ 쌍콩 ⑩ 돛새기콩

(4) 녹디 : 녹두

(5) 서숙 : 조

① 흐린 조 : 차조 ② 모인 조 : 메조 ③ 마씨리

(6) 풀 : 팔

① 눈풀 ② 춤풀

(7) 께 : 깨

① 아즌베기 께 ② 변덕 께

(8) 무말/무물/무밀 : 메밀

(9) 대죽 : 수수

① 새당대죽 ② 강낭대죽 : 옥수수(강낭대죽부룩이 : 옥수수열매) ③ 아즌대죽
④ 비대죽 ⑤ 쌀대죽

(10) 감저/감재 : 고구마

감저탱구리 : 고구마줄기

(11) 자술 : 김자

2. 채소류

(1) 난쟁이 : 냉이

(2) 능삐/무수 : 무

(3) 배치 : 배추

당배치

(4) 유잎 : 깻잎

日果里 學術調查報告

(5) 갯누물 : 갯

(6) 드룻누물

(7) 마농 : 마늘

① 패마농 : 쪽파 ② 굽대사니/대사니 ③ 풀마농 ④ 꿩마농/드룻마농 : 달래

(8) 새우리 : 부추

(9) 부루 : 상추

(10) 비능 : 비름

① 춤비능 ② 웨비능 ③ 개비능

(11) 양애

(12) 호박 : 호박

① 호박 동무래기 : 애호박(작은 것을 통칭)

② 망대기 호박/마깨호박/통개호박

③ ㄱ래 호박

(13) 외 : 오이

① 물외 ② 참외

(14) 가지 : 가지

(15) 뭍뭍

(16) 버섯 : 버섯

① 쇠젓버섯 ② 돌똥버섯 ③ 소낭버섯 : 독버섯 종류

(17) 고사리 : 고사리
배염고사리

(18) 속 : 속
근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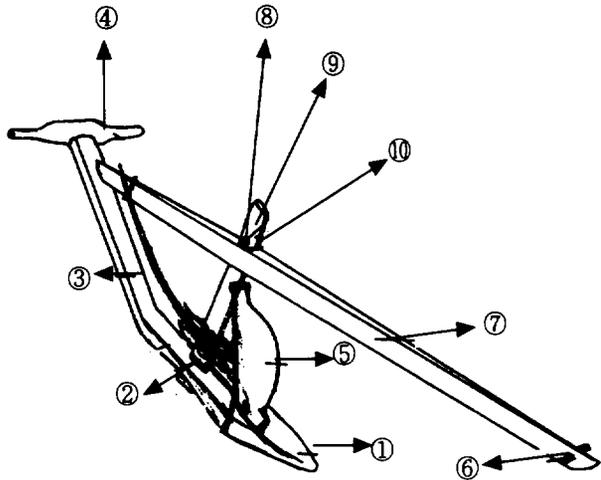
(19) 뽕이 : 뽕기
어욱뽕이

(20) 민네기 : 미나리

(21) 고치 : 고추
풀고치 : 풋고추

(22) 유채-물 : 유채

(23) 동지



(그림 1) 쟁기

3. 농기구

(1) 잠데 : 쟁기(그림 1)

- ① 보섭 : 보습(쟁기의 맨 밑에 붙어 있는 것으로 땅을 파는 날) ② 무쿨구멍
③ 무쿨 ④ 양기(양지) 마루 ⑤ 뱃 : 뱃(보습 위에 붙어 있는 쇠날로, 흙을 얹어
젓하게 하는 것) ⑥ 돌뱅이빨 ⑦ 성외 ⑧ 설치못 ⑨ 설치 ⑩ 설치구멍

(2) 따비

(3) 전데 : 씨 담아두는 것

(4) 섬비/선비 : 곡식 뿌린 후 굽는 것

日果聖 學術調查報告

- (5) 산태/심태 : 거름 낼 때, 두 사람이 앞뒤에서 들고 간다.
- (6) 돛걸음착 : 거름 실어갈 때 사용, 소를 이용한다.
- (7) 착부지/거름착 : 거름 낼 때 쓰는 것
- (8) 클
 - ① 보리클 ② 나목클
- (9) 도깨 : 도리깨
- (10) 멍석 : 멍석
독석
- (11) 당그네 : 고무래
- (12) 그래 : 맷돌
- (13) 방애 : 방아
 - ① 연자방애 ② 물방애 ③ 남방애=도고방애/도계방애 ④ 돌방애
- (14) 마깨
 - ① 덩드렁마깨/덩드레마깨 ② 방에깨 ③ 물마깨 ④ 서답마깨 ⑤ 다듬이마깨
- (15) 두지 : 뒤주
- (16) 서리/서래
- (17) 가래죽 : 삼

(18) 망탕이

- ① 맏망탕이/밑망탕이 ② 강우

(19) 체 : 체

- ① 대체>중체>소체(좁진 체) ② 푸는 체 ③ 췌체 : 뚫거름 낼 때 쓰는 거
④ 얼매이

(20) 나데 : 낮

(21) 호미

(22) 매 : 큰 망치

(23) 새감 : 돌을 깰 때, 사이에 집어 넣는 것

(24) 대패

(25) 항 : 항아리

- ① 장테 : 항아리 뚜껑 ② 양춘이 : 가장 큰 거
③ 통게 : 술 담그는 항아리→ 큰 통게·죽은 통게/암통게·수통게
④ 망데기 : 한 말 분량 크기
⑤ 단지 ⑥ 조막단지
※ 양춘이>통게>망데기>단지>조막단지
⑦ 허벅

- 또아리 : 머리에 없어서 허벅을 받치는 것
- 구블래기 : 허벅 질 때 등 젖지 않도록 받치는 것
- 다게 : 허벅 입구를 막는 거
- 물팡/팡 : 허벅 지고 가다가 쉬어 가는 데
- 대배기 : 허벅보다 작은 크기
- 두병두리 : 허벅 비슷한 것으로, 가장 작은 거

日果聖 學術調查報告

(26) 동고랑척/동고랑/도슬기 : 도사락(1인용)

상지착 : 여러명 분량

(27) 차롱

차반지 : 차롱 뚜껑

(28) 베들 : 베들

① 받디질 ② 도꼬마리 : 얼레 ③ 정/정대 ④ 가락 ⑤ 모둥 ⑥ 물레

(29) 갱이/곡갱이

섭갱이

(30) 구덕

II. 어 업

1. 어류

(1) 갈치

(2) 돔

① 감성돔 : 가문돔 ② 옥돔 ③ 구릿돔 ④ 뱀이 : 흑돔 ⑤ 자(리)돔 ⑥ 황돔

(3) 고등어

(4) 낙지

(5) 고맹이/술맹이 : 놀래기

어랭이 : 황놀래기

- (6) 따치
- (7) 수애기 : 돌고래
- (8) 멀 : 멀치
- (9) 물구력 : 문어
- (10) 존다니
- (11) 방어
- (12) 복쟁이 : 복어
- (13) 상애 : 상어
- (14) 우럭
 - ① 손치/소치 ② 솜뱅이
- (15) 오징어
- (16) 객주리 : 쥐치
- (17) 덩부지 : 덩불치
- (18) 각재기
- (19) 줄락 : 노래미
- (20) 북바리

2. 해조류

(1) 김 : 김

(2) 멩 : 모지반

(3) 미역 : 미역

미역기 : 미역줄기

(4) 우미 : 우뭇가사리/천초

(5) 청각 : 청각

(6) 툫/툭 : 툫

(7) 파래김 : 파래

(8) 감태 : 미역 종류

※ '잎이 넓적한 거 이서, 건 먹지 않는 거. 여기서는 밭에 거름으로 쓴다마는 (잎이 넓적한 게 있어, 그건 먹지 않는 거. 여기서는 밭에 거름으로 쓰지만).

(9) 보리대

※ 보리대도 잉 파랑흔 거, 이만씩 길쭉길쭉한 거 나났주게. 민물·바닷물 섞어 진 데(민게물)서 나는 거(보리대도 있지, 파란 거, 이만큼 길쭉길쭉한 게 났었 지. 민물·바닷물 섞어진 데서 나는 거)

3. 패류, 갑각류

(1) 김이 : 게

- ① 촌강이 : 참계(몸 전체가 빨간 거)
- ② 똥강이(집계발만 불그스름한 거)
- ③ 빈달강이(몸 전체가 누르스름한 거)

(2) 구제기 : 소리

(3) 보말

- ① 문테기(보말) ② 먹보말 ③ 수드리 ④ 고메기 ⑤ 메옹이 ⑥ 오막쌀

※ '다 죽은 꿩여 먹어, 전복도 호고, 보말도 호른 맛있는 거고. 큰 보말은 죽 꿩이른 호끔 맛있어. 모살만 빼민 맛있는 거고.'(다 죽은 꿩여 먹어, 전복도 하고, 보말도 하면 맛있는 것이고. 큰 보말은 죽 꿩이면 좀 맛있어. 모래만 빼면 맛있는 것이고.)

(4) 굼벵

- ① 쇠굼벵 ② 털굼벵

(5) 배말

조패말

(6) 구살/귀살 : 성계

숨

※ '구살 종류인데 거명호지 않은 거, 하얀 가시 있는 거.'(성계 종류인데 겹지 않은 것, 하얀 가시 있는 것)

(7) 전복 : 전복

- ① 갯바루 : 전복새끼
- ② 뱃찌기 : 암전복새끼
- ③ 수통이 : 큰 전복

※ '우리 큰 전복 잡으민 '아이구, 수통이 튀었저게' 경 혼다.'(우리 큰 전복 잡

으면 '아이구, 수통이 튀었구나' 그렇게 한다.)

(8) 바루 : 오분자기

(9) 해삼 : 해삼

(10) 물썩/물썩기 : 해파리

4. 물 때(음력)

(1) 조금

물이 나지도 들지도 않은 상태

(2) 물찌

물이 나는 것

- | | | | |
|-------------|-------------|-----------------|-------------|
| ① 앓간조기 : 1일 | ② 조금 : 2일 | ③ 부날 : 3일 | ④ 혼물 : 4일 |
| ⑤ 두물 : 5일 | ⑥ 세물 : 6일 | ⑦ 네물 : 7일 | ⑧ 다섯물 : 8일 |
| ⑨ 여섯물 : 9일 | ⑩ 일곱물 : 10일 | ⑪ 여덟물/여덟물 : 11일 | |
| ⑫ 아홉물 : 12일 | ⑬ 열물 : 13일 | ⑭ 열흔물 : 14일 | ⑮ 열두물 : 15일 |

5. 바 람

(1) 동아푸름 : 남동풍

(2) (서)길보름 : 남(서)풍

(3) 마푸름/마보름 : 남풍

(4) 하늬보름 : 북풍

(5) 셋보름 : 동풍

6. 해너 관련 어휘

(1) 즘녀 : 해너

- ① 새끼즘녀 : 처음 물질하는 해너
- ② 상군 : 물질 잘 하는 사람
- ③ 골라기 : 아예 못 하는 사람

(2) 물질

(3) 숨비소리

(4) 작업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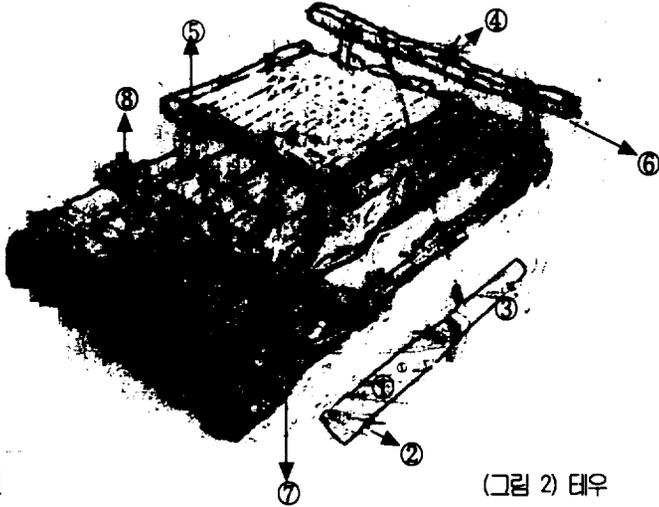
- ① 소살 : 작살 ② 호맹이/갈꾸리 ③ 굴갱이 : 성계 따는 거 ④ 비창 : 전복 깨는 거 ⑤ 망시리 : 그물로 짜서 채취한 해산물을 넣는 그물, 태왁에 씌움(그물 구멍이 성기다) ⑥ 홍사리

※ 망시리 말고 옛날들은 요만한 홍사리랜 허영으네 막 물건이 많으냥 그냥 그 거 ㄱ정 들어 강으네 하나만 흥는게 아니냥 홍사리 ㄱ정 덩기멍 흥여(망시리 말고 옛날에는 요만한 홍사리라고 해서 막 물건이 많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홍사리 가지고 다니면서 하지).

- ⑦ 조락 : 오분자기, 전복 담는 것(그물 구멍이 촘촘하다) ⑧ 태왁 ⑨ 감재 : 태왁 옆에 씌우는 거 ⑩ 밀 : 귀에 물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 ⑪ 안경 : 물안경 ⑫ 물적삼 ⑬ 어음 : 태왁 씌우는 망사틀 ⑭ 뽕뿔 : 고무옷 입을 때 허리에 다는 것 ⑮ 불턱 : 해너들 불 쬐는 데

6. 테우(그림2)

- ① 네 : 노 ② 네션 ③ 네썩 ④ 네쫇
- ⑤ 평상 ⑥ 고물누르게 ⑦ 이물누르게 ⑧ 누르게



7. 염전

(그림 2) 태우

(1) 염기(鹽期)

농한기에 주로 한다. 봄·여름, 특히 장마 이후에 무수기(물찌) '부날'부터 두물 날까지 5일(부날, 아끈기, 한기, 물, 두물)에서 7일 간

(2) 제염 과정

- ① 무기(모래밭)를 만든다 : 바닷물이 고일 수 있도록 골을 만든다.
- ② 적지물(바닷물)을 뿌린다 : 적지물은 바다에서 허벅으로 운반하는데, 주로 여자들이 했다. 물을 뿌릴 때는 수통을 이용했다. 하루에 네 번, 한 평당 한 허벅의 바닷물을 뿌려 말린다.
- ③ 무기를 서리(당그네)로 긁어 뒤엎는다 : 모래에 소금기가 배어 하얗게 된다. 이 모양을 두고 '근삿다'라고 한다. 이렇게 된 모래를 소금모살이라 한다.
- ④ 소금모살을 모은다 : 모을 때는 반드시 낭가래죽(나무삼)으로 한다. 모래를 운반할 때는 '산테'를 이용한다.
- ⑤ 물을 뺀다 : 鹽氣가 배인 무기에서 물을 빼는 장치를 '덕'이라 하는데, 들로 가로 세로 높이 약 1m씩 담을 쌓고 70cm 정도 깊이가 되게 흠을 만든다. 흠 바닥에는 나무를 깔고 다시 그 위에 띠를 깐다. 흠에서 흘러내린 물은

통으로 흘러 고인다. 덕 바다 이외에는 물이 새어남을 막기 위해 찰흙으로 단단히 바른다. 산태 두개 분의 모래를 흙 안으로 담아 넣으면 그 위에 두 허벅의 바닷물을 부었을 때 한 허벅분의 물이 나온다.

- ⑥ 염도를 측정한다 : 계란을 넣어보고 '갯물'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⑦ 소금을 만든다 : 28되들이(일곱허벅분) 가마에 물을 부어넣고 불을 지피 소금을 만든다. 가마에 뜬 잡찌꺼기 물을 '추근물'이라 한다. 갯물의 양만큼 소금이 나온다.

(3) 소금의 이용

소금이 나지 않는 지역으로 운반하여 곡식과 1대 1로 교환하였다. 고산, 한림에서 남원까지 공급

Ⅲ. 가옥구조

1. 집 전체 구조

(1) 울래

- ① 정낭 ② 정주목 : 정낭을 거는 들 ③ 울담

※ '옛날엔 인심이 좋아가지고 낭을 이렇게 영 시개만 올려 노민 누구든지 오랑 봐서 아, 이던 사람 어신 집이로구나. 도적 방지 하고, 거기다 우마(牛馬)가 늬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녁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주.(옛날엔 인심이 좋아서 나무를 이렇게 세 개만 올려 놓으면 누구든지 와 봐서 아, 여긴 사람 없는 집이구나. 도둑 방지 하고, 거기다 우마가 남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지.)

(2) 마당

- ① 무똥 : 앞마당 ② 우영

(3) 이문간

(4) 쇠막 : 외양간

올래방 : 쇠막 옆에 붙은 방

(5) 돛통/돛시 : 변소

① 돛도고리 : 돼지 밥그릇 ② 두들팡 : 발 디디는 데

(6) 우물

(7) 문

① 대문 ② 대문지방 ③ 창문 ④ 창문지방 ⑤ 창문걸쇠 ⑥ 돛절귀 ⑦ 지겟문
⑧ 정짓문 : 부엌문 ⑨ 마릿뒷문 ⑩ 셋문 : 부엌으로 나가는 문 ⑪ 안방문 ⑫
풍채 : 바깥 창문

(8) 방

① 구들 : 방 ② 구들창/구들바닥/마릿바닥 : 방바닥 ③ 정짓구들 : 부엌에 달린
방 ※ '부엌에서 어머니들이 아침에 밥 하러 나왔당 좀 피로우민 여기서 쉬었
주.'(부엌에서 어머니들이 아침에 밥 하러 나왔다가 좀 피곤하면 여기서 쉬었지.)

(9) 기타

① 청방마리 ② 거왕 ③ 집줄 ④ 서슬 ⑤ 서슬목 ⑥ 집가지 ⑦ 엇돌 ⑧ 제절
⑨ 집지슬 ⑩ 흙대 ⑪ 주춧돌 ⑫ 난간 ⑬ 지등 : 기등(뿔지등, 풀지등) ⑭
배또리 ⑮ 지봉 ⑯ 가제 : 처마 ⑰ 천정 ⑱ 서까래 ⑲ 섬돌 ⑳ 므루 : 마루(상
므루, 중므루) ㉑ 서리 ㉒ 종포 ㉓ 대들포 : 대들보 ㉔ 고팡

2. 부엌

(1) 불채등

(2) 솔덕 : 솔 앉히는 곳

- (3) 창금 : 굴뚝
- (4) 가스러 : 그을음
- (5) 부지깽이 : 부지깽이
- (6) 곱 : 성냥
- (7) 술강알 : 아궁이
- (8) 고수 : 불쏘시개
- (9) 먼지래기 : 타고 남은 재
- (10) 굴묵
- (11) 당그네 : 부삽
- (12) 가래죽
- (13) 두레박
- (14) 물항 : 물항아리
- (15) 물코 : 수채
- (16) 장탱이 : 설거지통
- (17) 살래 : 찬장
- (18) 장팡 : 장독대
- (19) 공박 : 떡 건지는 도구

日果里 學術調查報告

(20) 배슬기 : 밥 짓는 거

(21) 우금 : 밥주걱

(22) 바금지

① 쇠납구덕(大) ② 중구덕 ③ 출구덕 ④ 송케구덕 ⑤ ㄱ는배구덕

(23) 바가지

① 솜박 ② 줍팍/솔박 ③ 대왁세기 ④ 남박세기 ⑤ 꼴락박세기

(24) 돛배 : 도마

(25) 바드랭이 : 떡 찰 때 쓰는 찜통

IV. 식생활

1. 밥

(1) 곤밥 : 쌀밥

※ 대체비술 : 제사나 명절 때 먹었던 고급 쌀로, 맛이 아주 좋다.

(2) 보리밥

(3) 조팝

(4) 풀밥

2. 국

(1) 갈치국

(2) 누물국 : 나물국

- (3) 남백국 : 무국
- (4) 대역국 : 미역국
- (5) 보말국
- (6) 호박국
- (7) 호박잎국
- (8) 묵국

3. 죽

- (1) 모밀죽 : 매일죽
- (2) 보리죽
- (3) 콩죽
* '옛날엔 그래로 콩 굴앙 조 넣고 먹었주.'(옛날에는 맷돌로 콩을 갈아서 조를 넣고 먹었지)
- (4) 오분제기죽
- (5) 보말죽
- (6) 구정기죽
- (7) 김이죽 : 계죽
- (8) 꿀죽 : 꿀죽

(9) 미음

4. 반찬

(1) 김치 : 김치

① 늬배김치 : 무김치 ② 드릇늬말김치 ③ 각때기김치 : 깍두기 ④ 갯늬말김치 : 갯김치 ⑤ 동지김치 ⑥ 드릇마농김치 ⑦ 물김치 : 물김치 ⑧ 배치김치 : 배추김치 ⑨ 새우리김치 : 부추김치

(2) 생기리 : 무우말랭이

(3) 돌비 : 두부

(4) 묵 : 적

(5) 밀채

(6) 돌근

(7) 젓 : 젓

① 자리젓 ② 멜젓 ③ 강이젓

(8) 마농지/송게비지 : 마늘 장아찌

(9) 패마농지

5. 범벅

(1) 김저범벅 : 고구마범벅

(2) 조팜벅 : 조범벅

(3) 보리범벅

(4) 무말범벅 : 매말범벅

(5) 꿀범벅 : 꿀범벅

6. 떡

<제사때>

(1) 지뎨 : 침떡/조침떡

(2) 근떡 : 쌀떡

① 솔벤 : 반달모양 ② 젤벤 : 둥근 모양

(3) 중과

(4) 약과

<명절때>

(1) 송편 : 송편

(2) 지름떡 : 기름떡

(3) 시미떡/새미떡

<굿할 때>

(1) 돌래

(2) 코스

<기타>

日果里 學術調查報告

- (1) 꿀떡
- (2) 조개생편/조래송편 : 조개송편
- (3) 삼매떡 : 보리떡
- (4) 빙떡
- (5) 썩떡
- (6) 보리귀주떡(보리+썩)

7. 술

- (1) 오매기술
- (2) 청주 : 좁쌀로 담근 술, 맑은 웃물을 따른 것
- (3) 탁배기 : 좁쌀로 담근 술, 청주를 빼고 바닥에 남은 것
- (4) 감디 : 감주

<술 제작 과정>

- ① 연자방아에서 보리를 간다 → ② 누룩을 만든다 → ③ 누룩 위에 각단(새)을 덮는다 (15일 경과) → ④ 쌀을 물에 20분 간 불린다 → ⑤ 시루에 담는다 → ⑥ 누룩을 함께 넣고 찐다 → ⑦ 충분히 식힌 후 항아리에 담아 둔다(한 달 경과) → ⑧ 고수리(고시리)에서 걸러낸다

※ 고수리/고시리 : 청주/탁배기 걸러내는 기구

8. 기타

- (1) 순다리

- (2) 베때기
- (3) 수제비
- (4) 보리조베기(보리가루를 반죽해 손으로 떼어서 넣고 만들)
- (5) 기억 : 미숫가루

V. 의생활

(1) 노동복

- ① 갈중이 : 갈적삼 ② 뚝바데 ③ 베중이 : 여름용, 감물을 들이지 않은 옷
- ④ 등지기 : 소매 없는 옷 ⑤ 잠방이 : 여름 노동복

(2) 평상복

<여자>

- ① 고장중이 : 고쟁이 ② 속곳 ③ 소중이 : 속옷 ④ 치메 : 치마 ⑤ 저구리 : 저고리

<남자>

- ① 도복 : 도폭 * 우머니 : 팔소매 늘어진 부분
- ② 두루막 : 두루마기 * 창옷 : 여름용

<아기>

- ① 지성귀 : 기저귀 ② 뜨데기 : 아기들 입을 때 쓰는 거 * 질빵/결렁이
- ③ 배부루기 : 배만 싸 주는 거

<기타>

- ① 접세기 : 비올 때 우산처럼 쓰는 것 ② 초쟁이 ③ 손또메 ④ 독다리 ⑤ 쪼개

(3) 상복

① 건대 : 상 날 때 쓰는 것, 두건 위에 썼음

② 두건 : 네모난 천 위에 새끼줄 끈 것을 엮음. 소건·대건

③ 방립

④ 방장대 : 상제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거

· 아버지 : 왕대로 만들

※ '일곱모작 된 거라야 방장대를 하여. 마디마디 생각난다고 해서, 매번 아방 생각이 아이난다.'(일곱마디 된 것이어야 방장대를 해. 마디마디 생각난다고 해서, 매번 아버지 생각이 안난다.)

· 어머니 : 머귀냥으로 만들, 어머니 생각이 아버지보다 자주 난다는 데서 유래

※ '어명 죽으면 마음이 먹먹해 가지고 물생각도 아이 나고 설운 생각을 하니까 먹먹해 가지고...'(어머니 죽으면 마음이 먹먹해 가지고 물생각도 안 나고 슬픈 생각을 하니까 먹먹해 가지고...)

⑤ 복곳 : 손주가 입는 상복 ⑥ 복치메/상복치메 : 여자용 ⑦ 제복 : 상제복 ⑧ 행경 : 행건 ⑨ 머리착(탈상 후 머리에 매고 다니는 하얀 천, 복을 입는다는 뜻을 지님)

(4) 혼례복·장신구

<여자>

① 장옷 ② 돌래 : 올린 머리, 가짜 머리 ③ 이마걸이 ④ 빈네 : 비녀 ⑤ 낭저(착) ⑥ 족두리 ⑦ (가막)창신 ⑧ 보선 : 버선

<남자>

① 사모관대 ② 도복 ③ 맹긴 ④ 탕근 : 탕건 ⑤ 입저/입재 : 갓 ⑥ 풍뎡이 ⑦ 고무신

(5) 모자

① 감티(휘양과 비슷한 것으로 귀와 목을 가리지 않는 둥근 모양) · 털감티

② 망근 ③ 방립 ④ 병것 ⑤ 샷샷 ⑥ 유건 ⑦ 불립 : 방한용(정동불립·털불립·대불립) ⑧ 패랭이(밀낭패랭이·베데목 패랭이) ⑨ 후양/휘양(방한용으로,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었는데 귀와 목을 가릴 수 있다.)

(6) 재봉 용구

① 바늘 : 바늘 ② ㄱ새 : 가위 ③ 다루웨 : 다리미 ④ 바늘쌘지 : 바늘쌘지 ⑤ 바늘줄레 ⑥ 굴메 : 골무 ⑦ 안반 : 다듬이돌 ⑧ 윤디 : 인두 ⑨ 화리 : 화로 ⑩ 적고미 : 적고름 ⑪ 흥짓대 : 흥두께

(7) 기타

① 건지 ② 이마쾌 ③ 상통이 : 상투 ④ 얼레기 : 빗(챙빗) ⑤ 소도 ⑥ 쾌지/쾌자 : 심방 입는 옷 ⑦ 남신 : 나막신 ⑧ 손또매 ⑨ 요량 ⑩ 명두칼/명디 ⑪ 초신/적신 : 짚신 ⑫ 명지/맹지 : 명주 ⑬ 셋경/세경 : 거울

VI. 가축·곤충·새

1. 가축

(1) 강생이 : 개

(2) 고냉이 : 고양이

(3) 돛 : 닭

① 병아리 : 병아리 ② 돛새기 : 달걀

(4) 도새기/도야지 : 돼지

(5) 물 : 말

<색갈별 명칭>

① 가문주메 : 검정말

日果里 學術調查報告

- ② 적대 : 붉은말
- ③ 적누 : 이마에서 코까지 흰 색
- ④ 태성배기 : 이마에 점이 있음
- ⑤ 백매물 : 하얀말
- ⑥ 어룩말 : 얼룩말

(6) 췌 : 소

<나이별 명칭>

- ① 금생 : 한 살
 - ② 다간 : 두 살
 - ③ 사릅 : 세 살
 - ④ 나릅 : 네 살
 - ⑤ 다습 : 다섯 살
 - ⑥ 여습 : 여섯 살
- 부룅이 : 숫소 ·암췌 : 암소 ·송아기 : 송아지

(7) 염송아기 : 염소

2. 곤충

(1) 두맹이

(2) 거미 : 거미

(3) 재열 : 매미

- ① 왕재열 ② 족재열 ③ 매옹재열 ④ 풀재열

(4) 심방말촉 : 매뚜기

(5) 불람지 : 반딧불

(6) 벌 : 벌

- ① 서상벌 ② 청벌 : 꿀벌

(7) 뚝부리

(8) 벼룩 : 벼룩

(9) 파리 : 파리

- ① 풍파리 ② 쉬파리 ③ 쇠파리

(10) 주냥이 : 지네

(11) 돌병이 : 달팽이

(12) 곡췌기 : 시마귀

(13) 공중이 : 귀뚜라미

(14) 게우리 : 지렁이

(15) 진드기

- ① 부구리 ② 진독

(16) 거벌 : 거머리

(17) 풍뎡이

(18) 밥주리 : 잠자리

- ① 왕밥주리 ② 고치밥주리 : 고추잠자리

(19) 누내늪이 : 허루살이

3. 동물

(1) 길짐승

- ① 굴개비 : 개구리(벤주기 : 울챙이) ② 두테비 : 두꺼비 ③ 독사 ④ 꿩이/꿩이 : 쥐 ⑤ 토끼 : 토끼 ⑥ 쥐다리 : 오소리 ⑦ 산도새기 : 멧돼지 ⑧ 노리 : 노루 ⑨ 족제비 : 족제비 ⑩ 드랍쥐 : 박쥐 ⑪ 멧마구리 : 멧꿩이 ⑫ 독다귀명/독다구리 : 도마뱀 ⑬ 구렁이 : 구렁이 ⑭ 셋배염 : 실뱀 ⑮ 뚝줄래 : 얼룩뱀

(2) 날짐승

- ① 굴뚝새 ② 꿩 : 꿩(암꿩 : 까투리, 장꿩 : 장끼, 꿩독새기 : 꿩알, 꿩빙아리 : 꿩새끼) ③ 까치 ④ 가마귀 : 까마귀 ⑤ 삿갓새 : 삿갓새 ⑥ 울뼉미 ⑦ 춤새 : 참새 ⑧ 소리기 : 솔개 ⑨ 갯새 : 산새 ⑩ 비축 ⑪ 순작

VII. 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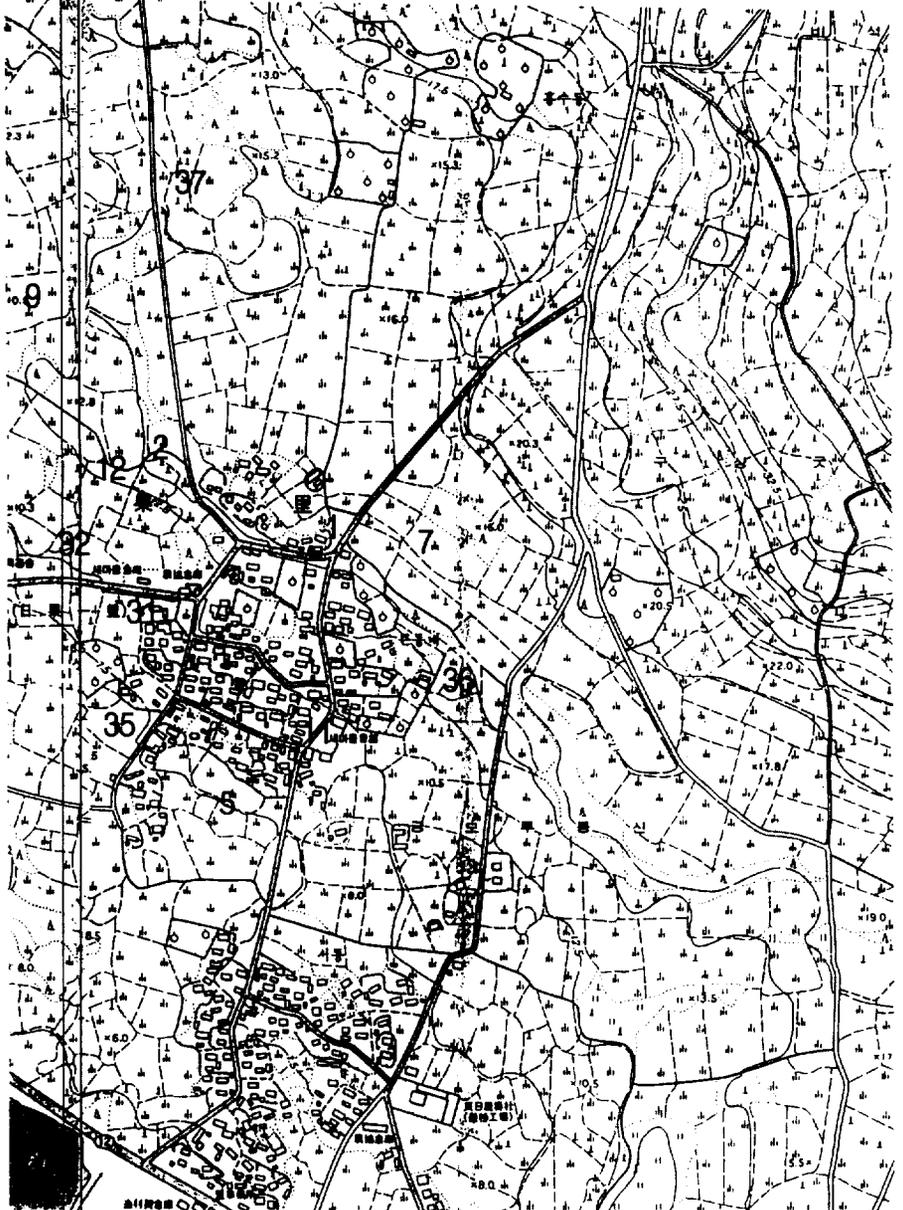
산이름

- ① 옷못동산 ② 생물동산 ③ 구밧(狗尾)동산 ④ 가마귀동산
⑤ 박애동산 : 박씨가 살았다 함.
⑥ 자글동산 ⑦ 통물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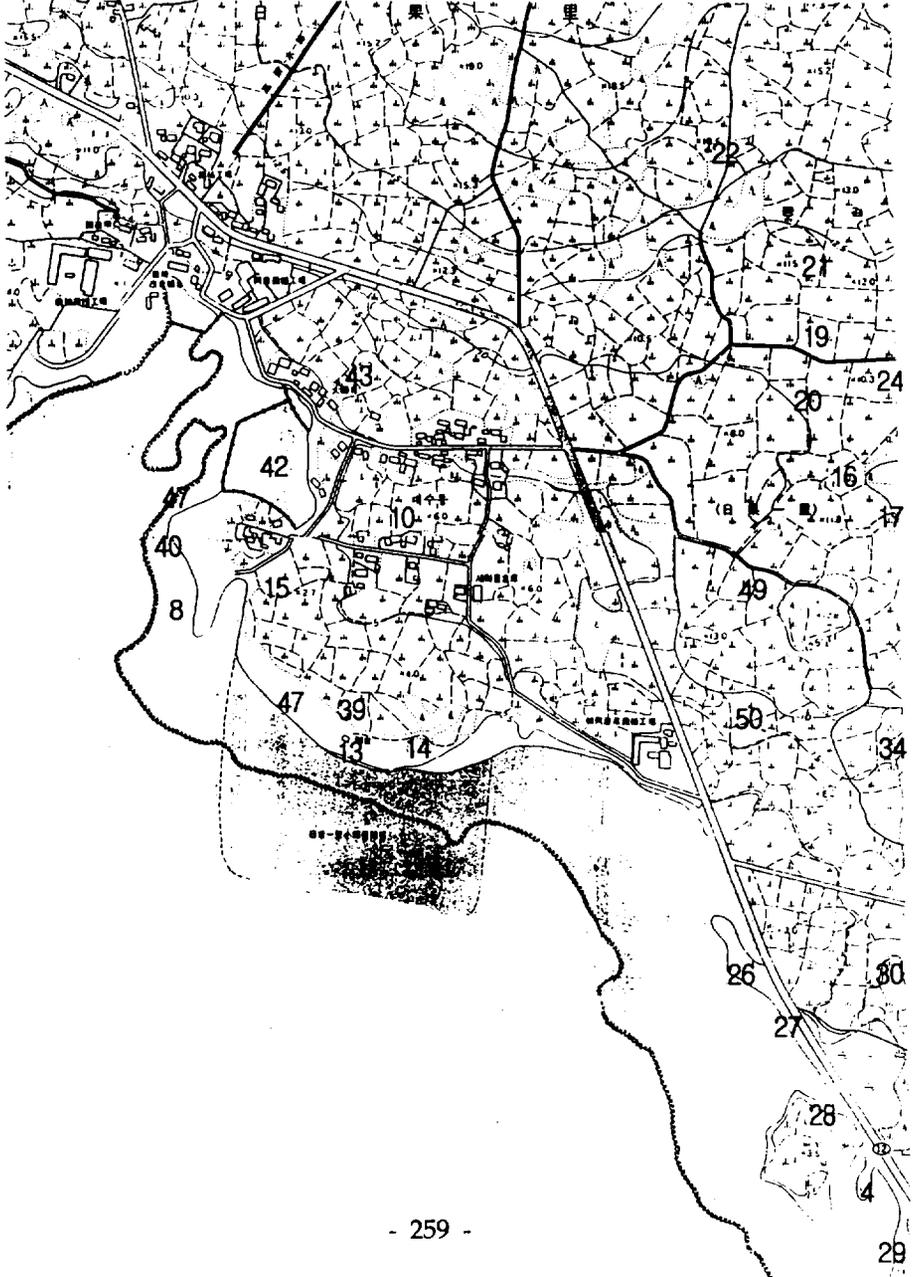
물이름

- ⑧ 능개물 ⑨ 다지물 : 못이 많았다(多池)는 데서 유래, 현재는 못이 없다.
⑩ 큰물 : 서림물

일과리 지도(지명1)



일과리 지도(지명2)



지경이름

- ① 땃밭거리
- ② 뭍질 :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다니던 통로
- ③ 연덧망 : 연대
- ④ 할망당(장수원)
- ⑤ 원지소
- ⑥ 들미
- ⑦ 용다리담
- ⑧ 들피
- ⑨ 껏처낭
- ⑩ 서구남밭(서처남)
- ⑪ 종교논
- ⑫ 섯어움
- ⑬ 권드르집터
- ⑭ 좁뱅이드르 : 사람이 잠뱅이를 입은 모양의 지형
- ⑮ 장두리굴왓
- ⑯ 구늬통
- ⑰ 땃개 : 일과1리와 동일리의 경계를 이루는 늪지대
- ⑱ 큰늪
- ⑲ 소금밭
- ⑳ 흥개우영
- ㉑ 굽은돌거리(머래기) : 약 50m에 걸쳐 굽은 돌이 있었다 함, 日氣가 좋지 않은 날에는 귀신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날에 반드시 초장을 치렀다고 한다.
- ㉒ 냉이굴
- ㉓ 청어리왓
- ㉔ 신예집터 : 신씨(氏)가 살았다 함.
- ㉕ 영밭
- ㉖ 불컨터 : 설촌한 후부터 자꾸 화재가 발생하여 결국 폐동되었다 함.
- ㉗ 영록케 : 노루 모양의 지형

日果里 學術調查報告

- ㉞ 당병 뒤
- ㉟ 높은불턱 : 해너들이 불 지피는 데
- ㊱ 막은개
- ㊲ 모살늬
- ㊳ 썩은목
- ㊴ 절터
- ㊵ 붉은달이 : 명달동
- ㊶ 섯동네 : 일과2리를 지칭
- ㊷ 더래왓질
- ㊸ 힌원
- ㊹ 제성몰리
- ㊺ 후냥개
- ㊻ 어령창이왓

제보자

문인박(남·75세)	강월선(여·70세)	고순자(여·55세)	문태언(남·80세)
문영호(남·43세)	오화은(여·70세)	백월선(여·50세)	이창부(여·77세)
문공회(남·67세)	양기열(여·69세)	진재용(남·63세)	지연순(여·65세)
오계옥(여·65세)	김인옥(여·71세)	문공사(남·53세)	문두배(남·67세)

民 謠

목 차

- | | |
|-----------------|-------------|
| 1. 밭 불리는 소리 | 11. 자장가 |
| 2. 밭 가는 소리 | 12. 창가 |
| 3. 검질 매는 소리 | 13. 동요 |
| 4. 마당질 소리 | 14. 고무줄 놀이요 |
| 5. ㄱ래 ㄱ는 소리 | 15. 시집살이 노래 |
| 6. 방애 소리 | 16. 서우젯 소리 |
| 7. 물 모는 소리 | 17. 오돌또기 |
| 8. 해녀 소리 | 18. 느영나영 |
| 9. 노젓는 소리 | 19. 뱃노래 |
| 10. 물질할 때 하는 소리 | |

제주도 민요 중 가장 많은 것이 노동요이다. 그 가운데서도 <김매는 노래>, <맷돌·방아노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노래들은 힘든 작업을 할 때 수고를 잠깐 잊고, 일의 통일성과 능률을 올리하고자 할 때 부르는데, 그 기능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일과리 민요조사에서는 <밭 불리는 소리>, <검질 매는 소리>, <ㄱ래 ㄱ는 소리>, <물 모는 소리>, <방애 소리>, <마당질 소리> 등의 노동요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노젓는 노래>, <해녀노래> 등이 있고, 기타로 자장가와 놀이요, 동요, 창가, 시집살이 노래 등을 들을 수 있었다.

1. 밭 불리는 소리

①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조사장소 : 문산읍 할머니댁

제 보 자 : 문산옥(여 · 65세)

어려 어려~ 어려 어려~
요몽생이 저몽생이¹⁾
흔저 흔저 걸어보라 요몽생이야
높은 디를 야프게²⁾ 불러보명
신나지도 말꼭 풀리도³⁾ 나게 말앙
걸어보라 요몽생이야
에~ 에~ 어려~ 어려~ 어려려려려

②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A-이성부(여 · 65세), B-백월선(여 · 50세)

A: 어려 어려~어려 어려~

요몽생이 저몽생이 덜랑덜랑⁴⁾ 걸으라 어려어려려려~

이리 저리 가지마라 꼭꼭 잘 불랑 넘어가라 어려어려려려~

요몽생이 저몽생이 덜랑덜랑 높은딜로 잘 불리라

어려 어려~어려 어려~

이리 저리 허끄지마라 불블디만 꼭꼭 잘 불방 넘어가라

이러저러 허~어 어려려려~

B: 어려려려려~

요몽생이 저몽생이 넘어감 꼭꼭 불랑 놉두걸랑

조랑 캐거들랑 마께⁵⁾ 만씩 여몰어도라

-
- 1) 몽생이는 망아지인데 몽아지, 몽생이라고도 함.
 - 2) 기본형은 '야프다'로 높은 곳을 낮게 되도록 밟으라는 말이다.
 - 3) 밟지 않은 곳이 있어서 평지가 되지 않은 모습.
 - 4) 말걸음 걸이의 의성어.
 - 5) 방망이의 제주 방언.

어려려려려~

A: 어려려려려~

이리 저리 건지말라 요뭉생이 저뭉생이

어려려려려~

B: 어려 어려~ 어려 어려~

획획 돌아지멍 요뭉생이들아

주인 속상하게 허지마랑 돌아가멍 꼭꼭 불라보라

어려려려려~

A: 어려 어려~ 어려 어려~

요송아지 저송아지 질력질마랑⁶⁾ 잘 불르라 잘 불르라

어려려려려~

B: 어려 어려 어려 어려

패랭이가 썩뇌두난 동남풍으로 슬렁슬렁 고냉이⁷⁾는 졸리난

요 쇠야 저 쇠야 혼저 제계⁸⁾ 획획 불랑 넘어가라

어려 어려려려려

A: 요뭉생이 저뭉생이 어려려려려

점심은 갖다 뇌두난 고냉이 녀석은 오란 다 들러먹엄쩌⁹⁾

요송아지야 혼저 걸으라 덜랑덜랑 걸으라

어려 어려 어려 어려

B: 점심밥은 잘 맥영 뇌두난 하르방은 담배에 저 패랭이 걸어 두고 어디레 감

시니

혼저 가게 이레왕¹⁰⁾ 요것도 불릅써 하르방 어디레 감수팡

6) 어떤 일에 싫증이 나서 하는 모습.

7) 고냉이(명사) : 고양이(貓) = 고냉이, 께

8) 제계(부사) : 빨리, 서둘러 = 제계

9) 재빨리 음식 먹는 모습.

10) 이레(부사) : 이리, 이곳으로 = 이리

-왕(어미) : -와(워)서.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뭉다·멤다·그립다' 등 '비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나중에 하는 동작·상태의 근거·이유·원인이나 시간적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어미 '-와'에, 뒤에 오는 동작·상태가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오'이 결합된 연결어미.

어려어려어려어려

- ③ 조사일시 : 8월 3일 일요일 오전 12시
조사장소 : 일과2리 팽나무 그늘
제 보 자 : 정달문(남 · 76세)

어려 어려 어려 어~
요물 저물 돌아가라 에 에~
어~러러러
요몽아지야 저몽아지야
애미 조름¹¹⁾에 서서 돌아가라
애 루루루 어려

2. 밧 가는 소리

- 조사일시 : 8월 3일 일요일 오전
조사장소 : 일과2리 쪽낭 그늘에서
제 보 자 : 정달문(남 · 76세)

이쇠 저~쇠 돌아가라 어어어어~
이 멩에도 저 멩에도 술술허게 돌아가라

3. 검질 매는 소리

- ①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조사장소 : 문산옥 할머니댁
제 보 자 : 문산옥(여 · 65세)

11) 조름(명사) : 팽무니, 뒤 = 조름

앞명에랑 들어오라
뒷명에랑 무너나라
앞명에는 끈아장이장¹²⁾
어서어서 오라 손을 친다
몸은 죽고 소리 큰 쇠는
고븐¹³⁾ 쇠로 여위명 간다

- ②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조사장소 : 일과1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김성월(여 · 88세)

어기여랑 사데
요놈의 검질 제계 매자
어기여랑 사데야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어기여랑 사데야
뒷명에랑 나고나가자
어기여랑 사데

- ③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조사장소 : 일과1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A-정영자(여 · 73세) B-이춘수(여 · 72세)

A: 사데불렁 요검질매라
B: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A: 뒷명에랑 물러가라
B: 사데불렁 앞 명에 가자

12) 예쁜 아기가 앉아.

13) 굵은 쇠, 곧 쟁기를 말함.

사데불령 요검질매자
해는 보난 일락 서산 다 떨어지고
일은 보난 태산이 되었구나

- ④ 조사일시 : 8월 3일 일요일 오전
조사장소 : 일과2리 팽나무 그늘
제 보 자 : 정달문(남 · 76세)

검질매자 덩고더운 한유월에 요검질을매자
덩고더운 한유월이 덩땡혀여도
덩고 더운 정칠월이 있다
앞명에랑 들어오라
뒷명에랑 물러나라

4. 마당질 소리(도깨질 소리)

- ①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조사장소 : 문산옥 할머니덕
제 보 자 : 문산옥(여 · 65세)

어야홍 어야홍
서두리 더럼마 어야홍
올로절로 신났구나 때려보자
어야홍 어야홍
시시나고 굴리¹⁴⁾가 났저
올로 절로 때려보자
어야홍 어야홍

14) 굴리(명사) : ① 가루가 되게 짓빳아 놓은 물건 ② 사기나 유리 따위를 짓빳아 놓은 가루

②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김성일(여 · 88세)

어야홍 어야홍

무슨 마당질 허러 간다

어야홍 어야홍

요 보리 뜯려나본다

어야홍 어야홍

높은 동산 뜯려간다

어야홍 어야홍

올로 절로 뜯려나본다

어야홍 어야홍

글로 절로 허지 말고 요동산으로 뜯리자

어야홍 어야홍 어야홍 어야홍

심상하게 허지마라

요동산으로 매질한다

어야홍 어야홍

③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문산옥(여 · 65세)

어야홍 어야홍 어야홍

요동산은 높은 동산 살았구나

어야홍 어야홍

올로절로 때려보자

어야홍어 어야홍

올로절로 요동산은 쟁곡¹⁵이여

때려보자 어야홍

요쪽에도 살았구나 어야홍

④ 보리 타작할 때 하는 소리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김성윤(여 · 88세)

에야홍 에야홍

율로 절로 뜨려가자

에야홍 에야홍

높은 동산을 뜨려가자

에야홍 에야홍

율로 절로 뜨려간다

에야홍 에야홍

제게 술랑술랑¹⁶⁾ 뜨리라

에야홍 에야홍

5. ㄹ래 ㄹ는 소리

①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이춘수(여 · 72세)

이여 이여 이여도하라

요ㄹ래굴앙 오늘즈낙엔 범벅허영

하르방 받티 강 오민 범벅허영 먹게

이여 이여 이여도하라

어멍 똥뀐 때광 나 똥뀐건 느 딸이여 이여도하라

15) 생곡(명사) : 타작할 때 알이 채 떨어지지 않은 곡식

16) 힘을 덜들이고 곡식을 타작하는 모습.

②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정영재(여 · 73세)

이여 이여 이여 이여도허라
강정도 굴암시난 애기들아
이여 이여도 허라
나 노래행 요 그래 굴양
이여 이여 이여 이여도허라

③ 조사일시 : 8월 3일 일요일 오전 10시

조사장소 : 일과리 팽나무 그늘

제 보 자 : 정달문(남 · 76세)

이여 이여~ 이여도허라
이여 이여~ 이여도허라
집신 년아 집자랑 말라
어욱¹⁷⁾ 닷뭇¹⁸⁾ 새닷뭇드런¹⁹⁾
지연 보난 삼칸일너라
이여 이여~ 이여도허라

6. 방애 소리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에서

제 보 자 : 김성월(여 · 88세)

이여도허라 이여도허라

17) 어욱(명사) : 참여새 = 어웁, 어위기

18) 다섯 묶음.

19) 역새 다섯 묶음.

올로절로 이어도허랑 이어도허랑
식콜방애 새글른다²⁰⁾ 이어도허랑 이어도허랑
어느 높은 딜로 흑들라가자²¹⁾
올로절로 지어가라 이어도허라 이어도허라
오죽허른 오름을 식콜방애 새글른다
이어도허라 이어도허라
올로절로 저간다²²⁾ 요리도허라
이어도허라 이어도허라
한편으로 뜨려가민 방애속이 일어난다²³⁾
이어도허라 이어도허라

7. 물 모는 소리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김성욱(여 · 88세)

워러러러러러
요물들 제게걸으라
워러러러러러
올로절로 흔저걸으라
워러러러러러
요물들 저물들 덜랑덜랑 제게걸으라
워러러러러러
올로절로 덜랑덜랑걸으라

20) 짝이 맞지 않는 모습.

21) 방아 확을 정리하자.

22) 이쪽으로 저쪽으로 방아를 쥘어 나간다.

23) 한편으로 쥘어가면 방아 속에 있는 곡식들이 위로 올라오는 모습.

워러러러러러

8. 해너 소리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A-문순화(여 · 70세) B- 백월순(여 · 50세) C- 이성부(여 · 59세)

ABC 이여사나 이여사나 이여사나 이여싸(나)

A 대천바당 물질힘도 깊음알음을 알건만은
한 동네에 살아도 요년속은 몰라 하네

ABC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이여사나 이여사나

A 요물아래 금사금이 풀렸건만
높은 낭에 열매 올라

ABC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이여사나

A 이물애는 이사공아 고물애는 고사공아

ABC 이여사나 지어라가자 이여사나

9. 노젓는 소리

①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조사장소 : 문산옥 할머니덕에서

제 보 자 : 문산옥(여 · 65세)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산초지 물초지는 경극부나 초지러라²⁴⁾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24) 차지러라

전복 좋은 죽마을로²⁵⁾ 구쟁기²⁶⁾ 좋은 죽마을로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②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에서

제 보 자 : A-김숙희(여·75세) B-이성부(여·59세)

A B: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이여사나 이여사나 이여사나

A: 짚은 물 속 혼발 두발 더우치명

요돈벌엉 인생 한 번 죽어나지면

B: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A: 지화로²⁷⁾ 봉토싸명 엽전으로 산담하라

B: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A: 요목저목 홀돌목²⁸⁾ 허리나 알루²⁹⁾

B: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라 디여라

A: 저 바당은 수왕수왕 위염 험짜³⁰⁾

B: 이여도사나

A: 이여도 일심 동넬허영 저 고비만 넘겨나노케

B: 이여라 이여라

A: 이여라 디여라

B: 이여라 가자

A: 지여라 가자

B: 쉬어라 쉬어라

25) 곳으로

26) 구쟁기(명사) : 소라 = 구쟁이

27) 종이돈

28) ?

29) 허리 밑으로

30) 위험하다.

A: 이여사나

B: 이여사나

③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A-문경옥(여·78세) B-문신화(여·80세)

AB: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A: 요눗동이 저눗동이

B: 이여도사나

A: 몽클몽클 잘올라 올라온다

B: 어기여랑 사데로다 이여도사나

A: 삼통³¹⁾을 먹었더니 부자통을 먹었더니

B: 이여도사야 이여도사야

A: 석달한달 요내상처 지어놓고 저산목을 냉겨지면

피칭칭 가는놈은 설마관들³²⁾ 재울소나

저어라 저어라 지어라 가거라 이여사 이여사

발판을 부수었던 요내상처 재울소나 이여사

요물아래 우물싸고 요든종고³³⁾

샌북존 들렁 이물 쌍졌고³⁴⁾ 떼어나줍써 저어라 저어라

우리 관들 설마관들 어디 가고 북해도꺼정 갔더니

이여사 지어라 저어라 체게라 지어라 저어라 저어라

10. 물질할 때 하는 소리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전 12시

31) 삼을 끓여서 만든 약제

32) 설마 사랑한들

33) 청취불명

34) 쌍으로 이어서 있고

조사장소 : 거리

제 보 자 : 백월선(여 · 50세)

산은높고 물은깊오고
이어사 어서가자 어서가자
한손에는 비창심고³⁵⁾
한손에는 두령박심고
이어사나 이어사나
우리어명 날날적엔
해도달도 없는날에
나를 낳나
이어사나 이어사나
대천바당 한가운데
깊곡알곡 알건마는
이어사나 이어사나
한동네에 살고죽어
사람속을 왜모를까
이어사나 이어가자 이어가자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썰물나면 썰물돋고
들물나면 들물지고
여기가면 이섬이고
저기로가면 고질산이네³⁶⁾
이어가자 어서가자

11. 자장가(애기 흥그는 소리)

①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35) 비창은 해녀들이 돌에 붙은 전복을 딸 때 쓰기 위한 도구

36) 고질산(?)이라는 산의 명칭

조시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김숙희(여 · 75세)

웁이자랑 웁이자랑
금동개야 옥동개야 혼저자라
아이고 어멍허리 벳³⁷⁾만 낮되어가고
아긴 안 자가고 어멍허민 좋으리
할망손지 아기 재와줍써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혼저자라 혼저자라
우리아기 자라나민 일가당상 화목동이
부모에게 효재동이 자랑 자랑

② 조시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조시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문순희(여 · 70세)

웁이자랑 웁이자랑
어린시절 할망손지
돈밥 멕영 혼저누웁 재와줍써
저래가는 검동개야 이래오는 검동개야
우리아기 재와도라 느네아기 재와주마
아니재와 주다근에³⁸⁾ 발모가지 손모가지³⁹⁾
즈근즈근 묶어다가 천지수왕드래⁴⁰⁾ 드리쳐불민
개고녕이 틀어먹네
자랑자랑 웁이자랑

37) 벳(명사) : 별(陽)

38) 주면은

39) '모가지'는 명사로서 '목'의 낮춤말 곧 발목. 손목을 일컬음.

40) 천지소로

日果里 學術調查報告

설운아기 어느제랑 옥아그네
나도 놈광ㄴ찌 살아보리
자랑자랑 똥이자랑
은동개야 옥동개야 흐루흔치⁴¹⁾ 흔저크라
어린 시절 할마님이 이 아기랑 물외크듯 키와줍써
동지느물크듯⁴²⁾ 키와줍써
설운아기들 어느제랑 옥아그네
나도 놈광ㄴ찌 살아나보코

③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정영자(여 · 73세)

자랑자랑 똥이자랑
어서자라 우리아기
우리아기 착한겨여
늬의아기고치 먹엉
우는소리 자장자장
우리아기 돈밥멕영 돈좁재와줍서
물아래 옥돌ㄴ뜬 우리아기 흔저키와줍서
자장자장 똥이자장
저래사는 금동개야 우리아기 재와도라
느네아기 재와주마
자라자랑 똥이자랑
우리아기 물외크듯 어욱어욱
신중모르게⁴³⁾ 할마님이 즈손 키와줍써

41) 하루 한치씩

42) 동지나물 곧 봄이 되어 배추에 꽃대가 서 있는 나물을 말함.

43) 있는 줄 모르게

12. 창가

①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조사장소 : 일과1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문순희(여 · 70세)

요동산에 달이솟아 창에비추니
어연간에 깊이든잠 놀라깨었네
사방으로 자사히⁴⁴⁾ 돌아살피난
꿈에보던 고향산천 간곳없구나

② 야학에서 배운 노래

조사일시 : 8월 3일 일요일 오전

조사장소 : 일과2리 팽나무 그늘

제 보 자 : 문상선(남 · 68세)

조선남단 서해변 우리일과리
기원이 몇백년 몇천년인가
시대는 변할망정 인정풍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더라

13. 동요

① 김이(게) 집을 때 하는 소리

밥 흐라 죽 쭈라

밥 흐라 죽 쭈라

44) 자세히

밥 흐라 죽 쭈라
밥 흐라 죽 쭈라

② 도랭이⁴⁵⁾ 잡을 때 하는 소리

뱅뱅 돌라 도랭이 낚으게
뱅뱅 돌라 도랭이 낚으게

③ 검질매다가 지덕(지석)사발⁴⁶⁾이 보이면 하는 소리

* 지덕(지석)사발이라는 것이 가득차면 풍년이 되고 비면 흉년이 된다고 한다.
지덕(지석)할망 밥사발

④ 쇠기눔⁴⁷⁾ 잡고서 하는 소리

청청 불라라 불라라
정이대정 굶구경가게

춤추라 춤추라
정이대정 굶구경가게
춤추라 춤추라
정이대정 굶구경가게

⑤ 재열 · 쥐열(매미) 잡을 때 하는 소리

쥐열재열 내려오라
개똥범벅 쇠똥 범벅 주마

45) 굶뱅이(蝻)

46) 무가의 제석신 곧 농경신을 말함.

47) 썩비름

⑥ 밥주리⁴⁸⁾ 집을 떠 히는 소리

웅애 왕애 청청
아자난 방석에 앉으라

⑦ 두 명이 발을 펴서 손으로 건드리면서 히는 소리

훈다리 두다리 대청개
신나오라 검은 개
오장나 군군나 아르롱 다르롱 돌각 새곳

- 제보자 : 이성부(여 · 59세)

훈다리 두다리 대청개
신나오자 검은 개
어 장작 부롱부롱 아로롱 다로롱 돌각 새곳

- 제보자 : 정성흠(여 · 70세)

⑧ 뽕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히는 소리

니구멍난다 니구멍나민 시린
시린 겹나
검으민 가마귀여
가마귀민 뉘뜨다
뉘뜨민민 심방이여
심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민 칠쟁이여
칠쟁이는 줍진다

- 제보자 : 정성흠(여 · 70세)

48) 잠자리

⑨ 뱀 보고 하는 소리

큰 칼 굴라(ㄱ져오라)⁴⁹⁾

족은 칼 굴라(ㄱ져오라)

뱀 잡아 회해먹게

⑩ 놀면서 하는 소리

가마귀야 가마귀야 어디가완디⁵⁰⁾

뒷집 할망네 집이

불 담으래 갔다왔수다

가난 무슨 반찬 주언디

새우리 반찬 줍디다

밥은 무슨 밥 주언디

풍보리밥 줍디다

-제보자 : 백월선(여 · 50세)

⑪ 갈치 낚을 때 하는 소리

가다리나 배액이나⁵¹⁾

집이 싹젓 싹국이나⁵²⁾

우루우루 올라온다

⑫ 빠진 이빨 지붕에 던지며 하는 소리

묵은이랑 돌아오고

새이랑 돌아오라

49) 칼의 날을 날카롭게 하다.

50) 어디가서 왔니?

51) ?

52) ?

⑬ 이빨 빠진 아이 놀릴 때 하는 소리(아랫나)

앞담 벌어졌저

⑭ 머리 뽀뽀 깎은 아이 놀릴 때 하는 소리

중벼래기 상벼래기

중벼래기 상벼래기

⑮ 이불에 오줌 싼 아이한테 하는 소리

오줌싸라 똥싸라

오줌싸라 똥싸라

14. 고무줄 놀이 하면서 부르는 노래

조사일시 : 8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마당

제 보 자 : 강선미(여·11세) 오민경(여·11세) 강경미(여·9세) 임은정(여·12세)

시골 시골 가위표 시골

한 발 밟았네

두 발 밟았네

빙글빙글 돌다가 건너 뛰어라

15. 시집살이 노래

①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이성부(여 · 59세)

성님성님 스촌성님
시냇살이가 어떡데가
아이고 애야 말도말라
살젠허난 고생이더라
장독ㄴ튼 시아바님에
암독닭은 시어명에
고치닭은 시누이에
물꾸럭닭은 서방님에
살젠허난 고생이여
죽저허니 청춘이라
고치장 단지가 맵다한들
요 시냇살이보단 더 매울소냐
얼씨구나 좋다 저얼씨구나
아니 아~ 놀지는 못허리라

②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A-이춘희(여 · 66세) B-이춘수(여 · 72세)

A: 성님성님 스촌성님
시냇살이가 어떡데가
아이고 애야 말도나 말라
살젠허난 고생이여
장독닭은 시아방에
암독닭은 시어명에
물꾸럭닭은 서방님에
궤치닭은 시아주방에

고치닭은 시누이에
살젠후난 고생이여
B: 고치장단지가 맵다고 한들
이 시늬보담도 더 매울소냐

16. 서우젯 소리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A-이춘수(여 · 72세) B-이성부(여 · 59세)

아아~야 아~아항어요 어허야 어허야
A: 떴네 떴네 화룡선이 떴구나
아아~야 아~아항어요 어허야 어허야
B: 떴다 떴다 호남선이 떴네
아아~야 아~아항어요 어허야 어허야
A: 무정 세월아 가지나 말아라
어야도호 어야호 방아로구나
아아~야 아~아항어요 어허야 어허야
A: 시집이 잘 살아 심문이란다
양골년 술 먹기 심문⁵³이났네
A: 떴네 떴네 화룡선이 떴구나
아아~야 아~아항어요 에~헤 어허야
B: 우리가 살면은 몇 백년이나 살거지나
아아~야 아~아항어요 에~헤 어허야
B: 떴다 떴다 화룡선이 떴네
아아~야 아~아항어요 에~헤 어허야

53) 심통

- A: 시집가고 장개간 남은 걱정서로나 살건만은
아아~야 아~아항어요 에헤야 어허야
- B: 지가 실줄⁵⁴⁾ 알면은 어떤 잡년이 빨래를 하나
아아~야 아~아항어요 에헤야 어허야
- A: 가다 오다 만난 입은 냉~ㅎ야 어허야 어허야
- B: 시집가고 못살줄알면 어떤 잡년이 시집을 가나
아아~야 아~아항어요 에헤야 어허야
- A: 떳네 떳네 화룡선이 떳구나
아아~야 아~아항어요 어허야 어허야

17. 오돌또기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에서

제 보 자 : A-백월선(여·50세) B-이성부(여·59세)

오돌또기 저기 춘양 나온다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A: 한라산 중허리에 시름이 든송 말안송

서귀포 해녀가 바당에 든송 만송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B: 한라산 허리에 시름이 든송 만송

54) 있을 줄

서귀포 해녀들 바당에 든송 만송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같까나

18. 느영나영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에서
제보자 : 여러 할머니들

느영나영 두리둥실 나영
밤에밤에나 낮에낮에나 상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 그려 운다

느영나영 두리둥실 나영
밤에밤에나 낮에낮에나 상사랑이로구나

보리쌀 심는 줄 번연이 알면서
무슨 쌀 심느냐고 권수작을 하네

느영나영 두리둥실 놀고요
낮에낮에나 밤에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앞동산엔 달따다 주고요
님 떠난 동산에 내가 혼자 논다

느영나영 두리둥실 나영
밤에밤에나 낮에낮에나 상사랑이로구나

저 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고
날 버리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 간다

느영나영 두리둥실 나영
낮에낮에나 밤에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발동지 친구는 내 못한 친구라
다시나마 고장나면 영이별이로구나

느영나영 두리둥실 나영
낮에낮에나 밤에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간다 간다고 말이나 하지
정든 입을 놔두고 어디로 가나

느영나영 두리둥실 나영
낮에낮에나 밤에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19. 뱃노래

조사일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에서

제 보 자 : A-백월선(여·50세), B-이춘희(여·66세),

C-이춘수(여·72세), D-정영자(여·73세)

어기야 디여차 어기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A: 동경 창파에 배를 띄우고
출렁출렁 노저어서 만경을 구경하세
어기야 디여차 어기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B: 네 죽고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할꺼냐
이제 가마 들어지면 영이별이로구나
에야노 야노야 에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C: 청천 하늘에는 존별도 많건마는
요내 가슴에는 수심도 많구나
에야노 야노야 에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A: 동경대판이 얼마나 좋아서
꽃같은 나를 두고 연락선 타느냐
에야노 야노야 에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C: 동경 달밤이 피꼬리 우는 소리
하루하루 열리는건 정든임 아니냐
- D: 내가 살면 멧 백년 살거나
나 막 사네 살아봐야 혼 팔십이로다
에야노 야노야 에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C: 우리 순정은 열독에 빠뜨리고
사랑하는 이내 몸의 간장만 타노라
에야노 야노야 에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說 話

목 차

- | | |
|--|-----------------|
| 1. 조사경위·제보자 | 13) 콩쥐 팔쥐 |
| 2. 자료 | 14) 불교 믿은 姑孀 |
| 1) 오찰방(1) | 15) 남침이 하르방 |
| 2) 막산이와 정훈두 | 16) 설촌유래(1) |
| 3) 정훈두(1) | 17) 설촌유래(2) |
| 4) 정훈두(2) | 18) 오찰방(2) |
| 5) 지명유래(1) 일과리 | 19) 오찰방(3) |
| 6) 지명유래(2) 가시봉 | 20) 막산이 |
| 7) 공든 탑이 무너지랴 | 21) 설촌유래(3) |
| 8)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 | 22) 동티난다 |
| 9) 도채비(1) | 23) 당 5백 질 5백 |
| 10) 도채비(2) | 24) 이성계 사건 |
| 11) 본처는 백년 짝은 백일 | 25) 각시에게는 공개 말라 |
| 12) 입은 시어머니, 발은 시누이, 날
개는 시아버지, 몸살은 서방님 | 26) 제사는 지내야 |
| | 27) 무남뱃 이과수 |

1. 조사경위·제보자

제1일(1997년 8월 1일)

일과리 마을회관에 도착하여 간단한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오후에야 비로소 1차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사전 예비 답사 때 도움을 많이 주셨고, 현재 노인회장이신 문공학 할아버지의 소개로, 먼저 문태언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 문태언(남·80세, 일과리 152번지) : 제보자는 10년 전에 아내를 여의고, 지금은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혼자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 오직 진도개 세 마리와 벼를 하며 외로움을 달래는 듯 했다. 현재 제보자가 사는 집은 지금까지 7대 째 계속

대물림해 온 집이라고 한다. 나이에 비해 매우 정정한 편이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었다. 조사자가 요구하는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하게 해주었다. 비록 가정 형편상 정규 교육은 받지 못하였고, 성인이 되어서야 학교에서 천자문과 예법교육을 받은 정도라고 하였지만, 일파리에서는 박식하기로 소문이 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구연 과정에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확한 이해가 어렵기도 했다.

이날 첫조사가 늦게 시작되어서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나기는 무리였다. 그래서 먼저 문태언 할아버지가 구연한 이야기들을 전사하기로 하였다. 전사가 끝난 뒤에는 다음 날 만날 제보자의 집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을회관 옆에 사는 문공학 할아버지와 약속을 하고 하루 조사를 마감했다.



제보자 문태언

제2일(8월 2일)

조사 둘째날, 우리는 노인회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여러 제보자들 중에서 먼저, 김이화 할머니를 찾아갔다.

○ 김이화(여·76세, 일파리 156번지) : 제보자는 서귀포에서 일파리로 시집을 온 뒤 계속 이곳에서 살아온 이다. 조사자가 방문했을 때 제보자는 매우 반갑게 맞아주었다. 여성인데도 국민학교를 졸업하였을 뿐 아니라 초대·2대 일파리 노인회장을 역임하였다. 그전에도 이런 저런 모임에서 직책을 맡은 바 있다고 한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으나, 우스갯 소리 같은 것들은 들

은 적도 없고, 또 이야기 할 줄도 모른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서도 녹음기 앞에서 한다는 이야기하는 게 조금 쑥스러워서 그러는가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나누면서 좀더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로부터 많은 이야기,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채록할 수는 없었다. 제보자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책에 실려있는 다른 나라의 역사였다.

우리는 다시 그 앞집에 살고 있는 양병출 할머니 댁을 찾아갔다. 제보자는 마을을 까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유도했으나 아는 게 없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다. 마침 제보자가 일을 막 마칠 참이어서, 조사자는 조금 기다리기로 하였다. 제보자가 일을 마치자, 가지고 간 음료수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유도했지만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나마 제보자가 들려준 오칠방 이야기도 어제 문태언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한다.

조사자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우스갯 소리를 잘 한다고 하는 문경옥 할머니 댁으로 찾아갔으나, 발에 가고 없었다. 그래서 저녁에 다시 찾아가기로 하고 숙소로 돌아가 조사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두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조사자는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이반 저반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제보해 준 문공학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다.

○ 문공학(남·77세, 일과리 27번지) : 제보자는 현재 일과리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그 전에는 읍장, 리장, 수협조합장, 어촌계장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일과리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지니고 있는 이다. 농사를 짓는 한편, 조그만 가게도 운영하고 있다.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하였고, 삼촌네 가게에서 일하면서 경북 중학교(야간)를 다녔다고 한다.

제보자는 사전 답사 때부터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번 일과리 학술조사에 대해 많은 호감을 보였다. 우리 설화반이 찾아갔을 때에도 역시 반갑게 맞았다.

제보자는 우리 학과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술조사의 취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들에게 쉬운 말로 자세히 말해 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그리고 중간 중간 유머를 섞어가며 재미있게 말해주어서 즐겁게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옆에서 할머니가 농담으로, 자기한테는 그런 재미난 얘기를 안 해 준다고 하며 질투 아닌 질투를 해서 모두 크게 웃기도 하였다. 할머니는 더운 날 수고한다며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주

는 자상함도 보여 주었다.

오후 5시쯤에는 마을 회관 뒤 나무 그늘에서 여러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찾아 갔는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다른 제보자를 찾아나설 공리를 하던 중 오인숙 할머니가 옛말을 잘 한다고 하여 그 덕을 찾아가게 되었다. 찾아가보니 오전에 찾아뵈었던 양병출 할머니의 며느리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인숙 할머니께서 감기 몸살로 병원에 갔다가 그제서야 막 돌아오신 뒤라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저녁에 찾아뵈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왔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난 후, 아침에 찾았던 문경옥 할머니택을 다시 찾아갔다. 그러나, 발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어서 저녁 식사 후에 마을 회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 사이 우리는 오인숙 할머니택에 가서 얘기를 들었다. 오인숙 할머니는 다 나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흔쾌히 얘기해주겠다고 하였다.

○ 오인숙(여·65세, 일과리 79번지) : 미리 저녁에 찾아뵈겠다고 말씀드려서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머리 속에서 미리 생각해 둔 듯 하였다. 우리들이 가자마자 여유있게 녹음할 준비가 되었는지까지 확인해가며 이야기를 술술 해 나갔다. 발음도 정확하고 우리가 이해를 못할 것 같은 단어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설명까지 덧붙이는 배려까지 보였다. 제보자는 현재 집에서 시어머니인 양병출 할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 주말에는 모슬포 교회에 빠짐 없이 나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우리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도 현재 다니고 있는 모슬포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하였다.

그 다음 우리는 마을회관으로 돌아왔다. 리사무소 2층에서는 민요반이 여러 할머니들을 모셔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문경옥 할머니도 여기에 동참해서 민요를 부르고 있었다. 민요반 조사가 끝난 다음에야 문경옥 할머니를 모시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나 제보자는 웃는 얼굴로 기꺼이 얘기해 주었다.

○ 문경옥(여·78세, 일과리 99번지) : 제보자는 매우 편안한 미소로 우리들을 대해주었으며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었다. 그런 얘기들은 대부분이 어렸을 때 언니들로부터 들은 것들이라고 한다. 제보자는 보통학교에 다녔으며, 젊은 시절에는 일본에도 다녀왔다고 한다. 일과리에서 태어나고, 결혼도 한 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일과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

제3일 (8월 3일)

전날까지의 조사가 일과1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과 2리로 조사를 나갔다. 우리는 먼저 노인회장택을 찾아갔다.

○ 문형옥(남·72세, 일과리 906-3) : 문형옥 할아버지는 현재 일과2리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일과리에서 살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 고담이나 우스개소리를 잘 하는 사람을 좀 소개받으려고 했으나, 좋은 정보를 얻지는 못하였다.

○ 이묘순(여·71세, 일과리 906-3) : 문형옥 할아버지의 부인으로, 우리가 조사하러 집으로 찾아갔을 때, 음료수 등을 내놓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노인회장택에서 자료를 별로 얻지 못하자, 우리는 일과2리 이장님을 찾아뵙기로 하였다. 도중에 일과2리에서 가장 고담을 잘 한다는 정달문 할아버지가 속칭 '반송이 동산 삼방놀이터'라는 곳에서 쉬고 있음을 알았다. 그곳으로 찾아가보니, 정달문 할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할아버지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달문 할아버지는 정작 말씀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대신 문상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었다.

○ 문상선(남·68세, 일과리 1654번지) : 제보자는 옷차림이 단정하였으며, 말도 차분하게 하는 이였다. 제보자는 소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으며, 계속 이 마을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어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장님한테 가서 들어 보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하지 않다가, 조사자의 설득에 못이겨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일과 2리 정달문 할아버지택을 찾아뵈었다. 그런데 할아버지택에서는 그냥 할아버지 살아오신 얘기 등을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했다.

○ 정달문(남·73세, 일과리 1806번지) : 할아버지는 현재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마을에서 계속 거주하였기 때문에 마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으며 마을에 대한 애착 또한 대단한 것 같았다.

일과2리에서 돌아온 뒤 조사자는 문공진 할아버지를 찾아뵈었다. 또 강정식선생님, 현승환 선생님은 문태언 할아버지택으로 가서 우리가 조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 문공진(남·73세, 일과리 11번지) : 문공학 할아버지의 동생되는 이로, 집안

사정으로 6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비록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으나, 말솜씨는 매우 뛰어났다.

2. 자 료

1) 오찰방(1)

제 보 자 : 문태언(남·80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1일

조사장소 : 문태언 할아버지 댁(일과리 152번지)

요약 : 오찰방이 양쪽에 날개가 있어서, 산방산을 남신 신어서 뛰어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찰방 누이가 오찰방보다 더 힘이 세었다고 하는데, 찰방 어머니가 그 누이를 배었을 때에는 딸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는 소를 일곱 마리나 잡아 먹었는데, 찰방을 가졌을 때는 소를 두 마린가를 잡아 먹었다. 島에서 청해서 찰방 누이와 찰방이 씨름을 했는데, 찰방이 졌다고 한다.

아, 인제 화순(和順) 오씨(吳氏)라는데 화순 오씨라는데, 그게 아마 예 우리에는 아마 혼 7대조(七代祖) 시절인 모양이야. 그래서 아주 명생(名聲)이 노파가지고서 그 오찰방이라 혼 이가. 춤 이제 산방을¹⁾ 남신(나막신) 신어 가지고서 남쪽에서 ‘픽’ 흥면은 북쪽드레 넘어가고, 북쪽에서는 남쪽드레 넘어오랴고 혼는 이런 그 전설이 잇섯던 거여.

(조사자 : 뛰어넘엉.....)

예.

(조사자 : 바람²⁾ 올라간 게 아니고예?)

예. 예 튀엇는다. 마 전설에다가 예 ‘날게기(날개)가 이제 양쪽에 이서났다’ 그러니 ‘그 산방을 그렇게 이제 뛰어가고 뛰어오고 했지, 날게기가 어스면 아니된 거다’

1) 산방 : 山房山.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덕수리, 화순리 경계 지점에 위치한 종형의 산. 표고 395m



오찰방 무덤

이러면 '놀게기가 이서났다.' 그런 그 전설이 그 이제 있는데.

(조사자 : 아- 아-)

(조사자 : 그 사람 그 힘이 세엇다든가 허는 말은 어수과?)

그러니까니 그

철방보다는 철방누이가 더 세엇다고 헌 말이 잇서. 에 아마도 철방 아방이 아마도 그 누이를 벨라고 할 적에는, 아마 철방, 그 어명을 소로 뭐 멧 머리나 잡앙 맥엇 더니마는 아마 하필 딸이 난 직(卽) 오라방(오라버니)보다는 더 세엇다고 허는 그런 그 말이 전설이 잇서.

(조사자 : 아니 게난 거 아들 날 때는 췌(牛) 아니 잡앙 맥연마췌?)

아들 날 적에는 췌 뭐 두 머리가 잡앙 맥이고, 딸 날 적엔, 딸 이제 춤 나지카브덴 생각도 안 행, 그때는 뭐 췌를 일굽 머리나 잡앙 먹이니까니, 그렇게 딸이, 하필 난 건 보니 딸이 낫는다, 오라방보단 더 세엇다고 그런 그 전설이 잇는다.

(조사자 : 그 딸이 췌 지는 어떻 헨 알아신고마췌? 힘이 췌 건?)

에 약 이제 도중(島中)에서 칭해서 그 씨름을 씨름을 부찌본 모양이라. 그러나 오라방이 졌다고……. 그런 전설이 잇는데.

(조사자 : 오찰방하고 뭐 다른 마을 힘센 사람들하고 해네, 뭐 영 누게 힘센지 겨뤄보지도 안 했고마췌?)

그것은 모르고. 그러고 그러나 그것도 에 어떤 확실한 것을 써서 이제 뇌둔 거 민 후지마는, 그 늙은 어른덜이 그 이제 느려오면서 전설을 그 헌 거 들음뿐이랴겠

2) 바람 : 절벽을 타고.

지. 거 또 뭐 어떤 이제 기록된 것이 이제 없어요. 마을의 어떤 일 곱으면 기록된 것도 이섯지마는, 그런 것은 안 했지.

2) 막산이와 정훈두

제 보 자 : 문태언(남·80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1일

조사장소 : 문태언 할아버지 댁(일파리 152번지)

요약 :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한국전체에서 가장 힘이 센 막산이라는 감산리 강별장네 종이 있었다. 강별장 소유의 군산 오른쪽의 논이 비가 많이 와서 냇물이 불어 그 논이 그만 망가져버렸다. 그래서 강별장은 막산이보고 논을 수리하기 위해 60명의 일꾼을 빌어오라고 했다. 그런데 막산이는 일꾼을 다 빌었다고 하고는, 그 60명이 먹을 밥을 혼자서 다 먹어 버렸다. 강별장이 집에서 그 논을 보니까 먼지가 부엌에 끼어서 사람을 알아 볼 수도 없을 정도였다. 날이 저물어서 막산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일을 다 끝냈다고 했다. 강별장은 이제까지 막산이를 굶주리고 키웠다고 생각해서 종 문서를 내주고 어디든 가서 먹어 살라고 한다. 그래서 막산이는 막산이 구석이라고 하는 굴에서 살았는데 너무나 배가 컸기 때문에 나라의 말을 다 잡아먹고 소를 다 잡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막산이를 잡을 사람을 찾았는데, 일반 여론이 정훈두밖에 막산이를 잡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해서 정훈두보고 부탁을 했다. 정훈두는 술 한 허벅하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주고 50~100명은 같이 가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낙을 하고는 막산이가 사는 굴로 찾아갔다. 막산이 형님과 같이 살려고 왔다고 하며 가져간 술과 고기를 취하도록 먹게 한다. 막산이가 취한 틈을 타서 삼사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어 막산이를 잡아서 옥중에 가두어두었다. 그런데 막산이는 옥을 툇고 다시 나와 밤에 정훈두를 찾아가는데, 이미 정훈두는 막산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총배?를 준비해 두었다가 막산이 목을 베어서 돌 위에 달아매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정훈두는 그 때에 훈두 벼슬을 나라에서 받게 된 것이다.

(조사자 : 사계 쪽에 무신 더 뭐 힘센 사람 이서낫젠 행계 그런 말은 모르십니까? 정훈두니 뭐니…….)

아 세계는³⁾ 그저 정훈두란⁴⁾ 사람이 아주 힘이 세어가지고서, 정훈두가, 막산이

3) 세계 :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4) 정훈두 : 鄭訓導. 흔히 정운두로 알려졌다.

란 사름이 제일 썰었는다. 제주도뿐이 아니라 좀 한국 전체도 막산이란 사름이 제일 썰었는다. 막산이란 사름이 예 남의 집이, 힘이 그렇게 썩권뵈 남의 집의 더부살이 그 종으로 살았서요. 저 강별장내⁵⁾ 집이라고 해서 아 이제 그 사는데. 그래서 혼 번은 강별장이 아주 그 아주 세력이 강하고 그러다가 역적 해가지고 죽긴 했지. 했는다. 돈만 알고 해서 .

(조사자 : 계민 그 강별장은 창곤내⁶⁾ 강별장이라마쑈? 감산리가 아니고?)⁷⁾

예. 감산리 감산리.

(조사자 : 감산리주.)

감산리 강별장이라는…….

(조사자 : 감산리주양?)

예. 저 거시기 군산오름⁸⁾ 저 군산 옆(옆)에다가 아마 그 강별장내 논이 잇섯던 모냥이라. 아주 비가 많이 오라가지고 넷물이 터져서 그 논이 그만 막 께지뵈 분 모냥이라. 이랬는다 강별장이 이녁집의 사는 도살이보고 막산이 보고,

“사람을 60명만 빌어오라.”고, 이제 저 논을 수리해야겠다곤 하나네, 경חק구먼.

아 이제 뒷날 아적은 아 저 아싯날,

“다 빌언디야?”

허난,

“예, 빌어수다.”

뒷날 아적은,

“그 놈들 강 다 돌아오라.”고.

“이제 조반 맥여야지 이제 일할 것이 아니냐.”

하니깐,

-
- 5) 강별장 :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에서 巨富로 살았다는 인물로, 그와 관련된 전승이 아직도 활발히 구전된다.
 - 6)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에서 감산리를 경유하여 화순리 '황개창'을 통하여 바다로 흐르는 내.
 - 7)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은 감산리의 이웃 마을인 창천리에도 동시대에 巨富로 살았다는 강별장이 있다. 역시 그와 관련된 전승이 구전되고 있다. 두 강별장의 盛衰에 대한 이야기가 한 유형으로 전해진다.
 - 8) 군산오름 : 軍山,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감산리, 대평리 경계에 자리한 산이다. 문헌에 따라 君山, 瑞山이라 하기도 한다. 비양도와 더불어 유사시대 화산활동 기록을 가지고 있는 측화산이다. 옛 이름은 굴메오름이다.

“계난 60명 빌라 하니까 60명 그 저 조반은 다 허여수과?”

“다 헨 이제 거러 놓고 잇었다”

고 말이야.

“그거 이래 줍서.”

내가 먹쿠덴. 60명 밥을 자기가 다 먹었서. 다 먹어가지고, 이젠 집안 가라죽⁹⁾을 하라고 하젠 나 간 안 갈아주고 해연.

보니 집에서 보니까니, 군산이 가좌노니까니(가까우니) 그 부근에다가 공중으로 다가 소래기 늑는 것이 바로 빈중헌단 말이야. 구둑(흙먼지)이 부영 하고.

하 영 먼 디서 보니까니, 당추 그 즈꿏더레(가까이에) 원 가지도 못 하고, 사람도 못 보고 그자 부영케 해가지고 헨 디.

허 이젠 즈물어(저물어)가니 왔어. 왔는디,

“어떻게 댜나?”

“다 해수다.”

이제 모시겏다곤 하는데, 60명짜리 밥을 다 60명 먹을 밥을 다 먹어서 그러니까니, 약 이제 ‘굶주리고 질뵈겏다(길러겏다)’고, ‘이제 종 문서(文書) 내 쥐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대로 그 먹영 살라고 해야지 안 뵈겏다’고 해서, 강벨장 그 처(妻) 보고, 좁쌀을 혼 술만 해가지고서 백사서(뽕아서) 술오메길(술오메기를)¹⁰⁾ 허라고 말 이야. 그 일 강(갓다가) 움을허면은(오면은) 배고플테니까니 소소한 밥으로는 택이 안 맞겏다고 말이야.

60명 밥을 혼 번에 아잔 다 먹었으니까니 혼다곤 이젠. 아 이제 술오메길 헨 이젠,

“니 오늘 저 오늘 간 뵈 무슨 썩고(수고하고) 잇서서 그러니까니 그 저 오메기를 술오메길 이젠 뇌뒤서 그러니 이제 저겔 먹으라.”고.

“경 험주.”

헨, 그자 하나 행 움막 들러먹고, 하나 행 들러먹고 혼 슴 칠(한 술) 다 먹었어. 이젠 종문세 내주고,

“느 이제 어디 가지기론 냥 가가지고 먹어살라.”고.

19) 가라죽 : 가래. ‘갈래죽’, ‘가래’. 흙을 파서 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나무로 만든 삽.

10) 오메기술 : 제주 전통 술.

日果里 學術調査報告

어디 누가 그렇게 배 큰 사람 질들 사람 질들 디가 어디 있는가 말이여. 그러니
까니 저 원이라고¹¹⁾ 하는 디.

(조사자 : 예.)

원, 원이 원이라고 하는 디가 어째서 원이라고 하는디까니, 예 관원 원 켜(員字)
디, 제주시와 대정고을이 잇섯어.¹²⁾ 그 고을 출입을 하면서 갈 적 을 적 그디가,
대정 고을서 거기, 제주시하고 그 중심지라.

(조사자 : 예)

쉬기 따새 거길 원임이 쉬었다고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디라. 원이, 그 저 또
느려오다가 약 이제 원물이라고 하는 디, 그 물을 먹어나니까니, 관원이 먹어나니
까 그 걸 보고 원물이라고 혼 거고. 그 관원 원쎄.

(조사자 : 예)

이렇게 해서 거길, 막산이구석이라곤¹³⁾ 혼 디가 이서. 막산이가 그디 살으면서,
그디 국마(國馬)를 다 잡아 먹어부려. 배가 커 노니까니 먹을 거는 굴아 국마를 다
잡아 먹고 그 소를 다 잡아 먹고 아 이래 가니까 이젠 아 나라에서,

“이 막산이 잠을 사람이 어디 잇느냐?”

고 말이여.

(조사자 : 예.)

막산이. 그축(그렇게) 하니, 일반 여론이,

“새계리 그 저 정훈두베끼는 잠을 사람이 어슬겁니다.”

고 이러니, 정훈두보고 불러다놔서,

“막산일 잡아달라.”

이러니까니,

11) 원 : 북제주군 예월읍 남읍리 원동. 이곳에는 제주목과 대정현을 오가는 관리들이 묵어 가던
원이 있었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원동이라 하였다. 4·3사건 당시 희생자가 많아, 폐동되고
말았다.

12) 과거 제주도는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으로 삼분 통치되었다. 사람들은 제주목을 '목안, 성안'
이라 하고, 대정현을 '대정고을', 정의현을 '정의고을'로 불렀다.

13) 막산이구석 : 서부산업도로 원동 입구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제주시쪽으로 30여 m 떨어진
곳(중앙 분리대가 시작되는 곳은 주변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일
대를 '막산이구석'이라고 한다. 막산이는 제주목과 대정현을 통행로인 이 일대에서 살았었다
고 한다.

“그러면 술이나 혼 허벅만허고,14) 약 이제 돼야지(돼지)나 혼 머리 잠양주면 내가서 어떤 수단을 썼든지가니 하고, 내 7찌 사람을 약 이제 한 50명 100명은 같이 가야합니다.”고, “그 이제 삼 스방으로 복병(伏兵)을 해야 잡지 그렇지 않으면 잡질 못 합니다.”고.

“아 그거야 문제가 있느냐?”고.

아 이제 술 혼 허벅허고 돼야지 혼 머리 잡고 해 아정 지어가지고, 그 막산이 구석 굴이 있서. 굴러레 들어가 가니까니, 막산이가 있다가 아 나대를15) 들르고,

“너 이 놈 나를 죽일라곤 했지?”

이러니까니,

“아이고 무사 내가 죽일 턱이 이수과?” 허고, “형을 내가 이제 나고 이제 살 질 못 해노니까니 내즈차부니, 살 질 못 해노나네 형님과 7찌 살라곤 해 가지고 이제 와수다.”고.

“그러나 형님신디 오면서 드릴 건 없고, 약 이제 에 이거나 이저 가전 와수다.”
곤 허난,

“거 비우라.”고.

그래서 뭐 술 좋은 소주 낸 영 사발로 드러(계속) 비우고, 도야지 레기 드러 썰면서 다 먹고 해가니, 술이 막 먹어가니, 건중(거의) 취해가지고서 몸이 지우러져 간댄 말야.

계난 이제 이전 베깃더레 탁 연락을 하니까니, 아 이제 삼스방서 모다 들어가지고 그 막산이 그만 그 때 잡앗댄 말이며. 잡아서 하니 이제 옥중에 큰 칼이라고 있서. 여기 저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민, 낭 널짝 해가지고서 이 야가기만 내물기고해서(내밀어서)(목에 양손으로 칼 씌우는 시늉하며) 큰 칼을 탁 이제 씌와가지고 옥중에 갇혔댄 말이며. 그까짓 막산이 힘으로야 옥중에 그까짓 게 필요가 있는 거냐, 그게. 이제 그 옥을 튼어가지고 나와서, ‘이 정훈두가 나를 이제 잡앗다’ 해 가지고 이제, 큰 칼 벗진 못 해가지고 해노니, 큰 칼 쓴 낭 막산이가, 춤 저 정훈두가

14) 허벅 : 물을 길어 담고 등짐으로 지어 나르는 동이다. 전체적으로 둥그런 형태이나, 병목은 매우 좁게 만들었다.

15) 나대 : 나뭇가지를 쳐내거나 크지 않은 나무를 자르는 데 쓰는 도구이다. 무쇠를 재료로 삼으며, 한손으로 잡고도 쉽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만든다.

밤이 누워시니까니, 으레 정훈두가 이제 생각하건대, 막산이가 올 걸로 생각해서, 그날 저녁에 밤에 총배를16) 아주 잘 준비 했다. 그러니 오라 가지고서, 창문을 오라서, 이 놈이 아 이제 휘휘 돌르면서 이제 해 가니까니, 아 이제 정훈두가 총배를 잘 행 놔뒀다가, 이제는 그 모가질 이렇게 양 착을 내미니까(내미니까) 확 비와가지고서(배어서) 들 위래 딱 돌아땀단말여. 돌아매뒀 가가지고 다시 정훈두 이제 나오니까 다신,

“잡아수게.”

그래서 그 이제 막산이 그때 죽었서. 막산인 죽고 정훈두는 춤 그때에 훈두(訓導) 배슬을 약 이제 그 나라에서 준 거여. 그 사람도 게서 후(後) 없이 죽었서.

(조사자 : 어- 정훈두가 후 어서나수과?)

예, 후가 없어.

(조사자 : 막산인 후(後)가?)

먹산이도 후가 없고.

(조사자 : 이디 누게 막산이 손지엔 현 분네가 살았던허명…….)

거짓말이여! 어디…….

(조사자 : 글세 말이우다예.)

3) 정훈두(1)

제 보 자 : 문태언(남·80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1일

조사장소 : 문태언 할아버지 덕(일과리 152번지)

요약 : 정훈두가 학질병에 걸려서 속이 좋지 않던 중에 사계에서 자리를 잡아서 오는 사람들을 보고 자리를 조금 얻어 먹으려고 했다. 그런데 배의 사람들은 학질병 걸린 사람에게 자리를 주면은 재수가 없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주지를 안 했다고 한다. 정훈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화가 난 정훈두는 사람들이 모두 육지로 올라온 사이에 바다로 가서 배 들을 모두 '숨복이왓'이라고 하는 밭에 모두 올려놓아 버렸

16) 총배 : 말총으로 만든 질긴 밧줄.

다. 다음 날 이것을 본 배의 주인들이 정훈두 짓임을 알고 정훈두에게 가서 배를 내려 주면 자리를 떠서 드리겠다고 사정을 하니까, 그 때야 정훈두가 배들을 내려 주었다고 한다.

후(後)가 영 어서버리고, 아 정훈두도 아마 세난(힘이 셋던) 모양이여(모양이여). 아마 이 철에 예, 옛날은 학질병이라곤 해가지고서 또 여름에, 또 이 철에 잘 나졌다는데(잘 걸렸다고 하는데), 흐룬(하루는) 아프고 흐룬 안 야프는(아프는) 그 병이 있섯서.

학질병 걸려가지고 해노니, 예 이제는 막 속도 아프꼭 허니까니, 자리(주석:자리뚝)를 새계(주석: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서 가서 막 떼(떠서) 오라시니까니(오니까), 예 좀 자리나 빌어먹을라곤 느려가니까니, 학질병 걸려난 사름 주물려면 은(주면) 머정 벗어져가지고(?) 배의 사람이 자리를 못 뜬다는 거라. 허고, 누구든지 아이(아니) 찻어요.

아이 주니까니, 이제는 집이 ㄱ딱ㄱ딱 오랏서. 이젠 자리 뜨는 사름들은 맨딱(모두) 풀아두고(팔고), 이제 맨딱 물 들거니 올라 오라부렀어. 올라 오라부니까니, 이젠 정훈두가 느려가지고서, 배를 옆동에 ‘혹혹’ 치우면서 바당드레(바다에) 툽툽 띄와, 좀 저 숨복이왓17)더래, 바다엿 걸 숨복이왓드레, 옆동에 쫘해서 다 이제 높은 밧드레 다 올려놔부렀어.

뒷날 아적은 자리 뜨레 갈려고 허니까니, 뭐 배가 뭐 바당에 물이 이서야지, 뭐 뭐 갈 수가 있나. 마른(마른) 밧치어노니까니(밭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는, 아 이제 예 이 그 정훈두 재간(才幹)이라고 그래서, 가네 소정하고(사정하고), ‘이제 배를 느라주면 우리 오늘 자리 떠다그네 잘 드리곡 허쿠덴.’ 허난,

“경허라구.”

오랑(와서) 이제, 옆동에 ‘혹혹’ 그자, 바당물러래(바다물에) 그자 배를 툽툽 띄와가지고 옆동에 치와노니까(치우니까), 이제, 자리 뜨레 갔다고 허는 그런 그 전설이 있단 말이여.

(조사자 : 그 정훈두는 묘가 어서마썸?)

아, 묘 이수다.

17) 숨복이왓 : 지명

(조사자 : 어
디 이수과?)

저 스북쪽에
흔 이제 가스
름 밧 섯뿔야
지 안은 디 이
수다.

(조사자 : 비
석도 잇고양?)

비석은 없어
요.



그것이 옛날
부터 거 정훈두 묘라곤 해 가지고 허는디,

정훈도 무덤

(조사자 : 완전 골충 뿔어브리신게마씀?)

완전히 골충뿔쥌.

(조사자 : 아 그 뭐 우리 가도 못 찾으쿠다양?)

에 비석을 아이 세우면 못 좃지. 비석 아이 저 안 사람은 허거니와.

(조사자 : 어르신네 알아지쿠과?)

아, 우린 알쥌.

4) 정훈두(2)

제 보 자 : 문공학(남·77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2일

조사장소 : 문공학 할아버지 댁(일파리 27번지)

요약 : 정훈두가 매우 가난하게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는 사계리 포구에 내
려갔다. 어부들에게 자리를 좀 팔아달라고 했는데, 그 어부들이 재수가 없다고 하며 팔
아주지를 않자, 힘이 센 정훈두는 그날 밤에 그 어부들의 배들을 모두 숨복이 밧으로
올려놔 버렸다. 뒷날, 일 나가려던 어부들이 이것을 보고 정훈두 할아버지 짓임을 알고

가서 사정을 하였다. 배들을 내려주면 자리를 많이 드리겠다고 하는 어부들의 사정을 못 이기는 척 하며 받아들이고, 연줄 당기듯 쉽게 배들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얘기.

그런 정훈두의 산이 유명한 것은 학질병에 걸린 사람이 그 산에 와서 한 두 시간만 자면 그 병이 낫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사자 : 정훈두 얘기 아시면 좀 해줍서.)

그럼, 이 정훈두는 어떤 사람이나? 아주 막 가난해서, 그 촌 남의 집의 뭐 일이 나 허고, 뒷해서 얻어먹는 사름인데, 저 사계리 산방 앞의, 그 지금도 사계리는, 이제 모술포에는, 저 가파도 마라도에 자리, 자리 알지?

5) 지명유래(1) 日果里

제 보 자 : 문공학(남·77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2일

조사장소 : 문공학 할아버지 댁(일과리 27번지)

요약 : 일과리가 처음에는 '日課'였으나, 일과리는 해가 떠서 10시 쯤 되어야 보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해가 뜬 것이 등그렇게 보이는 것이 과실 같다고 해서 '날외' 즉 '日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날외라고 혼 것이 그 이제 일과 아니라게?

(조사자 : 예.)

날 일(日) 자 허고, 이 과실 과(果) 자거든. 켜디 처음에는, 과실 과 쟤가 아니고 날 일 쟤는 맞은디, 이견 해를 말하는 거니까, 켜디 이 말쑤 언 변(言邊)이, 말쑤 언 변의 과실 과(果) 쟤이? 과라고 쓰면, 과, 과장이니 뭐이니 혼 과(課) 자 있지 않혀?

(조사자 : 예.)

그걸 써났다고 햏여. 처음에는. 응, 그러다가 '이것이 아니다'. 왜 그러면 날외라고 했느냐 햏니까, 요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주만, 여기 언제든지 아침에 보면은 알 아요 여기는 저 저쪽에 가면, 일출봉이라고, 일출봉은 해뜨는 것이 제일 먼저 보인다고 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일출봉 일출봉' 햏는다. 여기는 해가 떠서 한 10시 쯤 쟤야 보이거든. 제일 침은 그때야, 그때 해가 등그러니 오니까 '과실 같다'. 등

그러니 올라오니까 과실 굴으다헨 해서, 날외라고 하여서 일름을 지왔다 이거지. 그래서 에 옷날외, 알날외가 있어요. 옷날외는 지금 신평리, 신평리는 옷날외라고 하고, 알날외는 동일리, 일과리, 일과2리.

(조사자 : 옛날에는 그게 다 하나연마썸?)

신평도 우리 부락이났주게. 게 신평도 지금으로부터 한 100 한 70년 전에 독립이 났 거고, 이 동일리는 102년뻗기 안 났연. 그래서 옷날외, 알날외. 그래서 일과리는 이 미군방(未坤方), 이 서쪽이 미군방이 허(虛)하다고 해서, 저 서국민학교래 울로 가가민, 저 지금은 것이 없어. 높은 게 한 10m 이 돌을 싸서. 돌을 싸. 돌 우에. 그 저 돌하르방식으로 사름을 그 돌로 맨들아서 여기 모자를 씌와서. 갓이라고 이? 그것은 그 저 미군방이 허하니까 그 방법으로 쌓았다 이거라.

(조사자 : 미군방이 허하니까마썸?)

어. 저 방향이 허하다이거지. 서쪽 방향이. 일과리 이 이렇게 뚱그런헨 지형인데, 이 저쪽이 터져부렀다 이거야. 터져부러. 겐 전체가 뚱그렁헨민 뚱그렁해볼어야 돼는데, 전부 뚱그렁해 오다가, 저 서쪽 방향으로 터져부렀다. 게민 여기를 막을 방법은 없고. 건 천연적으로 뚱거난. 게 여긴 방법으로 한 10m 돌을 짝하게 싸아서 위에 모자 씌운 돌을 해서 세와 났주게. 중간까지도 경해와서. 그게 한 그러니까 4·3사건이 일어나서 이 저 반들해서 축성(築城), 축성을 쌓(쌓을) 때 그걸 또 뭉라버린(무너뜨려버린) 거지. 이 돌이 많으니까.

6) 지명유래(2) 가시봉

제 보 자 : 문공학(남·77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2일

조사장소 : 문공학 할아버지 댁(일과리 27번지)

요약 : 원래는 모실봉과 가시봉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남자인 모실봉이 여자인 가시봉을 안올려고 하니까, 가시봉이 안 된다고 하며 뒤돌아앉아버렸다고 한다.

또 한 가지는 책에는 안나왔지만은, 이 이쪽 사람이 말하는 모실봉하고 가시봉 봉인데, 모실봉은 남자형이고 이 가시봉은 이 여자형이라 이거라. 여자형인데, 에

그 가시봉이 여자고, 모실봉이 남잔데, 이렇게 에 아주 이렇게 쳐다보다가, 모실봉이 이렇게 안을라고 하니까, 가시봉이 여자니까,

“안 돼.”

하면서 돌아앉아부렀다 이 거라. 돌아앉았는데, 근데 이 가시봉이 새끼오름이란 게 있어요. 서쪽이 가민, 이제 그 수원지 담고 한 디라. 오름이 이쪽으로 하나지만, 저쪽으로 2개로 보여. 켜디 그 여자가 여자상이니까, 이렇게 마주앉아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안을라고 하니까,

“안 돼, 안 돼.”

돌아앉아부렀다고 . 이렇게 해서 저것이 그 가시봉. 그런 예가 있고.

7) 공든 탑이 무너지랴

제 보 자 : 오인숙(여·66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2일

조사장소 : 오인숙 할머니댁(일과리 79번지)

요약 : 옛날 어떤 청년이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데, 해가 다 저물고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할까 망설이던 중에 큰 못에서 빨래를 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한 숨을 놓는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오늘 하루 밤만 재워주라고 여러 번 계속 되물어도 그 청년을 한번 보고는 아무 말도 않고 빨래만 계속 하였다. 그래서 청년은 그 여인이 병어리인 줄 알고 빨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날은 춥고 빨래는 끝나지 않고 해서, 바람을 의지하려고 돌을 계속 쌓다 보니까 자기 키 높이만큼 쌓아올리게 되었다. 그럴 즈음, 그 여인이 빨래를 다 하고 청년을 힐끔 쳐다보며 집에 가려고 하니까 청년 역시 그녀를 뒤쫓아갔다. 따라가다 보니까 간 곳은 숲이 창창한 산중에 자그마한 집에 이르렀다. 청년은 그 여자가 이부자리를 깔아주는대로 누웠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잠에서 뚝뚝 깨어보니 가슴에 뱀이 사리져서 있어 깜짝 놀라 그 뱀을 던져두고 그 집에서 뛰쳐 나왔다. 뱀도 뒤따라 오고 계속 가다보니까 자기가 탑 쌓아두었던 곳까지 이르게되었다. 그런데 바로 뒤로 따라오던 뱀이 그 탑을 도니까 많이 멀어졌다. 그 청년도 그 탑을 들고 뱀도 같이 돌아 보니까 어느새 날이 밝았다. 그러자 뱀은 자기가 왔던 길로 도망갔다고 한다.

옛날에이, 어떠한 청년이 과거시험을 보러(보러) 떠났서. 떠난다. 옛날엔, 전대, 영 행(이렇게 해서)(허리를 두르는 흉내를 하며) 걸머징 잇당(허리에 걸어 매어

다가, 걸머정, 이디(허리를 가리키며) 짚신도 돌아메고이. 경해네, 혼 짐을 저네, 그디 옛날은 차가 엇영, 걸영을(걸어서) 땡것다(다녔다고) 혼다. 이제 큰 길에 가는 길에, 해가 이제 다 저물아서, 해가 다 저무난, 이젠 촘 쳇 질이고(처음 가는 길이고) 해노난, 길을 몰르고, '어쩌민(어쩌면) 좋고.' 해연 망설이단 중에, 드박드박 가는다, 큰 못이 하나 나타났서.

큰 못이 나타나난, '웁지 이젠 이제 인간철 동겼구나(이젠 살았구나). 이젠 아무 집이라도 가민(가면) 이 저녁(저녁), 이제 촘 하루 저녁(하루 저녁) 이제 자고 갈 수가 있구나.' 행, 아니 그 못을 가나네, 막 반가와네, 못 에업에(못 주위에) 영(이렇게) 사젠흐는(서려고 하는) 찰나에, 어떻 혼 여인이 젊은 여인이, 옛날은 그 낭으로 저 동구채(?), 이제 다라(대야) 이제, 다라추룩(대야처럼) 낭으로 큰 나무로 파그네, 팻주게. 다라만인 파네. 그 나무 도구리(합지박)에다가 빨래 잉어네 못딜 딱 들어오라서. 들어오난 이제 그 과거보래 가는 청년은 흐는 말이,

"아주머니, 이제 해도 저물고, 이 빨래 행 갈 때라그네(때는), 날 흥끔(조금) 이 저녁 밤자릴 재와줍서."허난,

그 여자가 허는 말이, 영 배려네 줌춤 행 빨래만 흥곡(한 번 보고는 아무 말도 않고 빨래만 하고), 이젠 갱(그래서) 못 들어서카부덴(들었을까봐) 이제, 또 재쳐(재차) 이제,

"아주머니 이제 해가 다 저물아부난(저무니까), 나 이 빨래 행 갈 때랑 ㅁ치(같이) 가크메(가겠으니) 날 이 저녁 재와줍서."

해도, 또시(또) 영 배령 줌춤 행, 영 빨래만 허곡 흥난, '아이고, 이 아주머니 귀 막 아신가?' 해여네, 이제 세 번첸(세 번째는) 흥쌔(조금) 더 크게 간 굴으나네(말하니까), 경해도 윈 배령 그자 그자 빨래만 해여. 허나네 게민 말모르기(병어리)로 이녁은(자기 스스로는) 이젠 알앙. 알앙, '이 사름은 말이 몰르구나. 경허나체나(어쨌든) 날랑 이 사름을 이 저녁 쫓아야 나가 이제 이 저녁은 살 수가 있다.' 흥연, 저만은 이젠 못이고, 이젠 요만은 앓은디(앓았는데)(손으로 대충 못과 그 청년이 앓은 곳과의 거리를 보여주시며), 이제 좀 바람(風)이 차가운 바람 날 때엔. 흥끔 겨울 깊은 저슬은 아니라도.

이젠 경 행 앓으나네(앓으니까) 막(매우) 추워. 이녁이(청년을 말하는 것임) 이제 앓으난 추우나네, 이젠 햇빛은 안 나고, 날은 어들어들 해가고 흥난, 이녁은 춥고

흐나네, 이 돌을 맞아네(가져서), 이젠 그 벼를 훑음 의지하젠 이젠, 혼 칸 지러기 기러기(길이) 놓고, 접담으로이, 이디 노민 이디 놓고 해네, 영 접담으로 성 싸듯(손으로 접치는 시늉을 하시며).

경 해네(그렇게 해서), 그걸 그자 앓앙 '톡톡' 하는 것이, 반은 하게(반 정도 할 정도) 싸도(쌓아도) 그 여자가 빨래가 끝 아이나(끝이 아니 났어). 날은 어둡고, '아 이고 이상하다.' 해연. 빨래는 하찮게(하찮게) 빨랜 가전 온디, 이젠 따시 잤자, 말은 이제 곧지(말하지) 아니하는 여자고 혼난, 이젠 또 앓앙, 어나네(추우니까) 그 이(청년)는 몸 풀기 위헌, 또 이제 그걸 앓앙 집어 다고(집어서 쌓고) 다고 하는 것이 답을 쓴디.

아 그 답을 막 씌(쌓아서) 영 사난(서니까), 이녁 키광 ㄱ정하고(자기 키와 같고), 그 여자도 빨랜 확 언창 확 잉언(빨래를 확 마무리하고 머리에 이었어). 확 언 창 확 담앙 확 잉언. 아 영영 배리멍, 이젠 막 앞사(앞서) 나가난(나가니까), 이제 이젠 그 이젠 청년도 그 전대 지구(지고), 이젠 막,

“아주머니 날 살려줍서, 살려줍서.”

흐멍 따라간디, 말을 안 하여. 도저히. 그자 배령 가곡 가곡 흥연, 그자 아 훑음 멧 메다(멧 미터) 그자 혼, 그자 아 혼 어시(별로) 멀지 안 흥연 가는다. 산(山) 중 낭(나무) 치랑치랑 혼 디(테) 산중으로 쑥 들어간. 쑥 들어가난, 아 어떻 행 여기 이상해 배여. 쑥 들어간 보난, 이제 초가집 이제 오두막집, 자그만한 집, 막 그자 아 담하게 곱게 지어진 집이 이서랜. 계난 아 그 집이 난간도 쪼끔 난 싯고(나 있고) 흐나네, 아 그 빨랜 난간드레 강 톱 놔뒀네, 남잘 배려랜게. 영 배리난 와시나 안 와시나 보는 거. 계난 이제 막 고맙수랜 이젠, 이녁만 곧곡 밍추곡(자기 혼자만 말하고 대답하고) 그 남잔.

고맙수랜, 나 와수랜 흐멍 해연, 이젠 문을 여난, ㄱ치(같이) 들어가나네 그 여자가 이젠 밧자리(옷목)에 이제 이불을 패와줘랜. 이불을 패와주난, '아, 이 사름은 말 모른 사름이로구나. 나가 이 저녁 이디서(여기서) 자질로구나(자지겠구나).' 흥연. 진(자기는) 또 안자리에 패우고 흥연. 꺾딱흔 여자라랜. 젊은 여자. 이젠 패와주난 늙긴 눈디. 서로가 통할 말을 안 ㄱ난, 그 여자도 늙구, 또 이녁도 배 고프고, 또 그 방만 빌려줘도 고마워배연, 이젠 눈디. 아 노시 좀(잠)을 안 들어랜(잠이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 신은 머리맛되(머리말에) 놓고, 전대도 머리맛되 놓고. 노시 좀

을 안 들었.

이상케 원, 느시(아무리 해도) 경 피곤하영 자실 건디(피곤해서 잤을 건데), 줌을 안 들었, 영 생각(생각)에 밤이 막 깊은 거 닳아배연. 경 흥단 보난 줌이 똑 와진거 닳아. 그건 하튼(하여튼) 줌을 들었지. 들었. 아니 문뜩 깨나니 가슴이 지각 엉크러 전. 지각 엉크러지난, 확 눈 떠네 손을 영, 이젠 엄득 헨, 이제 바작 가슴이 엉크러 지난, 엄득 허연 가슴 영 대난, 몽클락 행, 배려보난, 버염(뺨)이 딱 가슴에 사리정 이션. 계난 '딱' 줌아댕건. '픽' 댕겨된. 이젠 픽 댕기난 것이(픽 던지니까) 과작 일 어산. 흥난 이제 전대 안고, 신 안고, 막 이젠 뛰어 나완. 뛰어 나완 보난, 입이 이 만은 벌리고 어마흔(어머어마한) 배염인디. 물젠(물려고) 막 물어막젠 흥난, 이젠 '춤 나가 이제 죽을 딴 들어와졌구네.' 해네, 다른 딴(다른 데는) 가민(가면) 지리 몰르고, 와난 길을 캄캄 어두운디. 이젠 가단, 이젠 우선 신이나 신영으네 뛰젠, 가 단 영 돌아산 보난, 요만은 그자 혼 발좁은(한 발 정도) 바작 돌라온디(따라오니), 딱 아이고, 막 그자 꾸불꾸불 막 이녁을 미치젠 허난, 이녁은 신 신언(신어서), 그 자 막 돈는(달리는) 것이, 이녁 탑 썬 딜(자기가 탑 쌓은 데를) 오라전. 탑 썬 디 거자(거의) 오란 보난, 거자 다 미쳐완. 막 물젠만 대들었. 계난, 아이고 이젠 탑 썬 딜 오란, 확 그 탑을 고비 도나네, 배염이 막 멀리 떨어전. 고비 못 돈댄 뺨은…….

(조사자 : 예.)

가시가 꺾으질 못 하영.

(조사자 : 꺾으질 못 헌댄 예.)

'아이고' 겨난, 이젠 '나 이젠 살았구나.' 헨. 그 청년은, 영 혼 놀명 돌명(놀면서 돌면서), 배염도 놀명 ㄱ짜 돌곡(같이 돌고). 또 재기(빨리) 돌민, 흥끔 배염도 영 나강 재기 돌곡. 그디서 그자 그걸 막 돌단 보난, 오꼴(벌써) 날이 호지근히 붉안. 붉으난 또 이젠 이녁은 모음(마음) 폭 난. '이젠 뺨은, 난 이젠 못 잡아먹을꺼난, 난 이젠 살았구나' 해연. 이젠 또, 이젠 또 영 돌당, 영 보곡 영 보곡 흥민, 만날 돌앗 자 미치진 못 하고. 날은 흰 흥난, 그자 배염이, 막 와난 자리로 막 돌아부러랜(달 아나버렸다고 하더라). 계난 그 청년 흥는 말 흥는 말이, 이제 그 청년은, 계난 이젠 이녁 불 일, 붉으난 가네 환, 춤 재수 좋게 시험도 보고, 과거 시험도 보래 간 보고. 이제 그 청년 흥는 말이, '우리가 공 들면 이제 못 홀 일이 었댄.' '공든 답 무너지지 안 한다.' 옛날 말이 공을 들이라. 뭐든지. 공불(공부틀) 해도 공 들이민

되는 거고, 일을 해도 공 들이민 되는 거고, 믿어도 공 들이민 다 덕이 보는 거고. '공든 담 무너지지 안 혼다.' '공을 들입시다.' 경 행 목사님 설교 하는 동안에 한번 골아줘라게.

8)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

제 보 자 : 오인숙(여·65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2일

조사장소 : 오인숙 할머니대(일과리 79번지)

요약 : 옛날 어느 부자집에 없는 것이 없이 잘 사는 집이 있었는데, 늙어서야 아들 하나를 얻어서 받들다시피하며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거리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대감을 보고 인사를 하는데, 유독 한 거지만 그들을 보고 혀를 계속 찜다. 그래서 그 대감이 거지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 아무리 부자집이고 외아들인 것은 알지만, 이 아들을 멀리 2년 동안 귀양을 보내서 그동안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나지도 않으면 아들의 명이 길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들은 곧 죽는다고 거지가 말했다. 만약 아무리 못 해도 1년은 넘어야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결국 아들과 일년 동안 떨어져서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막 1년이 지난 후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잘 먹고 잘 길렀지만 크지를 앓고 살 찌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대감이 불일을 보러 갔다 오던 길에 임금 뒤를 이을 사람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았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자기 아들을 시험보게 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었다. 그런데, 시험 날, 대감이 그 시험장을 지나치다가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러 청년들이 하나같이 나귀를 타면 나귀가 끄짱도 안 하고 모두 불합격이되는 것을 보고, 문득 아들 생각이 나서 아들을 시험보게 하였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아들이 나귀에 타니까 나귀가 '휘잉' 하며 꼬리를 치며 일어선다. 합격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이것도 목사님 골아준 말. 저 대감집인데, 춤 엇인 것이 엇이 막 풍부하게 사는 집안인데. 아기가 엇어(없었어). 아기가 엇인디(없는데). 춤 만날 살았자(매일 살아도) 윈, 웃음 웃을 일은 엇어. 종도 뗏(뗏) 개 시꼭(있고). 이녁은 춤 대감이고 혼단, 늘 나뎡기고(나다니고) 혼단, 와도 웃을 일이 엇꼭(없고), 나가도 웃을 일이 엇꼭 하여. 혼디 마악 만승행(晩生하여서) 아길 하나 본다, 아들을 난.

아들을 난단 너무 너무 지꺼전(기빠서). 이젠 그 아길 춤, 옥이여 금이여 흥명

반양 질러온디(길러왔는데). 어느 덧 혼 술이(한 살이) 지나고, 두 술이 지나고, 세 술이 지난. 일곱 술이 되나네. 그 하르방이 혼 번은 오라네. 오란, 너무 너무 이녁 이 아까와. 아긴 커 가난 아기 졸레(아기 뒤로) 종 흥날 딱 돌란(종 한 명을 붙였어). 아기 가는 곳마다, 이 아길 말양 질르는(기르는), 또 종도 흥나 있고, 밥 흥는 사름도 있고. 귀흔 것이 엇인(없는) 집이난.

이제 이젠 오라네, 혼 번은 나가 돌양(데리고), 혼 번은 놀레가켄(놀러 간다고 했어). 해네, 아길 손 심어네(손 잡고), 춤 어두워가는다, 영 행 거리에 빙빙 드넨 흥나네(빙빙 도는데), 어멍 혼 거지가, 갓 쓰구이(갓 쓰고), 옛날은 패랭이 닳은 거행, 덩썩 쓴 거 시난. 갓 쓴 거지가 넘어가다네, 영 봐네,

“에이구 쫓쫓쫓쫓쫓. 쫓쫓쫓쫓.”

셀 가우려(혀를 찻어). 또 가다그네(또 가다가), 또 돌아서그네(돌아서서),

“에이구, 쫓쫓쫓쫓쫓.”

흥멍 셀 찍기 가우려. 그 애기 손 심영 가던 그 대감은, 아 우릴 나오난, 애기도 아 파왕(아기도 귀여워서), 몬딱(모두) 손 잡아 보고,

“놀래 나옴디강.”(놀러 오셨습니까)

절 ㄱ박ㄱ박 흥고, 다 인술(인사를) 받는다. 아 저 거지가, 왜 날 보난 저렇게 흥는 거넨 괴썩행 두 번 흥 때에, 괴썩행 초담흥(처음 애기 할) 땐 그자(그냥) 넘어들이고, 두 번째 해 가난 괴썩흥연. ‘요 거지를 불렁 혼 번 질문을 해야지.’ 흥는 차에, 또 시번째(세 번째) 또 돌아선,

“에이구, 쫓쫓쫓쫓쫓.”

또시(다시. 또) 경 막 새를 시번을(세번을) 짜난. 이젠 와보랜 해연. 아 오나네. 새 짜는 이유를 곱으랜. 뭇따른(뭇 때문에) 셀 잠던(혀를 차냐고). 이제. 우리가 어떻 흥넨 행 물으나네, 경해도 셀 ‘쫓쫓쫓쫓’ 짜난. 이제 막 다구천 곱으랜. 막 흥난, ‘아 곱긴 곱아주켄.’ ‘이제 곱아드라 흥민(말해주라고 하면) 곱긴 곱아주는다, 나 곱는 냥(내가 말하는 대로) 실천을 흥쿠켄’ 허나네(하겠냐고 하니까), ‘아 하튼 곱아보민 이제 들을 말도 있고, 안 들을 말도 이시난, 들어보켄.’ 흥난, ‘당신네 이 아길 옥이여 금이여 질르는 집안이엔. 다 알아점켄. 질르는 집안이다. 이 애기를 이제라그네 그만 질와그네(길러서), 이제 먼 딜(테)로 소멘 길을 모른 딜로, 이 아길 구양을 보 내면은, 이제 살아남으네 밍(命)을 잇왕(이어서), 내중엔 이녁이 좃양, 후제 아기도

잘 살꺼고, 이제 아길 심을꺼고, 이 아길 그냥 질르민 (덕이-) 춤 아기가 밍이 즐랑(짧아서) 죽으켤.’

확실히 딱 굴안 허난, ‘경 분명히 알아지크넨’ 허난, ‘아 틀림어서 알아지켤. 나 굴는 말만 꼭 들어줍센. 이 아길 심으켜건(구하러거든), 멘데도(면대도) 가지 말곡, 아주 소멘 길을 었은 디, 완전히 죽은 아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아명(아무리) 못 해도 2년을 살려야 홉디넨. 2년 안에 강 맨델 허나, 이제 드랄(데리고) 오나 허민, 꼭 죽읍니넨.’ 계난 ‘아이고, 계난 정말 계난 정말이넨. 따시 잘 생각해 보랜’ 허난, 또 시(또 다시) 이젠 영 행 잘 생각해봐도, 꼭 나 말 믿으랜. 1년 만춤이랑 민데도 하지 말곡, 하튼 소문도 듣지 말랜. 꼭 죽은 걸로만 취급허연, 갹 허연 막 보고프건 1년 넘거들랑으네 흑시나 돌아오랜. 경 허민, 그자 흑시나 밍은 멘해질꺼우랜. 쟈디 2년 막 살아시민, 막 그자, 밍이 막 장수홀꺼우랜.’

계난, ‘아이고 이젠 알앗잔’ 해네, 이젠 보내두고, 이젠 집이(집에) 돌아오민디 말민디 오란(돌아오는 건지 마는 건지). 이제 가족회윌 해연. 이걸 ㄱ싸(좀 전에), 영 정 영 정 해연 했는데, ‘어뎡 해서민 좋크닌.’(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허나네, 이젠 아기 어뎡도 울고, 또 종덜도(종들도) 울어지고. 이 아길 이제 보내민, 우리가 어뎡 샅나켤. 뫼ㄱ뫼(무엇같이. 애지중지) 이제ㄱ지 키와노난, 이젠 계도 밍을 질게 이녀 손에 심젠 허민 홀 수가 없어. 에 우리 어차피 이제라그네(이제는), 이젠 밍도 넓은 하르방이고 허나네, 이젠 막 방문도 허나네, 이젠 보낼 걸로 허연. 보내연 아기 이슬 집(아기가 있을 집)으로 보내연.

보내뫼, 울며불며 춤 살민디 말민디 허연, 겨우 1년을 동기난 우리 이제라그네 멘데 가그네 강 봐그네 데령오젠. 경 헨, 간 보난(가서 보니까), 아기가 거미 뫼연(되었어). 크긴 커도 이제 거미가 뫼연. 막 지천. 아기가 그드레기(?) 뫼연. 에 이제 랑 돌아가켤, 춤 밍 즈를 곁(명이 짧을 것을) 알아도. 이제랑 돌아가게 헨. 이제 간 데련오란.

춤 집의서(집에서) 아명(아무리) 질루곡, 잘 멕이고(잘 먹이고), 잘 해도 아이가 노시(절대로) 크지도 안 허고, 이젠 술지지도(살찌지도) 안 허고 허난. 아니 이젠 경 헨, 그만 집의서 잘봐가는다, 혼 번은 그 하르방이 어디가네, 이젠 춤 뫼(會)도 보고, 이젠 뫼 허연, 대감 하르방이난. 허연 오는 길인디. 이제 저 옛날, 임금 어디 사는, 영 혼 길로 넘어오는다엔. 쟈디 걸영 넘어오는 딘디. 몰(馬) 탄 오단 보나네,

질레에(길가에) 영 광고 썬 본 걸 보나네, 이제 그 임금이 늙으나네, 대청 나올, 이제 우리 ㄱ뜨민(같으면) 투표덜 흥명 뽑지 안 흥느냐게.

(조사자 : 예)

게난 그 대표 나올 이제 사름덜을, 이제 아무날로 이제 막 이제 시험을 아무 질레에서 밤시니까니, 키도 크곡, 술지기도 흥곡, 이제 곱기도 흥곡, 떼 불 데 었은 청년으로, 이제 몇 명을 이제 이 아무 카두(커브) 질로 모집흥민, 이제 뽑은다 흥나네, 시험을 본다 흥난. 이제 그 걸 봐네, 집이 오라네. 이제 이녁만 ㄱ만히 망술여서(망설여서). 망술연, 원 우리 아긴, 흥치 원 생각치도, 아들은(아들은) 못 흥고 해연. 그만 행 망술이는 중인디, 또 뒷날은 가오고, 또 뒷날도 이녁 출근홀 디, 출근 흥연.

흥 몇 일 선 오단 보나네, 그날 막 모아서 그 곳에. 그 장소에 모안신디(모여서 있는데), 주구망상흥¹⁸⁾ 나귀가 하나 매연 놓고. 매여전 잇고. 이제 막 청년들이 모아전(모여서), 흥는 말이, 그디서(그곳에서) 이제 그디서 이제 무신(무슨) 곱름(고름) 사름(사람)이 잇지 안 흥나, 등수 메길 사름이 합격 될 거 안 될 거 흥디. 톱 흥게 앓안 신디. 일음(이름)을 다 이제 올란 시나네(있으니까), 일름 불르명(부르면서), '아무가이(아무개) 나오라' 흥연 나오민, '이 나귀 타보라' 흥여. 아 이 나귀 강타민, 그 나귀가 음찍도 안 혀(움직이지 안 했어). 게민 그건 빠쿠. (조사자 : 웃음)

아 그건 밀려볼고. 또 아무 사름 오라 흥연, 또 타보라 해연. 타민 따시 빠쿠. 음찍도 안 흥여. 거 몇 십 명을 문딱(모두) 타 봐도, 나귀가 영 일어서질(일어서질) 안 흥여. ㄱ만히 원 영 일어서 살 가망성이 었어. 모두 비척비척(비실비실) 흥 놔덜만 오란 타노난. 아 그 대감 하르방이 ㄱ만 서 보난, 톱 이녁(자기) 아덜은 오민, 요 나귀 탐 직 흥여. 우리 아덜은 주구망상 흥 아들이난.

이제라그네 집이 가그네, 이제랑 데려오젠. 집이 간 데련 오라네, 이제 데련 오란. 아돌 이제 그레(그곳에) 일름 다 접수시키고 흥여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보랜 해서. 아 탁 올르거들랑(오르니까), 나귀가 코 '휘잉' 흥명, 그자 풀릴 치명 와들랭 일러사는거라. 와들랭 일러사난 '합격', '당선'.

이제 임금 알로 간. 겨난 이제 그 하르방이, 막 잠지(허벅지) 치명, 지꺼전 돌아오란, 데령오란 그 동녕바치(거지) 하르방이 안 굴아시민, 아들은 죽을 건디, 그 하

18) 주구망상흥 : 다 죽어가는 듯한

르방 덕택에 아들도 살리고, 좋은 자리도 직장 택하고 경 험 잘 살았젠 허명, ‘아기랑 낱권, 아명(아무리) 외아들 부재침이라도 반양 질르질 말아그네. 고생을 시키곡, 이제 춤 베울 꺼 배우곡, 고생을 난 딜로 이제 시키곡. 낯이랑(낯이랑) 질르거들랑, 한라산으로 출 빈(벤) 딜로(테로) 강으네(가서) 놓고, 경 해야 됩니다.’ 허연, 것도(그것도) 갱 목사님이이 경 행 한번 해줘라.

(위 두 이야기는 제주시가 본 고향인 모슬포 교회 목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라 한다. 목사는 책에서 본 이야기를 전해 준 것이라 했다 한다.)

9) 도깨비(1)

— 알고 보니, 소빨 하나와 깨진 그릇

제 보 자 : 오인숙(여·65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2일

조사장소 : 오인숙 할머니댁(일과리 79번지)

요약 : 옛날에 일과리 공동묘지에서 매일 도깨비가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한 할아버지가 그 도깨비를 잡아봐야겠다고 하면서, 새로 만든 촛뎡이와 말가죽으로 패랭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깨비가 나온다는 공동묘지로 갔다. 공동묘지에 숨어서 도깨비가 춤을 추며 오는 것을 보고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도깨비를 후리치니까 ‘살랑’한 소리가 나고 불이 흩어지면서 없어져버렸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막대기로 표시를 해 두고 다음 날 다시 찾아와보니까 소빨 하나와 흰 사발 깨진 것밖에 없었다고 한다.

(조사자 : 옛날에 도깨비불 같은 거 봤으네, 동네사람들 중에 그런 거 봤 놀랜 사람들 얘기 못 들어봐수과?)

저 옛날에이 우리가 이제 혼 일곱 술썰에(일곱 살 썰에) 기억난 것이, 일곱 술썰에 기억난 것이, 이제 이 디 비료창고여(손으로 예전에 있었던 부근을 가리키며). 이디 비료창곤디. 이것이 공동묘지 해났저. 저디 공동네 산 덜 막 묻어졌저.

(조사자 : 공동묘지마씨?)

웅 공동묘지이. 공동묘지. 공동묘지 뉘난디(되었었는데). 만날(매일) 이제 헛것이

나오고, 도채비(도깨비)가 나고 하나네, 이제 막 장수훈 하르방이 바로 이디 이 집 이 사난(손으로 대충 가리키며).

“내가 오늘은 저 도채빌 꼭 심영 봐야지.(잡아서 봐야지)”

“도채비 심어지쿠과?(잡을 수 있겠습니까?)”

허난, 내가 심어질 즈신 싯겐 행(잡을 자신이 있다고 해서), 이젠 츠쟁이(?)엔 혼 거, 새(띠) 이제 새. 밧디 나는 새이?

(조사자 : 예.)

그 새 익으면, 비영(베어서) 불앙(말려서) 이젠, 영 놀른다 놀러. 그런 거 이제 자그만이(조금) 여팬에(옆에) 이젠 특 전 특 시고(있고), 또 이젠 몰(馬) 이제, 몰 잡앙 먹어난 거, 옛날은 막 몰 잡아 먹곡, 쉼(소) 잡아먹곡 허난. 몰 잡아 먹어난 (잡아먹었던) 가족으로 잘 손 봐네. 이젠 저 패랭이 멘드란.(만들었어) 걸로(그것으로). 니네(너희들) 쉽게 알젠 허민(알려고 하면), 옛날은 건립이랏주마는. 그걸, 패랭이 멘드란, 이제 쓰고. 그 이제 새로 엮완 혼 거. 츠쟁이 츠쟁이, 일름이. 츠쟁이 헨 영 쓰고, 이젠 몽치 하나 얻고, 이젠 이제 공동묘지 트명애(구석애), 산 묘지 트명애 영 숨언 시난, 보난, 도채비가 오란 막 춤추당, 저래 돈곡, 돈곡 흥명, 영 숨언 보나네 오거든. 영 안 오질 안 흥연. 도채비가 오나네. 이젠 몽출러전(?) 퍼딱퍼딱 이젠, 영 행 막 춤추명 해 가나네. 노인이 이제 영 행, ‘요놈의 도채빌’ 확 후리나네 (내리치는 흥내 내며). 아, 파작 뛰민(뛰면), 또 절로(저곳으로) 가분덴 말이여(가버렸어). 파작 파작 파작 흥난. 또 울로(요곳으로) 간. ‘요놈의 도채빌’ 흥명 확 후리나네. 아, 살랑 해랜. 살랑 흥난. 거난(그러니까), 불이 그자 싸-악 빼여전(홀어졌어) 원 오곳 산산조각낭(산산조각나서) 딱(모두) 돌아부러랜(달아나버렸어). 아 게난 이젠, 아 뿔인고, ‘살랑’ 흥난 ‘이게 뭐신고(무엇인고)?’ 흥연. ‘이젠 붉으면(날이 밝으면) 꼭 왕(와서) 봐야지’ 행. 그디 몽둥이 찢러 된. 표시행 찢러된, 님(누워서) 자 단(자다가) 붉으면(밝으니까), 뒷날은 간 보난, 쉼빨대(소빨). 쉼빨대 잡앙(잡아서) 먹어나민(먹어나면), 빠진 거 빠정 던져분다(던져버리거든). 쉼빨.

(조사자 : 아아.)

소빨 소빨. 그 소빨 하나에, 흰 저 사발 벌러진(깨진) 거, 국그릇 흥는 거.

(조사자 : 아- 예-.)

그 사금바치(사금파리)엔 흥주게. 그것에 경 헨 셔랜게(있었다고 하더라). 아 그

걸 확확 흥난, '살랑' 흥 소리 난. 거 아무 것도 아니. 겨난 막 터전 돌아볼곡, 막 산산조각 난.

10) 도깨비(2)

— 도깨비불을 보면 '참봉아님'이라고 말해라

제 보 자 : 오인숙(여·65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2일

조사장소 : 오인숙 할머니댁(일과리 79번지)

요약 : 어떤 할머니가 낮에는 소금을 해서 저녁에는 그것을 제주시에 팔러 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은 제주시 가는 도중에 동생이 살고 있어서 그 집에 들러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시간이 새벽 한 시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소나무 숲으로 어둡고 좁은 길이었는데, 갑자기 전기불이 할머니 앞에 나타났다. 그 할머니는 이것이 도깨비인 줄 알고 "참봉아님 고맙습니다. 길 가르쳐주려고 나와서 고맙습니다." 하며 길을 가르쳐주라고 말했다. 그러자 도깨비는 좋아서 불을 비쳐주면서 집까지 안내해주었다. 그리고는 집에 다 도착하니까 그 도깨비불은 모슬봉오름으로 가버렸다고 한다.

옛날 우리 성할머님이, 막 흠어명으로(흠어머니로) 들언, 아주 공생하게 춤 사는 디, 아긴 흥 아긴 다섯 오누이. 아들 둘, 딸 셋 행, 둘만 사는디(데리고 사는디). 남편은 일찍 돌아가부나네. 이젠 막상 그자, 흥 마흔 남은 쫘 헛지. 우리 성할머님이. 겨난 그뻐, 날인 날마다 믄살해사 산다. 먹을 게 엇언. 믄살이랜 흥 건, 소금 소금.

(조사자 : 아. 예-.)

소금을 이젠 흥는 디, 낮인(낮에는) 소금흥곡, 밤인(밤에는) 그걸 물을 짜그네(짜가지고) 정(져서) 오란(와서) 쪼려그네 소금행, 풀래(팔러) 나간다게. 저 웃드르. 광챙이드레(?),¹⁹⁾ 저디 제주시 예염드레(제주시 가까운 곳에). 이젠, 그 소금물을 이젠, 그레 이젠 다 출령뇌뉘(차려서 뇌뉘어). 물 빵(물을 빼서) 흥 허벅씩 저오곡 흥난(져서 오고 하니까), 출련 뇌뉘. 둘(月)은 막 좋고, 드신(따뜻할) 때난. 아시가(동생이), 저 인냉이²⁰⁾랜 흥 디 살암서. 인냉인 니네 모른다.

19) 광챙이 : 지명

(조사자 : 인녕이마썸?)

저 산간도로²¹⁾ 저 이제, 아주 시에(제주시)에 못 가민, 중간 중간에, 이제 인녕이 광챙이 막 싯나(있어). 저디 이제. 그 인녕이엔 혼 디(곳)에 아시가 사난 아시신디, 가그네 속으벳 말이나(마음 속의 말이나) 흥고, 쓸(쌀)이나 싯거들랑(있으면) 아신(동생은) 잘 산덴. 쓸이나 싯거들랑, 뒤 웨(升) 빌곡 행 오라네. 아기덜(아기들) 밥 행 주고, 이 소금을 쪼란, 쪼령 풀 동안, 그것도 흥젠 흥민 멧 일(며칠) 걸리주게. 밥이나 해연 주젠, 그 갯거시(바다)에 간 해연 만드라뒤네. 가민 그자, 밤 지프민, 혼 혼 시쪼 두 시쪼 돼민 울 걸로 강 흥여네, 아기덜 다 늙져두고 흥연, 인녕일 가는다. 갈 땀 마습지도(무섭지도) 안 흥고, 이녁 홀어명으로 어렵게 살고 흥나네. 캄캄 어둔디 가나네, 아시가 흥는 말이,

“아이고, 성님(형님) 무사(왜) 이 밤이 어떻 흥난 읍디가 읍디가(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허나네,

“나 그자, 하간(이런 저런) 생각흥난(생각을 하니) 설와도지고(서럽기도 하고), 느신디(너에게) 오란 속으벳(마음속의) 말도 흥곡, 쓸이라도 싯거들랑으네 흥썰(조금) 빌곡(빌기도) 허젠 오랏저(왔어).” 허나네,

“성님, 잘 와수다. 쓸도 이수다.”

허연, 간, 밥 주난 먹고, 이젠 하간 말 굴단 보난, 혼 뒤 시 웨연. 시켓 디가(제사 때)가 넘언.

“아이고, 나 이젠 아시야, 나 가켜.” 허나네,

“아이고, 성님 이 밤이 어떻 가쿠양(어떻게 가겠습니까)?” 허난,

“아니여, 가사(가야) 소금물을 나가(내가) 저 오라야 혼다. 이제 강 집월(집으로) 저 오곡, 이제 아기덜토(아기들도) 깨난 울지 안 허느냐. 가켜.” 허나네,

“아이고 성님 계전(그러면) 갑서.”

허연. 이젠 보리쌀 흥썰 거려주나네, 그걸 지고 흥여네. 옛날은 소낭빳이(소나무밭) 창창혼다. 이레 질도(이곳으로 길도) 아이(아니) 빼고 흥난, 영 좁은(좁은) 좁은 혼 질로 흥연, 오는 도중에, 아니, 아닌 게 아니랑, 소낭빳으로 그자 전기불. 큰 전기불 7진 놈이 그자 바짝 나와. 앞드레. 바짝 나오난, 우리 성할머니 막 직성이(성격이)

20) 인녕이 : 지명

21) 산간도로 : 제주—중문 간 서부산업도로

췌어(세엿어). 퍼작 나오난 '요것이 도채비로구나.' 흥연, 옛날은 강돈(강도는) 일절 어서낫주게. 그자 헛 거, 도채비. 그것만 주로 나가민(나가면)……. 계난 '아이고, 이 거 도채비로구나.' 이젠 이녁이 흥는 말이,

“아이고 참봉 완 고맙습니다. 나 질 가르쳐주겐(가르쳐주려고) 나오란, 춤 참봉 완 고맙습니다.”

허나네, 아 그 도채비가, 도채비 일름이 '참봉이'엔 혼덴. '참봉아' 일름만 거느려주 민, 경 좋아흥영 도채비가 경 저 질을 가르켜준덴.

“참봉아님 막 고맙습니다. 나 가는 길 가르켜줍서. 난 일과리 감수다.”

아니, 일과리가 아니고 날외. 이 다가 날외.

“나 날외 감수다. 나 길 가르켜줍서.”

허나네, 도채비가, 그자 불을 하나 들렁 나왔단. 두 개, 두 개 들러네. 그자 사름(사람) 기러기(길이) 두 기러기만인(길이만큼). 경 흥민, 옛 메다(미터) 웨곡(되) 앞 산에. 날외엔 흥난, 경 도채비 질도(길도) 잘 알아랜. 그자.

(조사자 : 웃음)

벌롱 벌롱 그자 전길 영 혼들렁(?), 가는 길루(길로) 영 혼들러랜. 영 영 혼들르 민, 그자 시퍼렁 혼(시퍼런) 불이, 그자 벌롱 벌롱 벌롱 막 크게 경 흥난, 할망은 그자 가는 냥 그자(가면서 계속),

“아이고, 참봉아님 고맙습니다. 창봉아님 고맙습니다. 날 질 가르켜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민, 그자 막 그 불이 지꺼정.

(조사자 : 웃음)

들고 가르췌 오는 것이, 요디(손으로 가리키며) 못 섯저. 이제 이디, 우리 동네 이디 못 셔어(있어).

(조사자 : 아- 아-) 느네 안 봐안? (조사자 : 봐수다.) 올로(요곳으로) 요디 췌금 가 민, 못 셔어. 그 못딜 오나네 다 온거 아니? 다 오난, 이젠 다 오나네, 그 못딜 오나네,

“아이고, 창봉아님 고맙습니다. 이젠 다 오라수다(왔습시다).”

흥난, 그자 그 불이, 그자 '짜-악 짜-악' 소릴 흥명, 저 모실봉오름더레, 그레(그곳으로) 퍼작 흥난 그레 가불어랜.

(조사자 : 아아 웃음)

경 흥난, 헛 것은 사름을 흘려당, 바당물러렐(바다물에) 들이치나(빠치든가), 이제 가시낭엘(가시나무에) 박첼부나(박쳐버리거나) 흥민, 피가 나민 살곡, 피가 안 나민, 사름이 피가 나민 그 헛 것이 삭아져불곡(없어져버리고). 피엔 수에 삼각이엔.

(조사자 : 아.)

피가 안 나면은, 사름은 죽어. 그뎨 안 죽어도 혼이 빠가. 경헨 혼 뺨 죽곡, 빌빌 늙당 죽곡. 도채빈 그런 것이 아니영, 그자 ‘참봉아님’ 일름만 곱아주민 지꺼정 이제 길을 경 ㄱ르켜권. 겐디 우리 성할머님이 이제 이추록 좋은 시상은(세상은) 날 중은 모르고, 나신디 흥는 말이,

“느 나따라 후제라그네(나중에), 길 걸음 걸을 때랑, 이제 그런 불이 나오민 그 건 도채비여.”

‘참봉아님, 고맙습니다.’ 막 빌랜. 경 흥민 길을 꼭 가는 길 이제 밝혀준덴. 경 행 굴은 옛말. 경 흥 싶져.

11) 본처는 백년 첩은 백일

제 보 자 : 문경옥(여·78세, 일과리 99번지)

조사일자 : 1997년 8월 2일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요약 : 진주로 유학을 간 남편을 보러, 시어머니 말씀대로 진주로 가서 사랑방을 열 어다 봤는데, 기생첩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아내는 약을 먹고 목을 메어 죽었다. 그 남편은 죽은 아내를 보고 “본처는 백년, 둘째첩은 백일인데, 당신은 그럴 줄 몰랐네.”라고 하며 한탄했다는 얘기.

(조사자 : 재미난 얘기 좀 아는 거 어수과? 옛날 이야기마썸.)

옛날 옛날인데, 계도 제주도 제주돗 말은 아니여.

(조사자 : 아- 예- 제주도 말은 아니고예?)

응. 서울에서 나온 말인데. 이젠 아무 것도 없는 집의, 이젠 집을 영 짓으난, 옷 담도 쌀 돌이 없는 집의. 울이. 계난 저 울도 돌도 없는 집의 시집을 가난, 삼년을 살아서. 삼년을 사난, 시어머님 흥든 말씀,

‘야야야야, 며늘아가 진주낭군…….’ 한 말을, 낭군은 진주 유학을 가서. 진주.

“진주낭군 불러거든 진주강낭 빨리 가라.”

흐나네, 빨리가라 흐난, 이제 진주강낭을 빨리 가나네, 이젠 물도 좋고, 돌도 어시
난, 방맹이로 ‘뚜당뚜당’ 뿔멍, 이제 뿔단 보난, 난 데 없는 말자추씨(말발굽채) 소
리가 ‘뚜당뚜당 뚜당뚜당’ 흐난, 이젠,

(조사자 : 뚜당뚜당?)

이젠 말발굽 소리가이?

(조사자 : 아, 말발굽 소리가…….)

으, 말발굽 소리가 ‘뚜당뚜당 뚜당뚜당’ 흐난, 옆눈으로 보난, 이젠 하늘 같은 것
을 쓰고. 진주낭군이 하늘 같은 것을 쓰고, 구름 같은 말을 타서. 이젠 못 본 채로
지나와서. 이녀집일 지나가부난, 이젠,

“애리야 등등, 진주낭군이로구나.”

흐멍, 이젠 흰 빨랜 회게 뿔꼭, 검정 빨랜 검게 뿔고, 집이라고 돌아왔어. 집이라고
돌아오난, 이제 시어머니 흐는 말씀이,

“야야야야, 며늘아가 진주낭군 불러건 사랑방을 열어다 보라.”

흐연. 사랑방을 열어다 보난, 이젠 오색가지 수를 놓고이, 기생침을 옆에 끼고이,
건जू까릴 햅서. 느 먹으라 나 먹으라이? 느 먹으라 나 먹으라, 건जू까릴 햅시난, 이
젠 이젠 그 각신, 건넌방에 내려완. 요만 흐민 어떻 흐린, 이젠 오색가지 악을 타난
먹고, 명지 수건 석 제에 목을 매연 죽어서. 죽으난, 이젠 그 때엔, 그 그 말씀을
이젠, 그 낭군이, 이젠 진주낭군이 들어눕고 이젠 신 신을 홀 건 없이, 이젠 보선발
로 뛰어완 보니까 죽어시난,

“애이라, 여보 자네 그럴 줄 내 몰랐네. 본처는 백년이고, 둘째침은 백일인디, 자
네 그럴 줄 내 몰랐네.”

경 했젠.

(조사자 : 이 애긴 누구한테 들언마씨?)

이거, 우리 전의, 일본 가단 걸어전. 일본 오무라 수용소엔 혼 수용소에 간, 이
말 들어서.

(조사자 : 수용소도 갔다 완 마씨?)

응.

日果里 學術調查報告

(조사자 :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 그럼 욕지 사름마씨?)

응. 서울 사람도 얘기하연.

(조사자 : 할머니 막 돌아다니셨구나예?)

응. 돌아댁기긴 많이 돌아다녔저게.

(조사자 : 계민 얘기들 많이 알쿠다예? 이 동네 얘기 좀 해줍서.)

이 동네 얘긴 뭐…….

(조사자 : 할머니나 어머니네 내려오는 얘긴 그런 얘긴 어수과? 시집완 들은 얘
기나 뭐…….)

별로 엇어.

(조사자 : 별로 엇어마씨? 계민 쯤끔은 이신계게예. 흥나만 굴아줍서.)

무슨 거엿 말을 굴오코

(조사자 : 옛날 이 동네 사람들 얘기라든가 막 힘 셋덴 흥 사람들 얘기 같은 건
어수과?)

12) 입은 시어머니, 발은 시누이, 날개는 시아버지, 가슴살은 서방님

제 보 자 : 문경옥(여·78세, 일과리 99번지)

조사일자 : 1997년 8월 2일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요약 :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아버지와 같이 김을 매던 한 며느리가 꿩이 날아 다니는 것을 보고는, 그 꿩을 잡아서 그 입은 시어머니한테 드리고, 발은 끊어다가 시누이에게 주고, 날개는 시아버지에게, 가슴살은 서방님에게 주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얼마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며느리를 못 살게 굴었나 해서 그들을 좇아버렸다고 한다.

옛날 영 흥 사람은 서났저. 저 시어머니영 시누이영 시아버님이영 이젠, 메느리 영 검질 매단 보난, 이젠 꿩이 놀아나는 거 님아. 흥난, 메느리 흥는 말은,

“요 꿩아, 요 꿩아 나 앞의 오랑 죽으라.”

(조사자 : 나 앞의 오랑마씨?)

나 앞의 오랑 죽으라.

(조사자 : 아아, 나 앞에 왕 죽으라아!)

응. '죽으면 이제 쯤져주는 입이랑 끊어단, 쯤져주는 시누잇 전에 드리고…….'
따시 저, 예 나 아까 잘못 곶았저.

“입이랑 끊어단 시어머님 전에 드리고, 이제 발랑 끊어단 허우치는 시누잇 전에 드리고, 이제 놀게기랑 끊어다그네 더껴주는 시아바님 전에 드리고, 따시 가슴 가슴살랑 돌라다그네 이제 가슴 속색이는 신랑 전에 드리쿠다.”

경 행 곶아났저. 경 흥난, 그 시아바님이 그 말을 들엇단이, 메느리 흥고, 저 메느리 말을 들엇단, 이젠 그 똥흥고 할망은 좃아빚젠. 메느리가 언마나 속타사, 그 영 곶으멍 금줄을 뗏나 행으네.

(조사자 : 근데 그 왜 시어머니한테 입을 주켤 흥고 발을 시누이 주켤 흥 거 마씨?)

응?

(조사자 : 그 무사 경흥켤 흥 거 마씨?)

입은 시어멍이, 하도 입으로 말을 하영 메느리ㄴ라 못 전디게 곶으난 흥고, 시누인 따시, 박박 허우치는 거나네, 시누잇 전에 주켤 흥고. 놀게긴, 시아바님이 더껴쨌난, 그 더껴주는 시아바님 전에 드리켤 흥고.

(조사자 : 아아)

(조사자 : 그 애긴 어디서…….)

가슴술은,

(조사자 : 아 예. 가슴살은.)

가슴살은 살이 지프주게. 계난 가슴술은 이젠 속색이는 뽕편엿 전에 드리켤 흥 거주게. 거 이컨 제주도에서 난 말.

(조사자 : 거 누구한테서 들언마씨?)

거 옛들은 거.

(조사자 : 옛들은 거마씨이? 어디서 들읍디가?)

여기서 들어십주게.

(조사자 : 여기서마씨?)

우리 부락에서.

(조사자 : 어른들한테서?)

예. 우리 부락에서마썸.

13) 콩쥐팥쥐

제 보 자 : 문경옥(여·78세, 일과리 99번지)

조사일자 : 1997년 8월 2일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요약 : 팥쥐의 어머니는 평소 자기의 딸에게보다 남의 딸인 콩쥐에게 오히려 많이 먹였는데, 하루는 하늘 옥황이 굶을 하는 것을 팥쥐만 데리고 가 버렸다. 그리고는 콩쥐에게 기장과 피 다섯 말을 다 까고 물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라고 시켰다. 그러나 콩쥐는 가마귀와 새들의 도움으로 일을 다 마치고 뒷집 할머니의 도술로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굶 구경을 갈 수 있었다. 놀다 보니까 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할머니의 말이 떠올라 급히 뛰어 나오다가 신 한짝이 벗겨졌다. 잔치가 끝나고 그 신 주인을 찾으러 사람들이 팥쥐네 집까지 오게 되었고, 팥쥐도 역시 신을 억지로 신어보았지만 맞을 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엌에 있는 콩쥐에게 신을 신게 해 보니까 발에 꼭 맞았고, 그 뒤 콩쥐는 옥황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를 질투한 팥쥐는 콩쥐와 우물에 물 길러 가서 콩쥐를 물에 빠져 죽게 하였다. 콩쥐는 다시 꽃으로 환생을 하였고, 그 뒤 팥쥐는 콩쥐 행세를 했지만 이를 알아챈 옥황은 팥쥐에게 거울을 보게 하여 그 틈을 타서 죽여 버렸다. 그리고 죽은 팥쥐의 손톱 발톱으로 찧을 담아서 집에 놀러 온 팥쥐 어머니에게 먹게 하였다.

(조사자 : 그런 얘기 또 하나 아는 거 이시민 굴아봅서.)

(조사자 : 저 죽은 어명 돌아왔으네 큰 어명이 아이 하고 죽은 어명이 아이 하고 키우는데, 큰 어명이 아이는 막 괴롭히곡 하는 말 들은 바 이시민 좀 굴아줍서.)

콩쥐팥쥐이파?

(조사자 : 아 그걸 콩쥐팥쥐엔 험니까?)

예. 콩쥐팥쥐엔 험디다.

(조사자 : 콩대기꽃대기엔도 흥곡.)

예. 콩대기꽃대기가 맞입주. 그 잊어변 하도 오랜만이 잊어변 못 굴으쿠다.

(조사자 : 아는 것만 굴아줍서.)

계- 양 이젠, 그 다슴똥은 콩을 볶안 주고, 이녀 난 똥은 풋을 볶으면, 풋은 술
지질 안 흐는 겁주게.

(조사자 : 예.)

이젠 다슴똥은 콩만 먹어가난 막 술져 가난,

“어떠난 이집원, 다슴똥은 술지곡, 원똥은 지침져.” 허난,

“아이고, 다슴똥은 술져압주게. 원똥이사 지쳐도 좋수다마는, 다슴애길 아니, 갱
햐젠 안 험니까, 안 험니까?”

허명, 드러 허명 허연. 이젠, 그뎨 무신 막 술지난, 이제 그 하늘 옥황이 굿을 허젠
햐, 그 굿 구경을 가젠 햐 허난마썸. 이젠 내가 이젠, 그 다슴똥?라 양 피 닷 말,
지장 닷 말 이젠 널어두고, 이젠 그걸 다 지렌 흐는 거라마썸. 지장 닷 말 피 닷
말을 다 지렌 허난, 이젠 따시 지새항에 물 혼 항을 저당 ?덕이곡 허렌 허난, 이
젠 아 물을 정 오란 보민, 새들이 그 지장 닷 말 피 닷말 낸 디 막 앓아서마썸. 앓
이민,

“아, 요 새야 저 새야 놀앙 왕 먹지 말라. 날 옥들리지 말라. 요 새야 저 새야.”

허명, 이젠 다올려똥, 강 오란 물 저다 낵 봐도, 항에 고득질 안 흐는 거라마썸. 집
똥 할망신디 간, 이젠 흐는 말이 이젠,

“아이고 나 똥, 게민 나 강으네, 그 지새독을 이제 저 똥으로 막아그네 굴어주
마. 굴어주건 물져다 노라.”

허난 이젠, 겨는디. 이젠 가마귀가, 이젠 경 이젠 할망이 오기 전의, ‘굽엿 몰락 깡
굴락’ ‘굽엿 몰락 깡굴락’ 경햐햐 햐다. 게난 그 항 굽엿 영 보난, 오갓 터진 항을
갓다 봐서마썸. 겨난 그 집똥 할망이 이젠, 그 항을 ?덕여주난, 이젠 춤 저 막아주
난, 물을 습박 저단 봐두고 이젠, 그 이젠 따시 지장 닷 말 피 닷 말 이걸 어떻 지
린 허단 보단, 새들이 다 까쥬서마썸. 다 까져 이시난, 햐 영 고맙덴 이젠 허연, 다
칸 다 담아놓고 이젠 허난. 이젠 따시, 그 똥짓 할망신디 간,

“나 문똥 이젠 물 저단 ?득이고, 지장 닷 말 새 닷 말을, 새 닷 말을 이젠 문
?득여수다.”

허난, 할망이 이젠 대죽냥 몽뎡이로 확확 시 번을 때렸덴 햐다. 때리나네, 이젠
그 저디 이제 의복을 이젠 입고, 따시 쑥대 건지는 건, 머리라 마썸. 머리, 다 이제
춤 텔레비 보듯 머릴 이엿햐. 이젠 이젠 경허난, 이젠 비로 오룻(청취불명) 뎡생이

를, 다 이젠 뭉생이를 거들거들 가가난, 이젠 그 하늘 옥황에선, 이젠 막 굿 흥명
이젠 춤을 추명 흥단 흥는 말이 이젠,

“아이고, 이제 저 절루 이제 저 상당흔 미인이 온다.”곤 이젠.

뭉 타고 미인이 왓젠 흥난. 그 풋대기도 다 빌러 이젠 풋대기도 돌아오란, ‘아이
구 미인이로구나’ 흥명, 흥단 이젠 헨. 이젠 시간 냉기지 말랜 할망이 굴아부난, 시
간 이젠 막 춤 추명, 벨 노력을 문 흥단, 이젠 돌아오란, 심젠을 흥난, 이젠 신 흥
착을 오묘 벗어져서. 신 흥 착을 벗어지난, 이젠 그 신을 이젠 신으민, 이젠 시간
늦영 이젠 그 사름 손에 째힐꺼난, 이젠 그대로 뛰어와비서.

뛰어오난, 이젠 막 잔칠, 이젠 그 신 그 임젤 좃젠 흥난, 이젠 저 풋대기 어명은,
이젠 풋대기7라 막 신을, 이젠 죽거드네 죽은 발을 막 움키명 행 신곡, 이제 크거
드네 이젠 보선을 이제 막 속에 하영 담이지곡 흥 보선, 그 보선을 신으민, 신 맞
낸 흥명 흥난, 겐 이디 저디 땡겨난 봐도, 노시 신 맞인 사름이 엇이난, 그 부락을
전부 땡겨도 신 맞인 사람이 엇이난, 이젠 나가라 가난, 그 콩대기가 부엌에서, 스
몫 그 불남불 스몫 솟구멍이기가 스몫 양지에 시켜명했지. 콩대긴. 이젠 흥난 이젠
‘콩’ 흥게 이젠 지침을 해서. 흥난 아 이디도 사름 싯젠 흥난, 아이고 당추 사름 어
수덴 흥난, 계도 소리 남젠, 소리 남젠 흥난. 겐,

“당추 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헨. 보난, 이제 그 신을 신으난, 꼭 맞느거라마썸. 꼭 맞이난, 이젠 그땐 이젠 그 사
름을, 이젠 하늘 옥황이, 이젠 그 옥황상제한테 시집을 가서마썸. 시집을 간 사름을
이젠 그던 간 멩질 차랑차랑 참시난, 이제 그 풋대기가 간,

“아이고, 성님 읍서. 물에나 가게.”

흥나네, 이젠,

“나 저 멩지 차사켜.”흥난,

“아이고, 성님 멩지랑 강 오란 차고 읍서. 성님이영 나영 성 아시가 강 물 겨오
게.”흥난,

“아이고, 나 물허벅도 엇다.”흥난,

“물허벅 나 빌어오쿠다.”

“물꾸럭도 엇다.”

흥난, 물꾸럭도 빌어오켄 흥고,

“베도 엇다.” 흥난,

“베도 간 빌어오쿠다.”

흥명 흥난, 이제 빌어다주난,

“양 읍서. 이제랑 등에 물 놓 가게.” 흥난 이제,

“지계에 니부떠 물 노라.”

흥난, 풋대기 마라, 풋대기가 아시난, 풋대기가,

“아이고, 성님 차례 없는 일이 어디수과?”

풋대기 흥는 말이, 콩대기 마라, 이젠,

“성님부떠 굽읍서. 굽읍서.”

흥난, 이젠 그 이젠 굽으난, 이젠 물을 영 지우난, 이젠 등 미는 추룩 흥단, 이젠 물통드레 잘락하게 밀러부러서마썸. 계난 빠지난 죽어십주게. 죽으난, 이젠 그 통에 이제 그 사름, 그 콩대기 탄 댕기단 물을, 이젠 물 맥이레 가민, 그 곳으로 환승(還生)헨마썸. 곳으로 환승행 물 속에 오란 툇 흥게 이젠 시 개가, 풋 시 개가 툇 앓 이민 이젠.

(조사사 : 흥나가 빠져 죽어신디 시 개 꼴이 나완. 이야!)

예. 예. 시 개 나완, 이젠 그 꼴이 이젠 심젠 흥민, 못 심곡 못 심곡 흥단, 혼 번은 이젠 이젠 세 번채라 간, 이젠 물 맥이네디, 이젠 계난 하루는, 그 춤 옥황상젠 안턴, 자는 추룩 해네, 이젠 그 춤 꼴을 툇 심언 와서마썸. 심언 오난, 이젠 이젠 꼴을, 이젠 저 안방 쓸 거리레 가는 도에 하나 이젠 폼우고(꽃고), 따시(다시) 구들 방드레 들어가는, 이젠 지금은 머리에 폼우고마썸. 따신 하난, 따시 셋문 이제 머리에 폼아가민, 넘어가가민 그 꼴이 풋대기 넘어가가민, 그 꼴이 풋대기 넘어가가민, 밧끼 메불고 밧끼 메불곡 흥는 거라마썸, 경해네 해여뒤네.

이제 춤 아이고, 나가 중간 떨어진 굴아수다. 흥난, 이젠 그땐 이젠 그 멧질 차명 이젠 콩대기님이엔 흥명, 이젠 풋대기님인디 콩대기님이엔 흥명들 혼디, 이젠 이젠 그 풋대기 어명이, 이젠 그 콩대기네 집의 가서마썸. 콩대기네 집일 간디, 이젠 이제 저 머리 이젠 그 풋대길, 이젠 경 헨 이제 밧끼 메고 메곡 해 가난, 이젠 서방이 이젠 상 출리는 걸 보니까, 콩대기 상 출리는 거 아니라마썸. 이젠 수재 노는 거라 뒤신가 아니난, 이제 그땐 이젠,

“너가 어 콩대기가 아니다. 너”

“무사 나가 콩대기가 아니라, 나가 누게니 누게니, 나가 콩대기주 콩대기주.”
흐는 거라마씀. 겨난 이젠 콩대긴. 계난, 신랑은 이젠, 그 가메에, 가메에 물 꺼네,
“이레 영 거울을 너가 보면은, 이제 에 저 콩대기고, 아니 보면은 너가 풋대기다.”
흐난, 이젠 영 보난 이젠, 그레 꼭 밀련 죽여비서. 그 풋대길. 풋대길 죽여부난, 이
젠 그걸 이젠 잡아내젠 손톱 발톱 문막 잠안, 이젠 망대기에 짓 담아주고, 이젠 풋
대기 어멍을,

“어머니, 이제 이디 삼서. 삼서.”

흐멍, 풋대긴 듯인 흐멍, 이젠 그 짓을 이젠 다 먹으난 때 막날 아적은,

“아이고, 이건 사름 손꼽 답다.”

경 곱앗젠. 경 흐난 이젠,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 흐지 맙서. 이제 그 기분 나빠그네, 그 어떻 혼 말씀
이랑 그런 말씀을 험수과. 험수과”

흐멍, 막 이젠 그 콩대기가 경 했젠 흐여. 경 흐난 이젠 막 먹언 나사난,

“아이고, 요 년 지 야기 퀘기…….”

그 콩대기가 흐는 말이, 풋대기 어멍 한테에.

“요년 지 야기 퀘기 그만 흐난 잘 먹더라. 나가 콩대기지 풋대기나?”

경 말했저게. 그것이 끝이여. (웃음)

(조사자 : 그 거 무섭네예!)

예. (웃음)

(조사자 : 콩대기가 착흔 줄만 알았는데, 착흔 것이 아니네예.)

(웃음)

(조사자 : 그것도 어렸을 적에 들읍디가? 이 마을에서 들읍디가?)

예. 진 춤 우리 아인 때 들은 말입주게. 계난 춤 잊어분디, 어떻 곱아가난, 생각
나전 곱아점수다. (웃음)

(조사자 : 아주머닌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예.

(조사자 : 여기서 지금까지마씨?)

예. 우리 저 혼 반 안에서 결혼이우다게.

(조사자 : 그 말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들을 정도면 어릴 때부터 자꾸

들었단 얘기네예?)

우리 형네가 곧는 소릴 들어십주게. 우리 형이 들 이시난 경 곧는 소리 들어십 주. 이말 낭독해 본 적도 었우다.

(조사자 : 게난 그 얘기를 손지들한테나 자식들한테 고아납디가?)

안 고아봐수다게.

(조사자 : 이게 처음 고는 거마씨?)

예.

(조사자 : 아아. 게도 잊어볼지도 안 행 딱 고앗당으네 아이고 중간에 빠졌구나 해연 다시 고아주고…….)

14) 불교 믿은 姑孀

제 보 자 : 문경옥(여·78세, 일과리 99번지)

조사일자 : 1997년 8월 2일

조사장소 : 일과리 마을회관

요약 : 불교를 믿어서 '나무관세음보살'을 계속 중얼거리다가 하루는 그 말을 잊어버린 시어머니에게, 이를 평소 못마땅히 여겨오던 며느리가 '뒷집 김서방 뒷집 김서방'이 맞다고 잘못 가르쳐주었다. 그리고는 동네 부끄러워 못 살겠다며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깊은 산 속으로 가서 절벽으로 밀쳐버렸다. 그런데 바다로 떨어진 시어머니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며느리도 그 뒤로는 '나무아미타불'을 외웠지만 결국 죄를 지은 며느리는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조사자 : 다른 디서 들어보른양? 시어머은 불교를 잘 믿어가지고, 불교를 잘 믿영 다른 건 모르지만은, 그냥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흥명 잘 믿고, 메느리는 불교를 안 믿고 경 흥는디, 시어머 '나무관세음보살' 흥는 걸 보니깐, 막 듣기가 싫어가지고, '아이고, 저 할망 저 어멍 빨리 죽어브러시른 좋켜. 어멍 '나무관세음보살' 행으네 무슨 맥여 살리고 죽고 흘겐가 뭐홀겐가', 경 흥는디, 요 시어머한테 자꾸 그 와가지고 놀레 오는 하르방이 이신디, 이 뒷집에 사는 김서방이라는 하르방이…….)

예. 뒷집 짐서방 예?

(조사자 : 그 말 들어납디가?)

예.

(조사자 : 거 알아봅서.)

저 할마니 외아들이고 외매느런디, 메느리도 없고, 아들은 직장 가분디, 이젠 그 이젠 아길, '윙이 자랑 윙이 자랑' 흥명 흥글엄시난, 보수가 이젠 권재 받으랴 와서 마썸. 쌀 받으랴양.

(조사자 : 누계가 마썸?)

중이마썸.

(조사자 : 중이 예.)

예. 중이 쌀 받으랴 와시난, 옛날은양, 영 행 망탕이질도 행 땡겨나수다게.

(조사자 : 예.)

와시난 이젠,

“아, 이 집원 사름 엇어어? 사름 엇어서?”

흐난, 이젠 경 굴으난, 이젠 그 보수가 나갓젠 험디다. 나가간, 이젠 할망이, 경 안 뒨신구라양, 이젠 드러 불르는 거라마썸. 오랜 불르난, 이젠 쓸을 혼 사발 습박 이젠 거려단 주난양, 이젠 흐는 말이, 그때엔 그때엔 이제,

“할머니 ‘윙이 자랑’ 흐지 말양,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흥명 아길 흥글서.”

흐나네,

“할머니가 경해야 존 국²²⁾ 갑니다.” 흐난,

“예”헨,

이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흥명 드러 흥글단 이젠, 드러 매틀을 흐단도, 밥을 먹젠 흐나네, 이젠 오갓 밥 먹으멍 잊어비서마썸. 할망이.

(조사자 : ‘나무아미타불’ 혼 걸 잊어볼엇구나예.)

‘나무아미타불’ 혼 걸 잊어부난, 이젠 그때에 흐는 말은, 저 그때엔,

“뒷집 짐서방 뒷집 짐서방 아니파?”

해전. 메느리가 굴앗젠마썸.

(조사자 : 시어명이 물어보난?)

22) 존 국 : 좋은 곳.

예. 시어명이,

“나 곧단 말 오꼬 잊어빚저.”

흐나네,

“뒷집 짐서방 뒷집 짐서방 아이파?”

흐나네, 이젠 ‘뒷집 짐서방 뒷집 짐서방’ 해가네 혼 사홀 뉘나네, 이젠 뉘뉘라 그라 혼
는 말이,

“아이고 나 곧단 말 잊어빚저게.”흐나네,

“무신 말이파?”흐나네,

“아이고 나 곧단 말 잊어빚저.”

흐명, 드러 흐명 헐, 흐명 이젠, 경 곧단, 나 이젠 뉘뉘라 그라 오란 곧는 말이, 어머
니 이젠 안 뉘켄. 우리 뜬 부락에 간 살아사주 아이 뉘켄 흐난, ‘무사 경 헐뉘’ 흐
난, 아 난 데 엇이, 이제 뒷침뉘 하르방은 흘하르방이라마썸.

(조사자 : 아. 예-.)

‘뒷침 짐서방 뒷침 짐서방’ 흐난, 이젠 ‘어똥흔 일인고’ 이젠 어똥 흐는디, 이젠
우이 남척스러왕²³⁾ 이디 살 질 못혀켄 흐난, 아 계민 부모 흐는 일 이제 어똥 흐
느닌 흐난, 좋은 수가 싹켄. 매느리, 각시 흐는 말은양? 무신 좋은 수가 시닌 흐난,
이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젠 경 곧단, 이젠 그대 흐는 말이,

“저 어디 산의, 좋은 산의 강, 이제 올라가그네, 이젠 잘 맥명가그네 들이쳐볼겐
흐난, 이젠 경 안 흐민, 각시영 이제 돌매연, 이젠 겨난 여자말 아이 듣는 사람이
엇나 흐는 거라마썸.

(조사자 : 웃음)

이제 그날 아척인, 이제 의복도 좋게 입지구양? 좋게 입지구, 이젠 백임두 잘 맥
이고, 이젠 무사 좋은 의복 줘닌도 안 흐고, 무사 잘 출려줍닌도 안 흐고 흐연, 이
젠 잘 먹어아전 이젠 말썸 이젠, 지켄 아저단 턱 계완,

“어머니, 이디 앞입서.”

흐난, 무사 앞이래도 안 흐고, 이젠 아들이 전 가가나네, 산 옷트레 산 중더레 올라
가가난, 이젠 가단, 이젠 바닷가에, 이젠 잘도 넓은 돌이 신 단 걸 알안, 이젠 그
디 간 산,

23) 남척스러왕 : 부끄러워서

“어머니, 저거 봅서. 저거 봅서.”

ㅎ명, 공중드레 보명 ㅎ난, 그거 보는 스이에 잘락 ㅎ게 밀러부난양, 할망은,

(조사자 : 메느리가마썸?)

아들이.

(조사자 : 아들이, 어명을?)

예. 경 ㅎ난, 이젠 공중 공중엔, 이젠 공중에선 이젠 ㅎ는 말이, 춤 저 그때엔 이젠, 할망이 이젠 옥황드레 오곳 그 밧 당 올라간마썸. 잘락 털어지난, 경 해부난 털어졌단, 확 ㅎ게 올라가부난 이젠, 집의 오난 따시 이젠, 그 메느리가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서마썸.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난 이젠, 뱃(햇별) 과랑 과랑 나는 날, 낮 같은 걸 이젠 이 바당드레 <칭취불명>.

‘아이고, 나도 이거 타민 우리 시어머니신디 가질루구나.’

해연, 이젠 거 타는 양, 바당 가운데레 간 들이쳐빗젠 험디다게.

(조사자 : 아아-)

죄가 어디 강 엇질 안 ㅎ영, 싯는 거라마썸.

(조사자 : 부처님이 경 죄를 내린거지양?)

예. 그 ‘아미타불’ 부른 어른은 춤 하늘 옥황으로…….

(조사자 : 하늘 옥황으로 올라가고…….)

예. 올라가고. 겨난 거짓말을 해연 해부나네, 죄가 엇만 안 혼 걸 헛젠 해부난 이 아니파게.

(조사자 : 경 ㅎ난 요새 메느리들 좀 반성해야 될 거라양?)

(웃음) 예. 예.

(조사자 : 시어멍 경 옥ㅎ곡 ㅎ지 말고.)

(조사자 :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마썸?)

우리 아인 때 우리 형네가 시난 들은 거.

15) 남침이 하르방

제 보 자 : 이묘순(여·71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3일

조사장소 : 이묘순 할머니 댁(일과리 906-3)

요약 : 남씨 성을 가진 힘이 센 할아버지가 있었다. 남방애를 머리에 써서 정주목에 갔다 오면 쌀 한가마니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무거운 남방애를 머리에 쓰고 정주목까지 갔다 오니까 쌀은 안 주고 잡아서 때려버렸다는 얘기.

남침이 하르방이 이서. 힘을 씨난, 남방애가 크주게.

(조사자 : 예.)

그 남방애를 머리에 써그네, 저 정주목에 갔다오면은, 이제 옛날도 그 쌀 한 가맹이를(가마니를) 주기도 한다. 남방애를 씨네 올래(골목) 정주목에 갔다오니까, 한심영(잡아서) 두드러브런(때려버렸어). (웃음) 상도 안 주고.

(조사자 : 그전 무사짜?)

무지훈 놈이라고. (웃음) 정 해영, 정 훈 말은 들은 데가 이서. 이제도 생각하민, 남방애도 큰 큰 남방애주게. 나무로 만든 거. 나 알거니, 우리 친정 어머니네 집이 그 남방애가 이신디, 그거를 써서 올래 정주목에 갔다오면은, 쌀 한 가마니 주기로 약속했는디, 건 주지도 안 하고 모살드레 목 한 두드런. 두드러빗젠. 할망들 드러 그런 우스개 훈 말은 들어나서.

(조사자 : 그런 말 더러 생각한 곱아줍서. 재미진게마썸.)

뭐 별로 어린 때 들은 말이고. 어머니영 산 때.

16) 설촌유래(1)

제 보 자 : 문형옥(남·72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3일

조사장소 : 문형옥 할아버지 댁(일과리 906-3)

나의 스대조(四代祖)가 이섯는디이(있었는데). 스대조가 이 부락을 설동했단 말이여. 왜 설동을 했냐 하면은, 그전에 여기가, 그 '원시림', '원시림'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림, 서너 서 씨, 수풀 립 자. 그래서 일름을 서림이라고 하고, 이렇게 지었단 말이여. 그 당시 우리 사대조부가 우마를 방목 했서요. 말. 말을 방목했는데,

에 말을 한 백여마리 이상을 방목하는데, 하루는 이제 그 말을 조름으로(뒤로) 좇
안 보니까, 서림물을 발견해서. 물을. 물을 발견해가지고, 그 당시에 인제 스대조부
가 이 부락에 정착을 하고, 일름을 서림이라고 명칭을 해가지고 헛단 말이 이서.

(조사자 : 아, 그럼 그 사대조 되시는 어르신네 함자는 어떻 됴신고예? 휘(諱)가
어떻 됴수과?)

휘체? 예 문, 예 또 휘체가 가만 잇자 찾아보고.

(제보자가 책을 직접 보여주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斯舜 留鄉別監 卒本月日 : 同治九年 九月二十三日, 墓所 : 東日境 多墳員(한
무덤개) 丑生”

(조사자 : 따로 독립된 마을을 꾸민 것이 아니라 이 저 일과리 한 동으로 설동
(設洞)했다는 거지예? 설촌(設村)이라고 하지 않고 설동이라고 하고예?)

예. 설촌. 설촌.

(조사자 : 설촌이라고도 하고 마씀?)

(조사자 : 그 때 원래 그 분네는 일과리 저쪽에 사시다가 이쪽에 물이 좋은 물
을 발견해가지고 이쪽으로 오셨단 말이지예?)

예.

(조사자 : 아 예. 계민 어디가 되는 거라마씀? 웃동네로 해네 계민…….)

웃동네로 해여네, 이단 나중예고.

(조사자 : 내중에 계난양? 그 물은 여기서 발견했드래도, 집은 아무래도 해안가
에서 멀리 떨어지게 해그네 살단, 이레 내려오게 된거라예?)

예.

17) 오찰방(2)

제 보 자 : 문상선(남·68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3일

조사장소 : 일과2리 반송이동산 삼방놀이터

요약 : 오찰방은 대정골 동성리에 살았다고 하는데,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어서 그

아버지가 때릴려고 하니깐 산방산으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한다. 계속 쫓아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 오찰방이 아래로 떨어져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오찰방이 벌써 집에 와 있는 것이었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밤에 오찰방이 자는 사이에 잘 살펴보니, 거드랑이에 날개가 있었다. 이것을 본 아버지는 그 날개를 잘라버려서 별로 큰 인물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던 후에 서울 시내 성에서 난이 발생하였는데 이 난을 수습할 사람을 찾던 차에, 제주도에 사는 오찰방이 그 난을 평정하러 올라가게 되었다. 오찰방은 말을 타고 가서 난을 일으킨 사람을 잡았으나,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도 끝까지 뛰어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냥 멈추었다는 이유로 포부가 작다고 해서 찰방이라는 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오찰방 그 분이 대정골 저 동성리 살았겐 혼다(살았다고 한다).

(조사자 : 동성리에 살았겐 험디가? 일과1리에선 저 동네 어디 살았겐 헨 계마는 일과1리.)

대정골 안성²⁴⁾ 어디 그 저 쪽에 살았는디.

(조사자 : 거기 후손도 살고양?)

후손은 각처에 흩어져 있주. 경 살았는디, 결국은 말을 잘 안 들언,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때릴려고 하니깐, 뛰여간 나간,

“이놈의 새끼 어디 가느냐.”

해서, 결국은, 옛날은, 오랜 허민 오곡, 가랜 허민 가는디, 뛰어 날치니까, 결국은 산방산 쪽으로 가부런(가버렸어). 산방산에 막 쫓아 올라가니깐, 산방산 꼭대기에 올라간. 내중엔 막 가니깐, 그만 알로(밑으로) 떨어져부런. 오곳 이제 저 ‘경 쫓으지 말아시면은, 애는 살 건디, 그만 춤 이제, 위에 올라간 이제 떨어져서 죽어버렸구 나.’ 해연.

계 집에 와 보니까, 죽지 않고 아들이 와서. 계 냉중에(나중에) 밤에는, 애의 몸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 저 날개, 날개가 돋았다. 그래서 결국은 경(그렇게) 헨, 그 걸 봐 가지고, 아버지가 작두론가 뿔으로(무엇으로) 잘라부러턴 해여. 경(그렇게) 안 해였으면은, 춤 장수가 되었을는지도 모르지.

경헨 그렇게 해서, 그 분이 그 연후에는, 뭐인고, 저 서울 서울 시내 장 안에서 난이 생겨가지고, 난을 수습하지 못 할 때, 결국 그 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각처에

24) 안성 : 남제주군 대정읍 안성리

문방을 향니까 이젠, '제주에 오 뭇이가(오 아무개가) 오면은, 이 난을 춤 평정할 것이다.' 갱(그렇게 해서) 그 분이 가 가지고, 성 안에 가 가지고, 어 이제 그 분은 말을 타고,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나 향면은, 소를 타되 거꾸로 탄 놈이라. 소를 타 가지고, 거꾸로 타 가지고, 소가 앞의(앞에) 닥치면, 소뿔로 해치게끔 향고, 뒤에는 자기가 앉아 가지고 칼질향고, 이제 뭐 향는데, 오찰방이 가 가지고, 그 놈을 결국은 잡았어. 잡자 마자, 잡은 다음에는, 오찰방이 왜냐하면은, 즉시 뛰어들어서, 그 예를 들어, 출입구면은 출입구에서 그 병사들이 지키면은, 지키는 데서 안으로 '파 짱' 들어 갔으면은, 제라향(높은) 벼슬을 얻을 건디. 그렇지 못향고 가서, '정지' 향니깐, 딱 정지해부러다 이겨여. 아 이거 섬에서 난 사람이니깐, 이밖에 이거 '진입'은 했지마는, 포부가 죽다(포부가 작다).' 게서(그래서) 찰방이라 향는 벼슬을 주었다. 찰방이라고 거 그렇지 않고, 지키는 데서 파짱 뛰어들어서 자기가 수습했으니깐, 용기있게 나갔으면은 내중엔 춤 직함을 얻을 건디. 그런 말은 우리가 들은 이야기주. 들은 이야기.

(조사자 : 놀개 풀라부러도 게도 기운은 세났구나양?)

아 기운은 세났다고.

18) 오찰방(3)

제 보 자 : 문상선(남·68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3일

조사장소 : 일과2리 반승이동산 삼방놀이터

요약 : 오찰방 어머니가 오찰방 누이를 배었을 때는 소를 열 마리를 잡아 먹었는데, 오찰방을 가졌을 때는 딸인가 싶어 아홉 마리의 소를 잡아 먹었다. 그래서 오찰방보다는 오찰방 누이가 더 힘이 세었다고 한다. 오찰방이 씨름 대회에서 일등을 해서 오니까, 그 누이가 남자처럼 변장을 해서 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결승에서 결국 오찰방과 오찰방 누이가 씨름을 했는데, 이 시합에서 오찰방 누이가 이겼다고 한다.

(청중 : 우리가 듣기는 오찰방 누이가 더 씨었다는디.)

아 그런 그런 말이 있지. 저 오찰방 누이가, 누이를 이제 유태 가질 때는, 어머니

가 소를 열 마리를 잡아서 먹었고, 그 다음에는 오찰방을 배니깐, 이번도 딸인가 해서, 또 아홉 머리를 잡아 먹었는디, 아 거니까, 나고 보니까, 이번 아들이라. 게서 오찰방이 어디든지 가 가지고 씨름을 해여서 일등을 허니까, 누이가 와가지고, 내가 일등을 했노라고 허니깐, 오찰방 누이, 누님은 아 요놈 어디서 현다고, 내가 간다고. 거 변장해 가 가지고 남자추록 해가지고 일등을 다 아졌는데, 내가 지금 허겠다 해서 나간 것이 누님인디 누님철인지 몰라서. 게서 붙으니까 져거든. 지니까, 아 세상에 나를 이기는 놈이 없는데 하 이렇구나. 냉중에 집이 오고 보니까 “나 이거 느 즉시 나가 가져왔저이” 준 것이 누나가 결국은 일등을 허였어. 그런 말도 있고.

(조사자 : 날개는 왜 잘라브런마썸?)

날개를 왜 잘라?

(조사자 : 예.)

아 그 저 오찰방 날개? 날개를 결국은 계 산에서 파작 뛰여가지고 내리니깐 이제 이렇게 내버리면은 사람이 아이 될 걸로 봐 가지고 그래서 잘라분겨주. 그렇게 놔두면 사람이 아이 될 걸로 봐가지고 결국은 집안에 춤 집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라분겨주. 그렇지 않으면 어디 놀고 어디 뛰고 해가지고 화양에야 가블른지 어디 가블른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라뵈주.

19) 막산이

재 보 자 : 문상선(남·68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3일

조사장소 : 일과2리 반송이동산 삼방놀이터

(조사자 : 막산이란 인물은 어떻게던마썸? 힘 세났던 허드라마는…….)

막산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춤 뛰헌 말 아니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고 뒤희면은, 날에 뒤희 밥을 아마도 한 이십명분은 먹은 모양이라. 식사를. 게서 주인이 이 건, 옛날에 막산이가 종으로 살았젠 했덴. 종으로 살아났는디, 주인이 이제 어데 이제 일을 흥는데, 예 노복. 결국은 일꾼을 한 이십명만 빌어가지고 강 일을 해여서

라 허니깐, 헤어두고, 낮에는 점심을 헨 가고 보니깐, 이십명 인부도 없고 자기 혼자 '쿨쿨' 잠을 자고 있어. 게 음식은 음식을 강 보낸 놈두니, 음식도 다 다 먹어치완 없고. 게서 이제는 화가 나니깐, 주인이 몽둥이로 아마도 매 때렸어. 때려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와버린거지. 와부니깐, 오다가 뒤돌아 사 보니까, 춤 구둑이 그 근처에, 일하는 장소에 구둑이 복허게 나고 잇서. 먼지. 먼지.

(조사자 : 아. 예.)

아 그래서 뒷날은 가고 보니까, 아 그 어마 어마 혼 돌이고, 뭐 현 열 찍시 흘 일을 자기 혼자 그 밥 다 먹고 전부 허여두고 돌아온 거. 그런 말은 들었주마는. 그 다음에 내몰아부니, 쫓아부니까, 막산이라는 이제는 집에 들어오지 못해서 막산이굴에 가서 살면서 소도 잡아먹고 야인생활을 허였다.

(조사자 : 아, 막산이굴마썸?)

막산이가 어떻 죽었던 현 말을 안 들어판마썸?

아 들은 게 없고.

20) 설촌유래(2)

제 보 자 : 문상선(남·68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3일

조사장소 : 일과2리 반송이동산 삼방놀이터

(조사자 : 설동 유래에 대해서 아시면 얘기해 줘서.)

저 촌 내가 확실히 안 봐부니깐, 뭐 제라하게 사실을 말할 수는 없고, 다음엔 그렇다고 거짓말도 아니고, 지나온 유래를 잠깐 들어보면은, 에 서립에 물이 저 좋고, 또 그 당시 일과리에서 이쪽으로 말이나 우마같은 거를 키와가지고 이 목장으로 사용했고, 경허는 동안에 질 처음에 이제 일과리에 사시는, 이제 나는 거기의 후손은 아난디, 여기에 지금 후손이 살고 있는데, 그 하르버지가 사췌(사字) 억자(억字)라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어디 가서 그 그 당시 점을 지니까, 여기 그대로 살면은 에 단명허겠다. 단명허겠다고 허니까, '아 그러면은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어들로 했는고 허면은, 바로 그 당시 이 동네로 온 것이 아니라 종경

목이.

(조사자 : 거기가 어디 마씀?)

종경목이라는 저 대수동 우에 그 종경목이라는 데, 이사를 해서 몇 년을 살다가 결국은 이쪽으로 옮겨왔지. 옮겨온 것이, 갑자년 갑자년 결국은 옮겨왔는데, 갑자년에 여기에 오게 됐는데, 갑자년이 두 가지 지나가지고 금년이 세 가지 넘었어. 이제 세 가지 넘으니깐 이제부터 한 135년 전. 135년 전에 그 하르버지가, 사재 억재 그 하르버지가 처음 여기에 오고, 그 다음에는 어 그 옆에 옆에, 그 또 일파리에 그 하르버지에 육촌 된 분이 와서 살고. 그 다음에 또 일파리에 살단, 우리의 고 조부님된 하르방이 여기왕 살고, 그 다음에는, 에 그 하르버지의 손녀 때 될 때에는, 이제 여기에 김씨분네가 사는데, 신도에서 신도 김씨 하르버지가 이 동네 와서 살고 대충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차차, 아 그 다음에는, 이 재식이네 아시네 하르버지도 마 설동은 아니주마는, 그 후에 와 살았주.

(청중 : 거 마 비둥비둥²⁵⁾ 흐주마)

경해서 그 여러 씨족이 모아가지고 이 동네가 설동이 됐주.

(조사자 : 신도리는 지금 계민 번지를 부여할 때 신도리 몇 번지엔 됩니까?)

아, 예. 신도리.

(조사자 : 완전히 다른 동네구나양?)

완전히 다른 디주.

(청중 : 일파리부터 먼저 설동해신가마씀?)

대정사상²⁶⁾ 상하모리가 결국은 처음으로 설동되고, 읍삼리, 보성, 안성인데. 거기가 설동되고, 그 다음 일파리, 신도 경현 주로 설동된 거주.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영락 뭐 영락리, 우리 일과 2리, 신평. 신평도 일파리에서 떨어진 간간 디주. 웃날 외, 웃날외 허주. 신평도.

21) 동티난다

제 보 자 : 문공진(남·73세)

25) 비둥비둥 : 비슷비슷

26) 대정사상 : 대정교을 역사상

조사일자 : 1997년 8월 3일

조사장소 : 문공진 할아버지 댁(일파리 11번지)

요약 : 옛날에는 집안에 공사가 있을 때 그 공사에 대하여 집안 사람 이외의 친구, 이웃들은 일절 함구하는 풍습이 있었다. 만일 공사에 대하여 가타부타 언급을 하게 되면 동티가 난다 하여 그 말을 한 사람의 신상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지금 내 나이가 73세라. 그 난 우리가 커울 적에 침,이 들은 말인데, 이~뉘, 우리 집안에 전설이랄까? 유래, 유래 들은 말인데 옛날에 이 제주도 이론적으로 당. 요번이 당 문제될 때 당 오백, 절 오백. 제주도에 그 옛날에 그 풍속이 당도 5백개. 절도 5백개가 이 서민보단 미신이 좀, 좀 뉘이가. 산 사람보단 귀신이 씨단 말이지. 미신이 씨어서 집안에도 만약에 이제 이웃 사촌간에도 이 변소를 판다고 해도 동네, 이제 친구가 와서, “아 여기 팔거 아인디, 요쪽에 파야 되는데…….” 그런 말 농담허며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 죽는수도 있고 아픈 수도 이서. 맨날 거기 미신이 씨와가지고 거 토~, 거보고 뉘야 동티라고 허지, 동티 나가지고. 음 (동티난다…) 음 동티났다 해서 굶도 하고 뉘, 점도 주고 뉘, 그렇게 해서 뉘, 사람이 그러지.

보편적으로 이 지방 그야 여기 변소를 만약에 만든다 해도, 이웃 사람이 와서도 가서 이 쳐다보는 것 뿐이지. 그 손을 아니 그러다 하는 걸 알면서도 오늘은 방수가 막았다. 그래서이, 그 뉘, 내가 대답을 안 허여는, 주인이 대답을 안 허여는 그 알 것은 사람이 아파. 그게 그 이, 요 지금은 그런 유래가 서 노니까, 어디 용살 허든지 뉘 허여 이런 성(城)을 말아가지고 허는 목수보다도, 이런 변소를 어디 파든지 해도 이웃사람이 아무 말 안 허여. 가도 영 다 들은 사람덜은 나이 많은 분들은 영, 아! 여기 공사가 허는 구나 뿐이지. 지금 시대는 뉘 거시기 뉘 현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이 있는데, 뉘, 당 5백, 절 5백 해영으네 미신이 아주 침 많았었다.

22) 당 5백 절 5백

제 보 자 : 문공진(남·73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3일

조사장소 : 문공진 할아버지 댁(일과리 11번지)

요약 : 제주에는 예로부터 당 5백, 절 5백이라 하여 미신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화를 부리곤 하였다. 이 때, 제주목사로 부임하게 된 영청목사란 분은 미신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살아온 잡귀들은 영청목사를 해치려 버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청목사가 제주일대를 순회하다 보니, 손 보지 않아 엉망이 된 무덤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영청목사가 자세히 보니 이것은 보통 산이 아닌 듯 하였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 무덤의 풀을 뽑고, 무덤 주위에 산담을 수축해 주었다. 그날 밤 영청목사의 꿈에 그 무덤의 주인이 나타나 잡귀들이 당신을 해치려 하니 빨리 몸을 피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일은 모든 귀신들이 자신의 집으로 퇴물을 받기 위해 가는 날이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배를 타고 떠나라 하였다. 영청목사는 꿈에서 깨어 이것이 보통꿈이 아니라 생각하고, 꿈 속의 산신이 시킨대로 그날 새벽 배를 타고 목포를 향해 떠났다. 온갖 잡귀들이 바다에서 조화를 부리려 하였으나 그 분이 탄 배는 끄떡없었다. 이에 분을 품은 잡귀들은 영청목사의 아들을 해쳤다. 영청목사가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와 부인이 통곡하며 원망하기가 끊이지 않았다. 영청목사는 가만히 있다 얼마 후 며느리와 부인을 불러 큰 대야를 가져오라 한 다음, 거기에 의혈을 뱉어 보도록 시켰다. 그러나, 부인과 며느리는 그러지 못 하였다. 그 때 영청목사가 의혈을 토해 내고는 자식을 잃어서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육지부 내(內)서 목포 연락선을 타가지고, 제주도 요즘 끝오민 목사라고 허지. 제주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제주를 부임받았지. 제주를 이제 오른 시찰하고 제주 돌(島를), 그 만일 도지사 모냐므로. 게서 제주도를 5년이른 5년, 뭐 1년이른 1년. 순회적으로 기간을 뒤 가지고 제주도 그 파견나와서 암행어사 모냐므로 그 지방 답사하는 옛날 풍속이 이었는데.

우리가 듣기는 그 분이 영청, 영청목사²⁷⁾라고 했는디.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며는 영청 목사가 후임으로 그 목사가 들어와 보니까 과거에는 그자, 그 지키는 책임만 해서 그, 달아나 부렸는디. 그 분이 와보니까 제주도 실정이 참 일하는디 지키레 와서 당 5백, 절 5백을 속된 말로 소탕시켜분거라. 이 불필요없는 이 모든 미신을 그러겠다 해서 제거 해 분거지. 없애부런 만들어 부렸는디, 그러서 그 분이 제주 일대 순회를 하면서 거, 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보행할 때니까. 그 지방오면

27) 영천 이형상 목사. 호는 병와. 그가 제주도를 순력하는 모습을 그린 『탐라순력도』가 전한다.

는 그 옛날 말(馬)이란 것이 그 이제, 경마장 가든 그런 말 있지 안 허냐? 그런 말을 타가지고 지방에 오며는, 지방 그 아, 그 제주도민, 제주도 내려오며는…….

제주도 일에 사람들이 하인이라고 옛날에 이서서. 상관이 그 윗사람 몰(馬)이라고 몰. 노벨 잡아서. 요즘은 그 보통으로 이제 관광 부부가 몰을 잡아도 되지마는 옛날은 그 평민(平民)에도 좀, 상인(上人)이라도 내려간 사람(下人)이 거 잡지. 거, 조금 뭐 사람은 흔 자리 맞도 못허여.

쌍놈이라 가지고 옛날 말로, 그 양반의 부름썰 허는 분이지. 일개 부락에 한 사람씩. 거보고 소사(小事)라고, 소사라민 뭐 한문으로는 작을 소자에 쓸 사짜지, 하민(下民)이라고도 허고. 소사라고도 했는데, 지금같이. 부락에 다 있었어요. 뭐 국민 학교 끝으민 옛날말로 이젠 부름썰, 옛날엔 급사라고 허듯이 학교나오민 급사. 옛날 부락에서 급사(給仕)라고 했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뭐, 이거 부락 향약(鄉約)이라 해 가지고. 옛날이 우리 부락이민 향약이라고 해 가지고 부락 자체에서 모든 법 굴이 향약을 만들어요. 만 들어서 향장이라고 그 어느 부락에도, 구장이면 구장이지. 모든 걸 사소헌 것은 법(法)이라 해서, 그 부락에서 모든 침, 책임지는 향장어른인디. 아 죄를 지서도 법이라이. 만약 내가 저랬다면은 거 뭐고, 향장 입(入) 해가지고 산태(사다리)를 해가지고 산태 모르지이. 뭐 이거 흙같은 거 퇴비 날르는, 있잖아 그 사드래라고이, 이 집 짓는데 있잖아이, 이 사다래.

(조사자 : 사다리, 예.)

경허고, 이 지방 옛날 그 산태가 있어요. 사다래지 뭐 사다래. 그것이 집을 짓는데는 사다리라고 허고, 자그마니 한 그내 쯤 허는건 이 드야지 통에다 거름도 내고, 가정용으로 손잡이 다 있고. 들르는 거지, 이게..

(조사자 : 사다리…….)

웅, 사다리디 사다리 종류라. 이 사다리는 올라가는 사다리고 이 집을 지을 때 부루꾸 내는 사다리고. 가정에서 이런 양 쪽에 들어 잡아가지고. 퇴비고 뭐고, 들어 앞 뒤 잡아가지고 이렇게…….

(조사자 : 예.)

너희들 모르지마는 집을 짓는다 해도 흙을 가져갈 때도 이렇게 해서 영 비우고…….

(조사자 : 아.)

음, 그렇게 양 부리 잡아가지고, 앞 뒤에 그래가지고 여기엔 산태라 그러고, 사다리는 올라가는 사다리라고 했지, 그런 걸 사름을 죄인이 이 팔허고 이 다리허고 양 부리에다 묶으고, 이제 그 향장에서 부락 향약으로. 누가 저 그 밑에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이 자네 묶으라고, 묶어서 이젠 향장이 명령허여는. 거기 어, 첨 책임자 밑에 관장이란 사름이. 그 이제 첨 구들에 묶어도 건 법에 안 기대서, 그 부락 향약으로 그렇게 이제 죄를 다시렸는데, 옛날은……. 아 지금은 뭐 아 중요헌 죄를 지어도 사소한 향약의 일이었지.

이제. 부락에… 그렇게 허는 시대(時代)디. 그 영천 목사라는 사름이 제주도로 순회하면서. 뭐 첨 이제, 우린 남군지방 사름이니깐, 뭐 북군에서는 어떤 디를 모르지마는, 우리 남군 관내에서 유래(由來)허는 걸로 봐서는 안덕면 산방산 있지이, 산방산 뒷부락이 그 덕수리여. 덕수리. 덕수리 그, 옛날엔 이런 일주도로란 것이, 길이 뭐 첨 차(車)도 없고 허니까, 아우외진데 그 걸로 한인이 올 무렵일 잡고, 그 저 영천 목사가 우리 부락, 이제 타가지고 이젠 제주일대. 제주일대를 순회허는데 그 목(마을) 입구에 딱 가니까, 그 하인이 말 잡은 사름이,

“하마(下馬)하시오. 목사님”

그 말을 내리란 거라. 하마(下馬)란 건 이제 말이야. 이제 하마하란
“말에서 내리시오.”

그러니 먼 소리냐고? 그저 이쁘라고 끌어가라고. 참, 우리 들은 말인디, 삭 끌으니까 돌이 앞다리가 부서졌어. 말이, 갱 이네. 뭐 해야진디. 전부 다 미신이거든. 미신 이.

근디, 아 그러디, 이젠 거기 부하덜이 한오름에 있지 않허냐? 따라댕기는 순회니까. 근디, 이 영천 목사가 말이 탁 자빠지니까, 그 부하들을 보고, 그 50평쯤 그 주위를 돌담이고 뭐이고 깨끗이 청소허라고. 어떤 그 귀신이 있어가지고 이제이 조화를 헌다고……. 그래, 그 어디라도 깨끗이 청소허라고. 첨 속담으로 개미 하나라도 다 잡기 위해.

거, 일거릴 허다보니 첨, 그 밭담 이제 돌구멍에다 그 농부가 굴밭이 소보래 같다가 비가 오니까, 그 당(堂) 밑에서 그 흙장난이데. 이거 요새 아이들 흙으로, 비가 오니까 흙으로 인형. 그 우리가 그때는 인주라 그래, 인형. 인형을 하나 둘씩 만

들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거 심심하나까, 그 비가 안가니까, 밑에 앉아가지고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굴이 만든거지. 그 돌담 구멍안에다 집어너면서,

“넌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받으라.”

고 입담을 해분거라. 그러니까, 이 미신이란 것은 아무거 올려서 빌어도 된다고 허는 거라 요즘도 요즘 산중에 올라가서,

“내 자식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빌고 혼다. 옛날 풍속은 여기도 뭐냐 허민, 실도 어디 뭐 꿰가지고 우리도 뭐 다 보는 사람이니까 자기 자식 어떻게 좀 그런 의미로 봐서, 그것도 어 그게 속담 입이 당 되가지고 그 흙으로 인형을 만들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를 받으란 거라. 인사를 받으라는데 그 목사는 위치가 그니까 하마를 허며는 인사가 되는 거라, 잘 지나 댕기단 인형미신으로 다리가 부러졌다느니 거시기 속담 말론 그디가 몰 무덤이라. 말이 많이 죽어부니까 거기에 저번에 온 경험있고. 그기가 저 그니까 하마시켜 달라 허니까 안시켰느니, 그전에 그 지나간 전례로 봐서 그 영침 목서의 그분도 공 실어다가 그거게 가서 경험있으니까 하말해져시니 결, 결국에 거기서 인형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 옛날 한디라 해서 그 목서들은 좀 시대풍 뭐서 찬디엔 오냥이라, 삭 해 가리니까 흙으로 붉은 피가 표시났다고, 그것도 그 붉은 혈(血)이, 피가 탁 해그네 떨어졌다고 흘렀다고 그러니. 그렇게 세상이 침, 그렇게 해 놓고, 그 다음은 그 분네가 저 제주시로 그 산업도로 있지 아녀냐. 산업도로 내려온 경마장 어디 부근인가? 그디 한 500고진가 올라 어떻게 되느니. 거기가 ‘너븐팡’이라 해 ‘너븐팡’.

(조사자 : 너븐팡마썸?)

아. 너븐팡이라고 허는 거기가 어, 길 어신 때에 제주시와 우리 대정과 중심지 거기가…….

(조사자 : 중간지?)

응. 그 너븐 팡이란 것이. 그 돌담이 ‘팡’이라고 허는 여기 저 집을 지명 갔다로 다 쉬고 오는 것을 보고, 거보고 저 여기말로 팡이라고 해. 옛날 아 저 너븐팡이라고 허는 게 계행 그 돌로 지나가는 사름이 무거운 짐을 쉬는 자리라. 알고 보면, 여기 우리 해변에 옛날은 허벽에 물을 질어 와가지고 이렇게 물허벅 부리는 것도 이제, 그 허벅 부리는 이제, 그 저기라고 허는 마찬가지고. 거기 그 너븐 팡. 너븐

땅. 거기 지금도 그런 말 허고 있는디 거기로 길어오다가.

그 부근에 그이가 가만히 보니까, 명산(名山)이라고 해저. 옛날엔 아무나 거기다 산을 못쓰거든. 경허는디 산당으로 돌로 크게 왁, 왁, 그러며는 기와집 거, 기와집 풍경이나 와 있는 것이 여기서 산당을 아주 명산으로 좋게 미제 그 두르쳤는디. 그 자리에 나무가 수백년, 벌초를 안 해주니까. 그 조상이 산 아래다 그 속된 말로 여기 그 곳자왈. 여기말로 '곳자왈' 되부렀어. 그 나무가 막 풀이 나가지고, 그분네가 가만 보니까 이것이 보통 일반 평민의 산은 아니거든. 아무래도 좀 이거 이치에 옛날 그 모든 요를 써 있는 걸 봐서는 보통 집안에 산이 안 갈아 뵈어서. 그디 그 부하에 보고 이디 다 깨끗이 허른, 이 나무도 제거해 주고 풀도 캐다 파라. 해가지고 명령을 해가지고 그디 따라간 사람들이 깨끗이 이제 풀을 캔 거라. 나무도 제거해주고, 여기 말로 벌출 해준거지, 산에다. 게네, 내려와서 딱 누우니까 밤에, 밤에 이제 뭐이가 환신이 이제, 백발노장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수백년인가 끌러도, 자기 이제 울타리란 것은 사람이 산 사정은 이것이 울타리고, 어서 묻으며는 산담이 울타리인 모양이라. 자기 몸을 보호해주는…….

자기 울타리를 흔번도 수축해 준 분이 없는디, 당신이 이번 제주도에 부임해가지고, 수백명이 제주도 부임으로 지나가도 자기에 보다 그 울타리를 수축해 준 분이 없는디. 이번에 당신이 해 주니까, 이번에 그 꿈을 값으기 위해, 거 꿈에다 저 제주들 와가지고 당 5백 절 5백 제주도 오도 미신을 다 제주도에 제거했으니까. 이 제주도 일대에 귀신, 모든 배암이고 잡귀가 당신을 이제 모가지를 노령 지금 모여 있다고. 침, 아주 험한 양반이 들어와서 자기를 못살게 굴었다고 해서 미신이 씩워 노니까니, 그분을 이제 죽일라 그랬는디.

옛날은 음력으로 12월 28일인가, 9일. 음력으로 반 그믐, 옛날 음력으로 맹질(明節)했거든. 뺑질을… 12월 그믐에는 이 농장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다 자손네 집이다, 제사 퇴물을 먹러래 다 가불거든. 가쁜 틈 타가지고, 아침 새벽이 아무한테도 안 해서 독선(獨船), 독선해서, 자기 혼자 독선해서 배를 띄워서 남바다 물에서 자기 고향더래 돌아가지 않으니 죽는다고 해서. 쟁 일어나보니 꿈이라. 꿈이니까 도와주는 것이 오다가 벌초허곡 수축해준 그 아주 그 곱게 묻어있는 산에 모든 손 봐준 이 귀신이라. 사름이 귀신이고, 잡귀는 그 뺑 고튼 그, 그런 것이 귀신이나네. 그분이 그렇게 도와준 은혜로 그렇게 산신이 왕으네 말해주나네, 아무리 그래도 산

신이 왕으네 그러는구나. 허나네, 아무말도 안행 이틀날 아침에는 삼대받이 배를 준비해가지고, 삼대받이라며는 이제 책자에도 나오지마는 기가 없으니까, 여기에 초석 짜가지고, 거 왜 있지 안 허냐. 역사에 이런 뉘를 하나도 아니고 세 개를 달아서 세 개. 매에다 바람나민, 영 돌리고 바람으로 돛이 삼대받이라고 세 깎 풍선 달아가지고. 바람, 기민 바람으로 이렇게 허는 거지. 바람오민 영 돌리고, 돛대받이라고 허는 거지. 가만보민 요즘 영화에도 그런 거 나오진 나오지. 중국 골은 디 배는……. 그런 초 골은 거 달아가지고 바람으로 다니는 배, 삼대받이라고 해서 받이라면 보통 배 이름인디 그 세 개, 세 개에 삼대. 세 가지 대에다 그 둘을 단 거지. 그 나이많은 분은 아는데 게 그것을 교통 연락으로 했거든. 옛날은 . 발동기가 없으니까, 배를 지어서 그자 그 바람으로 이제 이용허는 세 개 달리른 삼대받이고 두 개 달리른 이대받이. 계난 바다에 아침 나강 혼저 시나 떠나젠 허는데, 도중에 바다에 절, 있잖아이 그 절이 다 배암이라 배암. 다 대구리가 이렇게 이서. 절고개 바다 뱀이라, 갯 그렇게 그 양반이 도망허니까 초당에 귀신들이 퇴물(?)이라도 먹고 와 보니까 그 소홀해가지고 도망해 부러시니깐 귀신도 이제 바당으로 조차가 보라고 해서 이제 내오니까. 절로 아무리 눈에 그 비추라고 해도 “영웅이라고 한다” 그 원래 그 일반 평민보단 모든 영웅으로 그 들출헌 양반이거든. 그러니 침입을 못헌거라. 그 분에 대해서는 침입 못 허당 버치니까 아까 그 비 모양으로 납바당으로 검은 구름이 올라오더니마는. 천둥, 벼락이 잡아다 천지가 개벽해서 잡아 두드려패도 그 배에는 갖다치지 못했어. 뉘, 아무리해도 그디가…….

그렇게 목포를 부두에 딱 내리니까, 아덜이 딱 단 하나이셨던 모양이라. 자기 마누라하고 아덜. 그 양반을 못잡아먹으니까 단 아덜을 실시(屍)해분 거라. 아들을 죽여부나네, 이젠 영천목서가 목포항에 입항한다 허니까, 우선 반가움보단도, 그 어머니하고 메누리는 부두에 가가지고, 평시골오민 환영할꺼지. 아덜이 탁 죽어노니까 비참해가지고, 늑굴이 제주도에서 원을 살양오지. 그 간에 늑굴이 맹기지 않해서, 늑보다 이상적으로, 그런 침, 부정헌 나쁜일을 악하게 해부니까. 죄로 아들이 죽었다고. 이제, 메느리하고 각시하고, 어머니가 막 통곡을 하면서 늑굴이 맹겨오지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 양반이 워랜 했냐며는 죽은 거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라. 자기 아들이 아니 죽었던 거라. 아 그러니까, 이제 또 어머니하고 메느리가 더 환장할 꺼 아니여. 아니, 아들 죽었는데 그 뒷말을 들어보난, 거 내자식이 아니

라고 딱 입을 꾹었어. 거 내 자식이 아니라고, 죽었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 집 올라가서 사랑방에 앉았는디. 안거리에서는 어머니하고 메느리가 계속, 어머니는 그 각시거든. 계속 통곡하면서 막 울어, 울어도 그 밖거리 영창목서는 한 마니 앉아가지고, 게, 이제 죽은 아덜신디 가 보도 안하고, 가만히 사랑방에 앉아. 더. 저런 양반 어딴냐고 몰아치면서. 게, 보아있다가 말허기를 울만이 다 울었냐고 물은거라. 영창목사가 메느리하고 각시보고,

“다 울었나?”

고 허니까. 다올어서 자식이 죽어서 그렇게 원통되려는 왜고, 와 가지고 이제 며느리보고 여기 우리 세숫대 있잖아이. 세면대. 이 세숫대에 찬물을 떠오라고. 게난 그 시킨거지. 이 영창목사가. 게난 그 물을 떠왔어. 세숫대에 떠오니까 이제 각시보고, 메느리하고 자식이 죽었으니까 외아들이 죽어서 원통해서 울만이 울고 가슴이 맥혔으며는, 그 맥힌 의혈(義血)이라고 해. 그 피를... 그 어떻게 그 소뭇, 그 피를 받까 보라고. 그 피를. 세면끼레. 못 받았다고 그 메느리하고 어머니가. 참, 그 당시에는 무관심하고 칭 해심하여도, 콧 허니까 이만큼 덩어리피가 나왔어. 그러니, 그런 창 대인덜은 벌써 그 죽은, 어머니 그 메느리하고는 침 가슴아파도, 그 큰사람들은 같이 가서 울고 경 안허거든. 남보기에 같이 가사 울어봤자 진심으로 당신이 남보기엔 그래도, 그런 침 도(鳥)에다 그런 목사까지 이제 파견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사서 고생이니 어느 누구든지 자식죽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없거든. 그러나 그 어머니하고 메느리하고 이런 무관심허다 허니 실험을 받아봐서 못 받으니까, 자기는 그 자리에서 그걸 밖은 것이,

“너네가 아뭇 당신네가 아무리 해도 똑같이 아프지 아니헌 사람이 어딴냐!”

해서 그걸 표시해서 그런 훌륭한 분이 계셨다는 옛날 얘기가 이서. 게서 글루제는 이 제주도가 이 당이니, 뭐 절도, 뭐 별로 제한되 안하고, 저 일과리에 요번에 누가 갔다왔단 말, 여기 당이런 헌 당이 이서요, 요번이 저, 그 어떤 할머니 모시고 가본다데 거기 일과(日課) 당(堂).

(조사자 : 예.)

늘레 가보나네, 거 젊은 분이 이제 그 할머니 모셔가지고, 당에 가서 뭐, 어떻게 저 당도 우리가 침, 세상을 날 보니까 이셨는디... 중간에 일본시대에 겪은 사람인디, 거기 군인, 일본 군인들이 와서 해각에다 막 굴도 파고, 바당으로 들어오는 적

을 쓰이기 위해서 그 은신혈 굴을 막 파가지고, 그 작업할 때 걸 철거했어. 그 당
을.. 그래서 뭐 불필요하다고 철거했거든. 철거하는디 그 날도 군인 둘 죽었어요.
우리 알기론 거기서 그 깨끗이. 그 뭐, 일반 우리 이 지방 사람들이 미신으로 뭐
침 느끼는 자리를 일본군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뭐 그 관계가 아닌 말로 군인이
그 현장에서 둘 죽었어요. 게난 그 자리에서 살았어, 우리가. 우리도 일본시대에 마
지막엔 군인 관련인이 된다는 거지, 우리 19에, 스물 때난, 게서 거기서 그 군인을
화장(火葬)시키고 했는데. 그 자리가 이젠 어서져 부렀는다. 해방이 되니 다시 걸
수축한 거라. 이젠 이 지방 사람들이. 옛날부터 내려온 건디 일본시대엔 없었었
지마는 이제 해방이 되니깐, 지방에서 거길, 이제 또, 그 자리에 게서 거기 아무나
관리못해도, 요지금 말로 이 관례의 농민들이 자식이 어떻 좀 아팠던지 가정사로
모든 걸 펜안히 생활해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분들일거라.

일례당이라고 이서. 정월 초 일렛날. 이제 뭐, 어떤 그런 기뻐 일러서 일례당이
라고..... 일회에 한번. 바당에 성의적으로 한다. 그 아무나도 그자 없어도, 그자
그대로 댕겨부는 수가 가끔 있지 않혀냐. 그 당의 책임자야, 이 혼 4~5개의 책
임자가 갱 그분을 예날말로 허른 향반. 신방이야 이 뭐 곳 허는 거고, 어린이 아
프민 강 빌어주곡 허는 신방이 거기 총책임. 갱 그분에신디 가서 이 연령올리고
조식들 이름 올리고, 맨가 마신건가. 우리 가본 일 없지마는, 뭐 부인들은 가지. 가
며는 메 몇 그릇허고, 해와서 돈도 넣지. 순번제로. 그 신방할망이 총 책임 해가지
고, 그 집이 대주민 빌레가민. 대주가 멧살. 아기어머니 멧살, 그 조식이 오형제든,
오형제 다 연령올려. 올리민 그 삶의 그분의 이제, 일례당에다 같이 간 사람도 이
제 절허고, 이 모든 행사에 좋게 입성해서갱. 뭇 근디. 감기고 부스럼지고, 인제 다
그게 윤회가 되니까. 갱, 여기도 절간에도 댕기고, 갱 절간에서도 건 공통이라. 교
회는 안돼. 그 교회 댕기는 사람은 안돼. 거 구분이 틀리니까. 이 절간과 거기는 대
충 끝은 거기로 보는데, 이 우리 부락에도 거기 댕기는 사람이 약 100호민 30명이
되까? 아, 주로 댕기는 사람이 어 열중하는 사람은 상당히 열중해여. 거 일년에 한
두 번, 일년에 한 번쯤 있는가? 게 상달상(上月)이라면 정월을 상달로 보는데, 정
월 초 일렛날을 거기 청신년도의 상달이라 가지고, 성의적으로 가서 이제 다녀오는
디. 여기 보며는 가정에 곤란한 집이나 자식들 뭇헌 집도, 그 나의 형님이지마는
아까 그 저 상점에 거기 큰형인디, 거 우리 형수님은 아주 열중해. 뭐 우리는 조금

무언지 먼 감이 이서가지고 영 보인 거기 매누리를 동네 사름덜이영 가렌 보내는 디, 저 상점에 큰, 우리 큰형수님은 내가 보기에는 참, 저 어딘가 서림에다 절간에 다니다가 거기 현 10년전이 포기해놓고, 거 일례당이라고 헌디는 마침 고요현 때에 자기 깨끗헌 성의적으로 가서 보민 아주 근실헤디. 게네, 그디 우리 조카들이 뭐 죽거나 뭐 허지는 앓혀주게. 그디 큰 조카도 지금 뭐, 여러 별로 많이 나가지고 뭐 지금 큰아덜은 돌아왔지만은 셋아덜은 지금 육지 어디쯤 거디가 어디있고, 셋째 놈은 육군대원이 중령으로 있고, 다 훌륭한 자식덜해도 아 그걸 꼭 그렇게 다른 사람 같으면, 아 그게 벨거 아니라고 허지마는 꼭 형님은 그렇게 허는데 향토지에 향토지에 그디 그 사건허고 다 기입돼 있어.

이제 우리 나이에는 내가 우리 부락에서 불과 3~4명에 들지, 70이상이 마을에 별로 없어요. 집이 상점에 형님이 77세, 이 동네 80년 분이 하나 있고, 85세 난이가 하나 있는데, 나가 네 번젠가 돼. 이 동일리 부락까지 허른 한 10이상 되고, 게서 우리가 커울 때에 옛날은 뭐 좀 우리 학교 나올 때는 제주도도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고, 제주시에 농림학교라고 딱 하나 있었어. 2년 제. 게난, 그 당시에 우리나이 정도는 옛날 보통학교 4년제냐, 일본시대 6년제냐 허거든. 글로 후에다 지금 70 아랫사름은 중학교도 맹겨 가지고 학도병으로 군인가고. 70세 이상은 이제 농촌실정으로 봐서 어디 갈 수가 없거든. 옛날은 우리도 4년제에 들어가서 국민학교, 일본식으로 6년제 댜어.

(조사자 : 어렸을 때 들은 거 마썸?)

헌 내가 국민학교, 일제시대에 열세. 10세에 들어가서 대정국민학교 모슬포 들어가서 17세 나는 해 졸업 말았지이. 16세 겨울에, 게네 17세 봄에 나니까, 그 당시 옛날이라서 육지란 건 다 우리 삼삼뿐이라. 게난, 일본시대도 지리상으로, 지리상으로 창고도 봤는데, 모슬포 항에 놀러갔다가 17세 나던 봄에 옛날 쫄신신고 여기 대정이니까, 큰 '대'자. 적을 '소'자 대소가는 모자쓰고 미명웃(무명웃) 짬은 물 들여서 입고 해가지고, 그대로 부모 모르게 모슬포 항구로 즉각에 갔다가 일본시대니까 군대만이라고 있어요, 군대만이라민 이 경비선 닭은, 군대만을 타가지고 목포로 가봤는데, 그디 갔다 와가지고 17세가서 20세, 3년, 3년 살아가지고 그 당신 남녀간에 20세 밖으로는 늙은 처녀, 총각이라고 장가를 못갔어, 시집도 못가고, 마침 여자는 18세, 19세. 19세 벗어나민 누가 구해가도 안혀여. 옛날은. 나도 딱 19에 결혼해서.

육지 있다 내려와가지고 부모 호출허니까 19에나 스물에 나는 아들이 지금 제주시 있지만 해방동이 지금 53세라, 게 손자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여. 스물일곱난 손자가 열 아홉인가 스물에 낭으네. 네가 열흔서이니까 이들은 현세살, 그도 군인 갔다 와서 스물 일곱에 나니깐 그디 손자가 이제 아들인디 스물일곱, 그아래 딸 손자가 스물일곱. 그 아래 스물 너이고, 막둥이는 대학교 군인갔다왕, 스물하난가. 스물들. 옛날에도 다 경했지게, 뭐 군인도 안가고, 해방되니까. 학교도 못 가고게 여기 농촌 이니까. 그런 시대였는디, 20세에 결혼해서 여기 생활허면서 우리 무모네나 이디 향장 어른네나 배와가지고, 그자 다 옛말 비슷하게 들은 거라. 뭐, 여러 가지 들었지마는 그 중요한 말도 많이 있고, 뭐 옛날에 그런 제주도 이성계 사건 같은 것도 들은 바가 있지마는.

23) 이성계 사건

제 보 자 : 문공진(남·73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3일

조사장소 : 문공진 할아버지 댁(일파리 11번지)

요약 : 옛날 대정고을에 이성계란 분이 살고 있었는데, 내란을 진압하라는 계시를 받고 큰 공을 세웠다고 하는 얘기.

옛날 이성계란 양반이 대정골 출신이라 허는데. 어디 요 부근에 와서 산당에 산에 갔다가. 산신이 나와가지고 이 낭. 이 내 낭을, 당신이 선봉 서가지고 해야 진압한다 해 가지고, 그 분네가 영 못사는 양반인디, 지나가다가 누게 산담안에 누워서니까, 산신이 나와서 네가 선봉을 서라고. 게 그런 양반이 선봉을 서 가지고 그 내란을 진압해서 그, 그런 다 옛날도 이 건 이제와서 나타나는데 게서 그 단신 사람을 죽였다고 현 말을 잊어부니까 총살이 뭐니 거 끊임없는 거라. 죄를 이렇게 이런 마당에나 또는 운동장에 앉으며는 사형이라고 사람죽인 사람이거든. 대정 이원에서도 사형이 나와가지고 심방 모양으로, 그 뿔을 둘러쓰고 죄인을 한 10명쯤 이제 앉혀, 앉히민 요즘 중국 영화에 그러던가, 막 혼돈시켜, 혼돈. 죄인을. 혼돈을

시켜서 춤을춰. 사형자가 막 춤을 추며는 죄인들이 혼돈되거든, 혼돈되면 막 춤추다가 그 칼 잡으민, 칼로 삭 허게 모가지 끊어그네, 그 등판지에 삭삭 썰어안고, 막 썰다가 또 저놈을 탁 치고. 게 사람을 혼돈시켜서 그 모가지……. 건 대정서도 그 나타난 일인 그, 그렇게 죄인을 죽였다 하는……. 이 이제 사름들은 참말 그렇게 해실까 허고, 자식이 아버지죄민 자식이 대행할 수 있었고 옛날은. 또 하나 자미진 옛말 해보까.

(조사자 : 예.)

24) 각시에게는 공개 말라

제 보 자 : 문공진(남·73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3일

조사장소 : 문공진 할아버지 댁(일파리 11번지)

요약 : 예로부터 대사가 있을 때는 자식한테는 귀뜸을 하여도 부인한테는 공개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옛날 어떤 이가 점을 쳐 보니 자신이 내일이면 죽을 운명이었다. 그래서 괴로워 하다가, 문득 검은 독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귀신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을 알게 되었다. 검은 독은 귀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인에게 이르기를 몇 날, 몇 시에 자신을 저승으로 대려 갈 사자가 올 것이니 자신은 독 속에 들어가 숨어 있을 것이므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였다. 부인은 그러마고 대답하였다. 그 날이 되자 남편은 검은 독 속에 들어가 숨어있었다. 이 때, 정말 예쁘게 생긴 젊은 여인이 나타나서 주인을 찾고 있었다. 부인이 누구냐고 묻자, 주인장의 이름을 대며 자신은 그와 인연을 맺은 사람이니 그 사람을 찾아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부인은 문득 화가 치밀어 올라 생각하기를 젊은 여인과 몰래 살림을 차리고 살다, 죽을 때가 되니 자신을 숨겨 달라고 하는 것이 여간 께쩍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자, 부인은 저 검은 독 속에 있으니 만나보라고 말하고 말았다. 그런데 잠시 후에 독 속의 남편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젊은 여인은 저승사자였던 것이다.

이건 이 학생덜이 잘 들어들 말이라. 옛날에 어떤 양반이 젊을 때 장가를 드렸서, 장가를 들어서 참 잘살았지, 그 분도……. 잘 살았는데. 어디가 점을 지니까 아주 사사로운 가정인데 점을 지니까 당신을 소주팔자에다 멧살 나머느 어느날 어느 시간에 죽나고. 그 뭐냐. 소주팔자에다 점을 지니까, 사는 일이 있어야 살아있는 기

분이 없거든. 그러는 것이 돌아온거라 살다보니, 학생들도 시집살이 어디가서 헐거
난 사내라는 남자는 죽을 제는 처라고 허지, 각시보고 말 말라겠어. 옛날 그 보며
는 자기가 죽을 제는 각시보고, 한티는 말 말아야 한다. 자식한티는 말해도. 죽을
띠는. 게 각시란 건 여자는 아무리 사랑하고 자시와도, 자식은 아까워도 거 헤어지
만 남이거든. 게서 일정 걸 참았다가 내일 오후 12시면 당신을 그 시간에 잠안간다
했거든. 귀신이 그러니까 이제 고백을 아닐 헐 수가 없거든, 자기가 그 시간이 되
니까 마누라보고 막 극심하게 말하기를,

“너네 아주버니는 이런…….”

이 지방을 이제, 옛날 이것이 안방이라거든 안방, 지금도 안방이라고 허지만…
… 초가삼간에는 안방, 곡간, 그 쌀 내부는 안방이라고 이서. 거기다 동아리 있지?
동아리이. 통계 여기말로 이제 장도 담아놓고, 지금이야 남아 돌구마는 큰 향아리
아, 향아린다, 검은 향아리라 검은 거, 검은 향아리는 귀신도 모른다고 허지. 거 미
신, 검은 향아리가 안방 곡간에다 있는디, 그 시간 되려는 그 시간만 경과(經過)하
민 살아나, 잠아가는 시간만 벗어나민. 귀신이 심어도 그 시간에만 딱. 쟁이 각시보
고 내가 이 곡간에다 향아리에 다 들어갈 테니까, 나모로 만든 낭바가지 두경을 톱
씩아붙여는 그 시간만 한 20-30분간이며는, 검은 향아리에다 들어앉아서 무이, 그
나무로 만든 낭박이란 것을 톱 두경 달아붙여는 건 귀신도 모르거든, 이추록해서
그 시간만 벗어나민 살아날 사름인데 그걸 각시한테 말해본 거라.

“내가 내일 몇시에 죽게 되니까 거기 들어앉아 있으니까, 벨 사람이 와도 말을
말라.”

는 거지. 귀신이란 건 가장행 오거든. 변색해서. 잡아 갈라며는, 여디즘 전설의 고
향 같은 거 보며는 어, 변신 안해여? 그거 마찬가지로, 그런 전례가 사니까. 그거
다 들은건데, 아! 그시간이 박두해 있으니까, 참~멋쟁이 아주머니가 끝은 연령이라.
연령인데 침, 속담으로 그저 꾸어먹어도 톱 내놓은 멋쟁이. 귀신이거든 귀신.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온 이제 하~ 니게 찾아볼 건데…….”

저가 이제 씨앗으로, 옛날 씨앗 골으민 말 못 골는 통부채도 질투한다고 했거든.
여기 풍속이 남편이 어디가서 각시를 만나민 그 큰각시가 씨앗이 나타나며는 막말
로 통부채, 절간에 있는 통부채 같은 거 질투한다고 허는 의미로, 아 거, 벗기로 치
스민 안 되거든. 아, 씨앗으로 들어 와 가지고. 하, 내가 찾아봐야 될 건디, 여기서도

어서나니까 아, 집이 주인장 만나지가 4~5년 된다고. 아, 그래서 우리 거 방 와 지나 찾아보게 해서 험다고. 남저나 다른 사람이민 말 안허는디 아, 씨앗이렌 허니까 이 여자가 꼭 배설이 벗어져본 거라. 이 나덜 놈, 어디가서 멧쟁이 마누라 해가지고 지금코지 속 영 살다가, 죽을 때 되니까 자기보고 조금 곱져 달라고. 아 다 믿게 말하니까 살만헌 지가 4~5년 되고, 아, 이지방 오니까 찾아본다고. 거 씨앗이란 말에 큰 각시는,

‘예라, 이 나덜놈의 조석, 이건 여자를 숨켜 이제 첩으로 들여 살면서…….’

“아! 오늘 나보고 저 안방 동아리에 있으니까, 모음대로 안나가렌.”

갱이네 아, 그만 명령 해 부니까 말 안해시른 모르거든. 검은 향아리니까. 안방에 있는 툽 안에 동아리안에 있다고 허니까 삭 들어가난 이제 간데 없어. 여자가 갱, 주인되는 아줌마가 이제 들어가서 동아릴 들여 보니까 벌써 혼 빼분 거라, 벌써 죽은거라, 혼을 빼가부렀어. 그 시간에, 게 그 말 해부니까, 다른 남자나 이신 걸로 변신히민 안 되어. 경 허나네, 집이 그 씨앗으로 들어가네 벌써 혼 빼어부렀지. 그니까 거, 상당히 오래된 말인디, 죽을제는 마누라한테 절대 말허지 말라는 거라. 각시헌티는……. 허허, 그니 그런걸로 이거,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말이라. 어떤 법에 현재도 그래요. 우리가 현재도 법에 걸러진 일이 있으므는 자식이나 헌티는 말 해도, 각시헌틴 말 말랜. 아맹해도 여자란 것이, 이 마음이 약하고, 거 이런 질투심이 있거든, 허허. 갱 이제도 법에 중요한 일에는 참 조식 헌티는 말해도 마누라 헌티는 공개(公開)말라 해서.

25) 제사는 지내야

제 보 자 : 문태언(남·80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3일

조사장소 : 문태언 할아버지 댁(일과리 152번지)

사계리에서 지네 동네 사람이, 이제는 흥거니와, 옛날엔 이 조팍을 거심조팍이라고 해여. 에 마(장마) 넘어가지고 조를 흥면은 검질(검) 안 매가지고서 흥는 그 조가 잇는데 거 그 거시름 조팍을 흥래 갈라고 흥면은 볏지 전에 가야 헌단 말이여.

몰라볼민 이진 안 웨는 거니까, 초2물 때 강 갈아가지고 블래?? 씨 때서 끌려야 한다근 해서 붉지 전의 연장을 지고 올렐(올래를)²⁸⁾ 나오니까니, 올래 자기 앞의다가 남즈는 청소년이요, 늙은 할망하고 앞의 걸으면서 청소년자가 늙은 할망에게 아주 그 창 칼 들이면서,

“가!”

이러니까. 연장을 정 가면서 괴씸하다고 말이여. 저 청소년자가 야 늙은 할망에게 저렇게 장난을 하고 하니까니, 내가 비지란이(부지런히) 가서 ‘이제 저 사름 이제 뿔이엔 골아야 쓰것다.’ 험난, 만날 소 이끄고 연장 지고 가봐도 비지란이 가 봐도 그 사람들이 그만뻬끼 더 스이가 뿔댄 말이여.

(조사자 : 예.)

가다가 질 동녘(길 동쪽) 밧드레 기여들어. 어 이 어떠한 질동녘 밧드레 기여들은 고 험난, 보니 그 밧 서우녘 구석에다가 쌍묘산이 잇서. 그 안트레 기여든댄 말이여. 아 이제는 연장을 부리고 가 보자고 말이여. 가보니까니 아무 것도 없어요. 이래서 고약하다곤 해서 그날 밧디 가가지고 농사헨 오고 그 산은 동네 사름네 산이라.

(조사자 : 으응.)

자기 동네사름 산이라. 와 가가지고서 밧인 가 가지고서,

“요 밧디 산 쌍묘산 거 누구네 산이냐?”하니까니,

“거 우리 산입니다.”고 험난,

“거 자기네 게 밧 대나 웨느냐?”험난,

“우리 중조가 이제 중조네 양분입니다.”고.

“젠디 그러면, 하르방은 어느 때 돌아가고 할망은 어느 때 돌아갔느냐?”

이러니까니,

“하르방은 청소년인 때 돌아갔고, 할망은 아주 늙어가지고서 돌아가수다.”고.

게니 게나네,

“제산(제사는) 어느 제(때)냐?”험난,

“어제 모셔수다.”

그걸로 봐서, 그 이정생이란 사름은 워낙 그 방면의 푸양 혼 사름이랴는데, 확실히 이제 부모 초상(조상)이 져때는 오는 거이다. 져때는 오는 거이다 말이여.

28) 올래 :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골목.

(조사자 : 부모 초상이 온다?)

예.

(조사자 : 재난 시계 맹절은 꼭 해야 되는 거구나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청취불명> 이리지마는, 반드시 오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지. 내 눈으로 못 본다 홀지라도. 생인(生人)의 눈과 귀신의 몸은 서로 갈리게 되기 땀새 눈으로 못 보는 건 사실이주.

26) 무남밭 이좌수

제 보 자 : 문태언(남·80세)

조사일자 : 1997년 8월 3일

조사장소 : 문태언 할아버지 댁(일파리 152번지)

(조사자 : 근디 그런 말들은 다른 디서도 좀 들은 바는 이신디예 저 중문엔 보든 중문 그 뭇니까 이좌수랜 흥든가…….)

아, 무남밭디 이좌수, 무남밭.

(조사자 : 예. 그 분도 갹 헛댄 헛디다양?)

그 분은 예 무남밭 이좌수가 예- 약 이제 밤이다가 뉘서 보니까니 초저녁이 든 풍흔 디다가 몰 타가지고서 올래 안트레 들어노는 걸 보고 몰 방울 소릴 보니까니, 원성방 이제 몰 방울 소리라. 원성방이란 사름은 죽엇는디, 어째서 소리가 나고. 이래서 창 앞의 오라네 툇 흥게 몰을 느리고,

“아, 이좌수님, 잡니까?”

이러니까니,

“거 누구니?”

이러니까니,

“저 원성방입니다.”

“어찌 왔는고? 자긴 자넨 죽엇다 흥는디, 저승을 갖는디 어찌 왔는고?”

이러니까,

“이 저가 예 제스라서 이제 제를 보러 왔수다.”

“근데 그러니 어째서 나신디 왔는고?”

이러니까니,

“내가 살아생신 적이 우리 밧디 밀을 갈안 놔 두니까니 남의 불이 들어서 밀을 먹어버려수다.”고. “그러니 저가 밀을 받았습시다.”고.

“받으니까니, 저승을 가고 보니까니 그 밀을 밀 먹은 것을 받아서 그러니까니, 아니 받을 것을 받았대곤 해서 그것을 꼭 물어두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가 이래 저래 노는데, 아 이제 내가 옛날 가분 잘지라도(者日지라도) 이좌수님이 우리 아들 들 불러다서 사실말 굴아가지고 그 사름에게 꼭 그 밀 먹은 밀을 이제 꼭 받은 것을 물어주도록히 이래서 왔습시다.”고.

“우리 아들들이 이좌수 말은 잘 들을테니까니 그래서 와 가지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러니까니,

“아, 그러냐?”고 말이여.

“그러면, 그리 흥겠다.”고. 이래서 이젠 부탁합니다곤해서 가 버린 일이 잇섯는데, 또 뒷 해는 다시 또 왔어.

(조사자 : 누게가마썸?)

이제 원성방이.

(조사자 : 예.)

누언 자는 디다가 또 몰 타고 와서,

“이좌수님, 잡니까?”이러니까니,

“거 누구냐?” 흥니까니,

“원성방입니다.”

“어찌 왔는고?” 이러니까니,

“고마운 말씀을 흘랴곤 해서 이제 왔습시다.”

이러니까니,

“무슨 고마운 말이 잇스겠냐?”고.

“우리 아들들에게 사실말 곡속(곡식)을 이제 갚아주라고 갚아드리게 혼 말을 춤 이좌수님에게 굴으니 우리 아들들 불러다와서 곡속을 물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들이 물엇습시다.”고. “무니까니 지금은 저가 저승을 들어가되 제 자리에 앓고 있

습니다.” 이러니,

“제 자리에 앉았다니까니, 저 계난 저승을 가서 뭐 어떻 혼 자리에 앉고 잇섯느냐?”

“호적을 츠지하고 잇섯습니다.”

아, 이런덴 말이여.

“그러면 호적을 츠지하고 하니까니, 그러면 내 호적을 견어보라고.” 말이여. “언제든 내가 저승을 갈 거냐?”

아, 이러니까니, 아 원성방이,

“그러면 이번 가 가지고서 저가 견어봐서 와 가지고 재차 말을 흥겡습니다.”

이젠 부탁한다고 해네, 물 타고 나갔다가, 또 후녕 그날 당하니까니, 또 와가지 구서,

“저 와수다.”하니까니,

“어찌 왔는고?”하니까니,

“부탁혼 말을 이제 홀라곤 해서 왔습니다.”이러니까니,

“으음, 어떻게 됐느냐?”하니까니,

“어느 돌 어느 날 어느 시에는 이제 이좌수님이 저승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니,

“그러거든 그런 악크런(악한) 채시(차사)를 보내질 말고 순흔 채시를 보내 가지고 허고 원만하면 저 사람이라도 오라서 돌아가자”

그러니까니,

“되도록이면 그리 흥겡습니다만은 그것이 잘 마음대로 되질 안 합니다.”

이러니, 영 하니,

“나 갑니다”

영만 해버런. 이좌수님이 꼭 그말을 들엇서. 그 말을 들어가지고서 그 날이 당하니까니 자손들 보고 영 어디 드릿बाट디? 가지 말라고 말이여. 가지 말랜 이제 양으로 목욕 다 흥고, 의복 다 입고 가만히 해서 좀 자는 거추룩 죽어부렀지.

(조사자 : 존손들한테 말 안허고)

존손들이 이제 이제 말은 했지. ‘어디 가지 말라’고. ‘내가 어느 시 되민 내가 돌아간다.’ 그러나 사람은 에- 이 돌아가는 시가 언제냐 흥면은 사람은 난 시에 돌아

日果里 學術調查報告

가요. 어떤 사름이든지 대부분 난 시에 돌아가요. 난 시에. 그러나 조금 유식한 사름들은 대략 내가 어느 시에 돌아간단 말을 안단 말이여.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그 시간이 당해가면 어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여. 유식 안 한 사름들은 그걸 이제 참고를 안 하지마는 유식한 사름들은 대략적으로 그걸 알거든.

(조사자 : 거 밤중에 난 사름들은?)

밤중에 나도 에 사람이 그러면 똑 밤중에 돌아가요.

(조사자 : 경 허당 보른 즈식 손손들하고 줄당 보면은 못 만났 가지 안 험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란 것이 한 시간이라도 세 가지에 번역이 되가지고서 초 중 말 이러는데, 사람이 세상 나가지구서 어 한 시간에 남지마는 세 가지로 해서 초에 난 사람이 아주 뜰리고 중에 난 사람이 뜰리고 말에 난 사람이 뜰려 스주팔자가.

(조사자 : 경허난 나도 스주팔자 경 보명 홀 때에 처음에 믿지 안해십주게. 왜냐 하면은 곶은 날 곶은…….)

(조사자 : 악헌 채시를 보내지말고 순헌 채시를 보내달라. 웬만하면 당신이 와 달라. 현데 원성방이 채시도 아닌디 와집니까?)

그러니 그것은 이좌수님이 그자 그 즈갯으로 친헌 사이니까니 그런 말도 혼 거지. 웬만헌건 자기가 와서 나를 돌아가라. 그러나 악크런 채시랑 보내지 말라고,

(조사자 : 사름하고 귀신이 경 틀리는데 사름이 시꺼하면은 귀신이 와서 곶지 만나진다?)

예. 그러나 그 문안밭 이좌수란 사름은 그 어른은 보통이 벗은 이여.

(조사자 : 예)

보통이 벗은(넘은). 이 화순 서쪽에다가 구계곶²⁹⁾이라고 허는데,

(조사자 : 무신 거마씨?)

구계곶이라고 허는 곳이 있어 곶.

(조사자 : 아.)

화순 서편이. 거기다가 언제든지 여회(여우)가 난단 말이여. 여회. 여회가 나가지고 허는데, 이이가 향교 출입을 해서 이제는 뭐 그렇게 밤이는 잘 안 하지마는 이제 會(會)를 보다가 보면 밤중에도 돼지. 그래서 이좌수가 몰 탕 가 가지구서 구계곶들로 넘어갈라고 허면은 이제 새 질을 뺏지만 옛날은 구계곶들로 넘어 가볼려면

29) 구계곶 : 지명

이놈의 여회가 약 이제 이좌수님하고 혼디 가겟다고 막 그런댄 말이여. 그런데 흐루는 '이놈의 여회를 잡아야 쓰겟다' 해가지고 향교에 會(會) 보래 오면서 오래 옛날 행착은 교복(도포)을 입언 땡것어요. 그런 덴 데 널작을 이제 일부러 두꺼운 널작을 이제 등에다가 진 걸로 해가지고 하고, 총베를 꺾고 해가지고 왔어. 와서 會(會) 판 가다가 구제곳을 탁 당히니까,

“하이구, 나도 이좌수님하고 가쿠다. 가쿠다”

하도 헨댄 말이여. 여즈가 나와서.

(조사자 : 그런 것이 여회구나!)

거 여회주게. 여즈로 변색해 가지고 이랬는디 혼 번은 영 배려 보니까니, 아 이제 콜라 박새기에 '복복복' 굵다가 대가리에 툇 하게 쓰물려면(쓰면은) 여회가 되고. 또 경 안 흐민 이제 또 판찍힌 고냉이가 돼고.

(조사자 : 무신 무시거에 어떻 흐단마썸?)

콜라 박새기에.

(조사자 : 콜라 박새기에.)

물 숭가락으로 '복복' 굵다가 대가리에 툇 쓰물허면(쓰면은) 여회가 돼분단 말이여.

(조사자 : 아아.)

경 안 행 또 거시기 흐물려면은 고냉이가 돼고, 아 이런단 말이여. '아 요것이 여회로구나' 해네, 밤중에 가는디다가 물에 돌아져고,

“아 이좌수님 나도 가쿠다. 가쿠다.”

하고 해 간댄 말이여.

“게민 올르라.”

올라서 등따리다가 이디 도복을 흐여 불카부맨 널작을 미리 가정 가 가지고 딱 등에 지고 약 이제 그 여회가 오르니까니 총베로다가 줄끈 졸라맷단 말이여.

(조사자 : 아, 예.)

(조사자 : 게 널판에 영 묶엉 그 다음엔 어떻 돼수과?)

그제는 딱 하게 떨어지지 못하게서리 해 가니까니, 아 이거 제 발로다가 묶어가니까니, 이 허리로 이제 딱 하게 존등더레 총베를 묶어가니까니, 요 놈이 이제 느리겟다는 거란 말이여. 안 된다고 말이여. 총베로 시딱하게 묶엉 가서 물을 일시에 다올려 가지고서 간 해 갈 때 등을 '박박박박' 발로 굶어보젠 해도 뭐 제가 뭐 널작

올 여 해 노니까니, 굽을 수가 이셔야지. 게서 마당에 가 가지구서 개가 쌍개를 질르니까니, 아 이제 간 개를 불린 오니까니, 마당드레 탁 클러 노니까 개가 탁 물어 대끼니까니 뭐 크나컨 풀리 영 이만한 습이주게.

(조사자 : 으음.)

아 습.

(조사자 : 여우가?)

여우가. 그 여우가 그 저 습이 백 년 돼물려면은(되면) 여호가 된다는 거라. 경 풀리 영 해가지고. 그래서 문남밭 이좌수가 구제곳 여회를 잡앗단 말이여. 그이는 아주 보통 벗은 이여.

(조사자 : 사름인디, 여회를 보고, 딱 아 여자를 딱 보고 요것이 여회구나 혼 것을 딱 눈에 보였구나예.)

예. 경 헉니까니, 예 그이는 보통 벗은 이고 그이가 우리 고조시조여.

(조사자 : 아, 예.)

예 저 중문이 알침이라곤 해서 내가 문남밭디 자손이여. 그이는 그래서 죽어서도 나왔디 묻었는데 그 으름 나물려면 학질병 걸린 사름은 거기 가 가지고 그 무덤 즈곳 디 강 누물려면은 학질이 떨어진다는 거라.

(조사자 : 아.)

이제도.

(조사자 : 무덤이 어디 신고양?)

중문이.

그이가 원심(원체) 머리가 영리하고 혼 이여. 우리 대정 행교에다가 옛날은 대정 사름이 훈장을 못해봤서요. 예 이저 북군 사름덜만 와 가지고 혼덴 말이여. 그래 대정에 그만한 즈격이 없다는 거여. 그니 훈장 해 가지고 도훈장을 해서 아마 요즘이 면은 그 흑교라노니까니 그 이제 제즈들을 그 글 익으레 가면은 다 7르친다 말이여. 그래서 훈장은 하루라도 그디 가가지고 이부자리 정 가서 늣곡 해 가지고서 열마를 받을 철이냐니까니, 백미 두 웨(升) 가뜩 하나. 월급이란 게 흐루 그거라.

(조사자 : 으음.)

이제 그걸 먹고 살면서 그 행교를 직하고(지키고) 그 공자를 모시고 이제 제즈

들에게 약 이제 글 읽고 글을 가르치던 말이여. 어 이러는데, 이제 ‘양오랭이’ ‘양오랭이’ 하는 사름이 아마 어디 저 <칭취불명> 사는 사름이라. 워낙 독하고 아주 악 크런 사름이 대정향교에 와 가지고서 도훈장질 혼단 말이여. 그러니까니 일반 민 중얼이 다 미워혼던 말이여. 미워하나마 해 볼래기 없단 말이여. 거 이제 하니까니 대정에서는 이제 혼장 나오질 안 하고 이제 하니까니 속전을 지날라곤 흘려면은 에 대훼(大會)를 열려. 향년. 이제 우린 15일날 7월 보름날 대훼 열려 가지고 제관 들한테 게서 속전을 지낼라곤 하니까니 대훼를 열려 가지고 제관을 이제 뽑게 됐는데. 하 거 양오랭이 미와서 윈 속전 혼다고 영 허명 하니까 문남밭 이좌수가 하는 말이, 그때는 그때 시절엔 대축(大祝)도 상당히 어려와. 대축이 상당히 어려와 가지구서 뭐 집례(執禮)랑 여간해 놓고. 집례도 윈 상당히 어려워 아무나 못 하는 거란 말이여. 대축도 어려워가지구서 대축도 아주 집안이 깨끗한다. 내외가. 내외가 깨끗한 집이 아주 일등 가는 양반. 이래가지구 학식 좋고 이런 사름으로만 대축을 하게 됐는데. 문남밭 이좌수가 문남밭 이좌수가 하는 말이,

“나를 대축을 시켜 주물려면은 저 양오랭이 냉기기는 문제가 시면 냉기겠다.”

아, 그러니까니,

“그러라구. 그러라구.”

이제 대축을 약 이제 문안밭이 이좌수 이제 시겟단 말이여. 시기니까 이제는 산 이 가물을 때라서, 옛날은.³⁰⁾

30) 이하 녹음상태가 좋지 못하여 재생 불가능함. 이 유형의 설화는 『제주설화집성(1)』(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5)를 비롯 여러 이본이 소개된 바 있다.

信 仰

목 차

- I. 개관
- II. 공인종교
 - 1. 불교
 - 2. 기독교
- III. 민간신앙
 - 1. 유교식 마을제
 - 2. 당신앙
 - 3. 가신신앙

I. 개 관

일파리는 일과1리와 일과2리로 나뉘어 있다. 과거에는 1리, 2리 모두 일파리로 묶여 있었으며, '날외'라 통칭되었다. 본래 일파리의 중심은 일과1리로서 설촌된 지 400여년이나 되는 유서깊은 마을이며,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요즘도 향교를 왕래하며 유교를 숭상한다는 '유도회'라는 모임이 마을 안에 존재한다.

일파리의 공인종교 기관으로는 불교 사찰과 기독교 교회가 있다. 불교 사찰로는 대원사가 있다. 대원사는 일제시대에 미신타파 정책으로 할망당에 다닐 수 없게 된 여성들을 사찰로 끌어들었다. 기독교 교회인 서림교회는 일과2리에 있으며, 대부분 일과2리 주민들을 신자로 삼고 있다. 일과1리 주민들 가운데는 교회 신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 부분에서는 일과1리와 일과2리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과2리 주민들 가운데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과1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할망당과 절간 양쪽에 다닌다. 이는 일파리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동일한 신앙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파리의 민간신앙으로는 여느 마을처럼 어느 남성 중심의 마을 포제와 여성 중

심의 할망당 신앙으로 나뉘어 있다. 마을 포제는 그만 둔 지 63년이나 되어, 거의 그 흔적이 사라졌다. 당신앙 또한 매인 심방이 없어서 점차 약화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할망당은 여전히 신성시되고 있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반드시 제물을 준비하여 당을 찾아 한 해의 운수를 비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녀자들이 많다. 이는 민간신앙이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증거이다.

II. 공인종교

1. 불교

1) 명칭 : 大圓寺(西林寺→圓閣寺→大圓寺)

2) 종파 : 一鵬 禪敎宗

3) 위치 : 일과리 대수동 서림수원지 앞

4) 건물 : 대웅전, 객실.

그밖에 스님이 거처하는 집 한 채가 있다. 대원사의 전체 면적은 약 500평이고, 대웅전만은 약 50평이다. 대웅전은 김주식이라는 호남 출신 목수가 지었다고 하는데, 그 건축기법은 백제건축의 전통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웅전 내부구조는 상단, 중단, 하단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은 상단으로서 관세음보살, 석사모니,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다. 그 왼쪽은 중단으로 神中壇이라 하여 칠성, 천왕, 산신 등 여러 신들을 모신다. 상단의 오른쪽은 하단으로 죽은 영혼 즉 孤魂을 모시고 있다.

5) 연혁 : 이 곳에는 고려시대에 창건된 서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1702년(조선 숙종 28)에 제주 목사 이형상에 의해 소실된 뒤 200여년 동안 폐허로 있었다. 1926년 대원선사의 원력으로 불사를 창건하고, 서림사라 칭하였다. 1930년 부만행화 여사의 공덕으로 대웅전 및 객실 등을 건립하여 원각사라 개칭하였다. 1964년에는 달수스님(현 주지)이 신도들의 협조를 얻어 대웅전 및 조왕단을 증축하고 대원스님을 기려 대원사라 개칭하였다. 1981년에는 신도의 동참으로 객실을 옮겨 짓고, 일과리 1374번지 대지 246평을 매입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창건주는 大虛 金大圓 大禪師이고, 공덕주는 청신녀 부만행화 화규이다.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의 흔적은 현재 대원사 뒤쪽 농토

에 몇 개의 주춧돌로 남아 있을 뿐이다.

6) 주지 : 박달수 스님.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를 거쳐 대원사에 정착한 이다. 佛名은 道淵이고, 堂號는 曉醒이다.



대원사 대웅전

7) 신자 : 신도 수는 500여명으로, 대부분 대정

읍 지역 사람들이다. 제주시나 그 밖의 지방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더러 있다. 또한 신도들은 이주를 하거나 시집을 간 뒤에도 고향절이라 하여 여전히 이 곳을 찾고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다.

8) 법회일

① 정기 법회일 : 음력 매월 24일(관음제일)

② 지정 법회일 : 음력 1월 7일·15일, 2월 15일, 4월 8일, 7월 7일·15일, 12월 8일(성도제일)

9) 할망당과의 관계 : 예전에는 신도들이 할망당에 주로 다녔으나, 일제시대부터 절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한국의 불교가 대체로 토속신앙을 융합하면서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는 바, 대원사 또한 불전 내에 신중단이라고 하여 여러 무속신들을 함께 모시고 있다. 그러나, 일파리 대부분의 부녀자들은 할망당과 절에 동시에 다니고 있으며, 여전히 할망당을 신성시하고 있다. 이로 보아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기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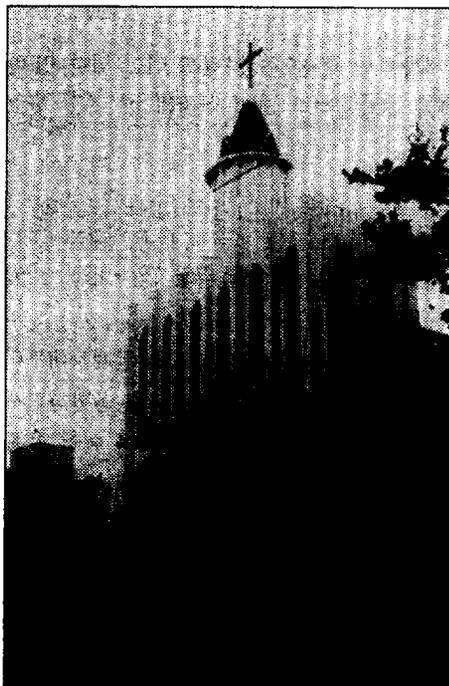
1) 명칭 :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림교회

2) 위치 : 일과2리

3) 건물 : 예배당 1동, 사택 1동

4) 연혁 : 1965년 12월 17일 모슬포교회에 출석하던 이 마을 교인 25인이 서림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결성하고 제주노회에 교회설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뒤 이성효씨 집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하였으며, 1966년 6월 5일에는 예배당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초대 목사로 우성대 목사가 설교목사로 부임하였고, 1979년 3월 9일 예배당 헌당이 증축되었다. 1987년 8월에는 별관을 신축하였다. 1994년 4월에는 최대욱 목사가 부임하여 현재까지 교회를 맡고 있다.

5) 교인 현황 : 어린이 25명, 중·고등학생 10명, 청년층 15명, 장년층 이상 45명으로 약 100여명에 달한다. 평균연령은 40~50대로서 대부분 일과 2리 주민들이다. 그외 모슬포, 영락리, 통일2리 주민들도 더러 있다.



서림교회

6) 대표자 : 최대욱 목사

7) 운영 : 교인들의 헌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자립교회이다.

8) 주민들과의 관계 : 일과2리에 위치한 서림교회는 1960년대 들어 설립되었다. 일과리는 광복 이후에 1리와 2리로 분할되었고, 설촌 당시의 중심지는 일과1리였다. 또한 일과리는 예로부터 유교적 전통이 강한 마을이었다. 현재 일과1리 주민들은 거의 서림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부녀자들은 대부분 할망당을 찾거나 절에 다니고 있다. 남성들은 유교적 전통의식이 강하여 어느 쪽도 택하지 않고 오직 조상만 위할 뿐이다. 일과2리 주민들은 상당수가 서림교회를 찾고 있어서 1리와는 다른 향상을 보인다. 그런데, 일과2리 주민들 가운데 교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역시 일과1리 사람들처럼 할당당과 절을 찾고 있다.

III. 민간신앙

1. 유교식 마을제

유교식 마을제는 향교의 釋奠祭를 기본 틀로 하는 유교식 의례 방식에 따라 거행된다. 남성들에 의해 관리되고 남성 유지들이 제관이 되어 거행하는 의례이다. 이 마을에서 행했던 유교식 마을제는 醮祭와 別祭이다. 포제는 1934년까지 행하였으나, 현재는 지내지 않고 있다. 별제는 1961년 이 마을 소들이 폐죽음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大祭라 하여 지낸 적이 있다. 그 이후에는 마을제를 지낸 적이 없다고 한다.

1) 醮祭

1934년까지 매년마다 지내오던 포제는 일제의 강력한 탄압과 마을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포제를 지낸 지 6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포제에 썼던 笏記나 祝文도 남아 있지 않다. 제관을 맡았던 사람 중에 생존해 있는 이도 없다. 다만, 대대로 제관을 맡았던 집안의 후손을 통해 포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제보자는 현재 대정향교에 다니는 유생으로 제례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1) 祭名 : 農醮祭

(2) 祭神 : 里醮之神・海得之神. 이 두 신의 職能은 각기 다르다. 里醮之神은 토지를 관장하는 신으로 마을의 평안과 그 해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다. 海得之神은 바다에서 나는 각종 해산물, 어류 등의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이다. 두 신은 각기 다른 제단에 모시나, 그 제물은 같다. 그러나, 里醮之神에 대한 제사를 먼저 모시는 것으로 보아 海得之神보다 里醮之神을 상위신으로 관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祭日 : 제일은 봄과 여름 농사를 끝마치고 난 뒤인 음력 7월 초순 경이다.

그러나, 제일로 정확히 정된 날짜는 없다. 만약 마을에 부정한 일이나 장사가 나면, 일주일을 연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일을 정할 때는 마을의 여러가지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다고 한다.

(4) 祭費 : 마을 공동기금으로 충당하였다. 마을의 10~15 가구를 1개반으로 편성하여 일정 금액을 부담시켜 마련했다고 한다. 공동기금의 많은 액수가 포제비로 지출되었다고 한다.

(5) 祭服 : 청의를 입고 행전을 치고 유건을 쓰고 제를 지냈다. 제복은 제관의 집에서 각각 마련하였으며, 버리지 않고 두었다가 다시 제관이 되었을 때도 입는다.

(6) 祭器 : 마을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용하기 위해 마련해 둔 마을 공동 그릇을 빌어서 사용했다. 이러한 그릇은 몇몇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젯군'에서 관리한다.

(7) 祭場 : 산은 마소를 많이 길러 청결하지 못하다 하여 바닷가에서 지냈다고 한다. 바닷가는 깨끗한 곳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제장은 '연대앞' 혹은 '빌레왓'이라고 하는데, 제물을 진설할 수 있는 평평한 바위가 널리 붙어 있는 곳이다. 할망당에서 서쪽으로 약 200m 떨어져 있고, 제단은 평평한 '빌레'를 찾아 바닷물로 깨끗이 씻어서 마련하였다. 상은 따로 마련하지 않으며 '빌레' 위에 그대로 제물을 진설하였다고 한다.

(8) 행제과정



포제터

① 마을총회

㉠ 마을 정기총회 : 정월에 열어 마을의 반 편성 및 마을 공동기금 액을 결정했다.

㉡ 포제를 위한 총회 : 봄 농사와 여름 농사를 다 지어 음력 7월 초순

경이 되면 이장이 포제를 지내기 위한 마을 총회를 주최한다. 총회에서는 제일, 제비, 제관, 제청 등 포제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 ㉞ 연락상황 : 마을총회 및 여러가지 마을에 큰 일이 있을 경우, 그 연락은 '소사'라는 마을 하인이 담당한다. 과거 대부분의 班鄕인 경우는 대부분 이와 같은 마을의 잡일을 하는 하인을 두었는데, 이 마을에서도 한 명의 하인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 하인의 샴으로는 여름철인 경우는 걸보리 한 말(4되), 가을철인 경우는 조 한 말(4되)을 마을의 각 호마다 모아서 지불했다고 한다.
- ㉟ 참가자 : 포제를 위한 총회에는 제례법을 잘 아는 남성들이 주로 참석하였으며, 여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② 제관

- ㊱ 제관자격 : 제례법을 잘 알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어야 하며, 굿은 일을 당하거나 상이 난 집안의 사람은 제관이 될 수 없다. 보통 연령층은 40-50대의 남성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 ㊲ 합숙 : 선출된 제관은 향사에서 7일간 합숙을 하면서 몸을 깨끗이 하고, 더러운 것을 보지 않는 등 정성을 했다. 합숙기간 동안은 한담을 즐기거나, 말은 직책에 대한 준비를 하며, 나이가 많고 예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제관을 가르치기도 한다.

㉞ 제관의 종류

初獻官 : 첫째 헌관으로서 맨 처음 잔을 올림

亞獻官 : 둘째 헌관으로서 두번째로 잔을 올림

終獻官 : 셋째 헌관으로서 세번째로 잔을 올림

大 祝 : 축문을 고하는 사람

執 禮 : 홀기를 부르며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

謁 者 : 집례가 부르는 홀기에 따라 헌관을 인도하는 사람

都預羞 : 집례가 부를 홀기를 쓰는 사람

贊 者 : 집례가 부르는 홀기에 보조하여 홀을 부르는 사람

贊 人 : 집례와 같이 서서 집례가 홀기를 부르다가 숨이 막힐 시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홀기를 대신해서 불러주는 사람

奉 爵 : 잔을 받드는 사람

執 爵 : 잔을 붙잡아주는 사람

獻 爵 : 잔을 신위에 드리는 사람

司 樽 : 술을 잔에 부어주는 사람

- 奉 齋 : 향을 피우는 사람
- 獻 齋 : 향을 신위에 올리는 사람
- 奉 饌 : 향로를 받드는 사람
- 獻官預差 : 헌관이 사고가 날 경우 헌관을 대행할 예비헌관
- 典祀官 :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

㉔ 이포지신과 해득지신 두 신위에 각각 다른 제관들로 구성이 되며, 각 신위에 18명씩 36명의 제관이 제의를 집행한다

③ 제차

- ㉑ 제일 전날 자시경, 옷등당 물을 길어다가 매를 찜다.
- ㉒ 출발 : 제일이 있는 당일 아침 목욕을 하고, 9시 경에 향사를 출발하여 제장으로 향한다.
- ㉓ 도착 후 : 천막을 치고, 희생을 잡으며, 제단을 마련한다. 가지고 간 제물을 제단에 진설한다. 제물을 진설할 때는 이포지신에게 먼저 제물을 올리고 그 다음으로 해득지신에게 제물을 올린다.
- ㉔ 제를 지내는 순서 : 이포지신에게 먼저 제를 행하고 다음으로 해득지신의 제를 지낸다.
- ㉕ 의식을 진행하는 순서 : 향교에서 석전제를 지낼 때와 같다고 한다.

(9) 제물 : 동일한 제물을 이포지신, 해득지신 각 신에게 따로 드리므로, 다음과 같은 제물을 2배로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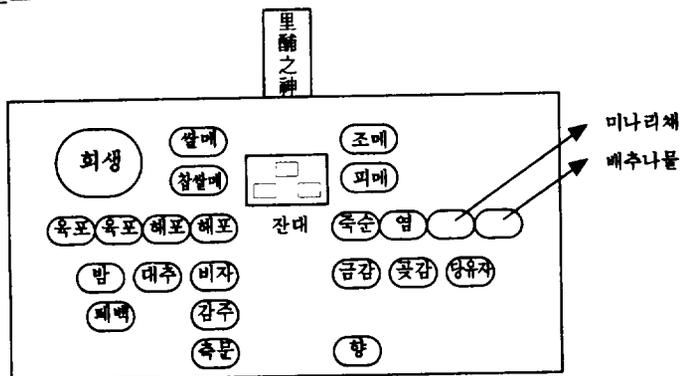
- ① 메 : 도량서직이라 하여 쌀(일반미)메, 찹쌀메, 조메, 피메 4종류를 준비한다. 찹쌀이 없을 경우는 일반미로 대응하고, 피가 없을 경우는 조로 대응한다.
- ② 채소류 : 미나리, 배추나물, 죽순, 염의 4가지를 올린다. 삶지 않고 소금에 버무려서 날것으로 올린다. 죽순은 순이 뾰족하게 올라오면 대야를 그 위에 덮어 안에서 말아지며 자라게 한 다음 뿌리 위로 잘라내어 사용한다. 죽순이 없을 경우는 양에¹⁾로 대응한다.
- ③ 海魚 : 생선(소금에 버무려서 날것으로 올림)
- ④ 實果 : 유자, 밤, 대추, 꽃감, 감, 사과, 배 등 복숭아를 제외하고 최소 6가

1) 양하(藎荷)를 말하며 '양왜'라고도 한다. 양하근(藎荷根)은 양하의 지하경에서 솟아나는 죽순(竹筍) 비슷한 것으로 '양에간' 혹은 '양에근'이라 한다.

지 ~ 최대 10가지를 올린다.

- ⑤ 祭酒 : 골감주
- ⑥ 脯 : 어포로는 소금에 버무린 생선, 육포로는 노루고기를 사용한다. 노루고기가 없을 경우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대용하며, 소금에 버무리서 햇빛에 말린 것을 각각 2가지씩 올린다.
- ⑦ 犧牲 : 과거에는 검은 소가 맛이 있다고 하여 검은 소를 올렸으나 재정이 어려워지자 색깔에 관계 없이 돼지다리 한 쪽이나 머리를 날것으로 올린다. 희생은 포제를 지내는 날 마을 하인인 '소사'가 잡았다고 한다.
- ⑧ 幣帛 : 비단이나 백지를 준비한다.

(10) 제물진설도



- ① 左籩右菹 : 왼쪽에는 대나무로 만든 그릇에 넣는 음식(물이 나지 않는 음식- 마른 음식)을 차리고, 오른쪽에는 나무 그릇에 넣는 음식(물이 나는 음식)을 차린다.
 - ② 左稻梁 右粳稷 : 왼쪽에는 쌀메와 참쌀메, 오른쪽에는 조메와 피메를 올린다.
- (11) 금기사항
- ① 제관들이 합숙할 동안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한다.
 - ② 성생활을 금지하며 부정한 짓을 하지 않는다.
 - ③ 뱀이나 고양이 등 죽은 시체를 보지 말아야 한다.
- (12) 흠기 : 향교에서 제석제 지낼 때 행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13) 음복 : 제물을 잡식하여 땅에 묻은 후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서로 나누어 먹는다.

(14) 참가자 : 마을 주민 대부분이 참석한다.

(15) 기타 : 백중제, 제석제, 치성제 등의 유교식 제의는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2) 別祭

(1) 祭名 : 大星祭

(2) 祭神 : 天神之位

(3) 由來 : 일과리에는 가시봉이라 하여 모슬봉과 마주하고 있는 오름이 있다. 모슬봉에는 현재 레이더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과거 미군부대에서 이 마을의 가시봉에도 레이더망을 설치하기 위해 오름 꼭대기를 깎아 2,000 여평의 평평한 대지로 만들었다. 오름을 깎아내리는 중에 가시봉의 산지기인 큰 구렁이가 나왔는데, 이를 모르고 공사를 하다 그만 구렁이를 두동강 내어서 죽여버렸다. 이런 일을 모르던 미군장교 2명이 차를 타고 내려오다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죽었다. 무당에게 가서 연유를 물어보니 가시봉의 산지기인 구렁이를 죽였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에 미군부대는 공사를 도중에 포기하고 철수하여 버렸다. 그 이후 일과 1리의 각 집마다 소들이 폐죽음을 당하여 약 40여 마리에 달하는 많은 소들이 죽어갔다. 무당에게 연유를 물으니, 가시봉의 방향이 일과리에서 측사 즉 소의 방향에 해당하는데, 산을 지키던 구렁이를 죽였기 때문에 그러한 변이 생긴 것이니 천제를 지내어야 그 화를 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일과 1리에서는 '대성제' 라는 별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제는 1회로 그쳤다.

(4) 祭日 : 1961년 12월 28일(음력)

(5) 祭費 : 마을 공동기금으로 충당했다.

(6) 祭服 : 청의를 입고, 행전을 치고, 유건을 쓰고 제를 지냈다.

(7) 祭器 :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용하는 마을의 공동 그릇을 빌어서 사용했다.

(8) 祭場 : 향사 마당

(9) 行祭過程

별제의 행제과정은 마을 포제와 같으며, 당시에는 마을 내에 향사가 있어 향사 마



할망당

당에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 제관으로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례, 대축, 알자, 전사관, 집사의 8명 정도를 선출하였다. 제청은 옛 이동조합사무실인 지금의 마을 노인회장(문공학, 남·

77세)의 집으로 정하여 합숙하였다고 한다. 또한, '장수물'을 1주일 동안 금줄을 쳐서 보호하고, 이 물을 떠서 매를 찼다고 한다.

새벽 1시경에 별제를 지냈는데, 이날 바람이 심하게 불었는데도 제를 지내는 향사 마당에 세워둔 12개의 촛불이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성을 잘 들였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별제를 지낸 후부터는 소가 더 이상 죽지 않았다고 하며, 그 이후로 별제를 지낸 적은 없다고 한다.

2. 할망당

할망당은 일과리의 본향당으로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든지 줌수나 어부들의 평안과 해산물의 풍요, 아이들이 병치레를 하지 말게 해 달라고 비는 곳이다. 포제가 마을의 남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할망당은 여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무속신앙이다. 할망당은 설촌 당시부터 존재해 왔으며, 모슬포 하모리에서 가지달라 온 당이다. 이 당은 그 신위의 세력이 강한 편이라 주변 마을의 앞바다에는 익사한 시신들이 떠오르는 흉한 일이 생기지만, 할망당이 있는 일과리 앞바다에는 시

체가 떠오르는 적이 없다고 한다. 일과리의 대부분의 부녀자들은 현재까지도 당에 다니고 있으며, 시집을 간 후에도 일년에 한 두 번은 당을 찾는데, 1월 17일과 8월 17일에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한다. 정월에 햅쌀이나 그 외의 음식들을 처음으로 사 오게 되면 봉해서 놔 두었다가 삼칠일에 당에 가지고 간다. 메인심방이던 이씨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현재 할망당에 메인심방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한 명의 심방(女巫)이 거주하고 있으며, 당을 매지는 않았으나 단골들의 집안 식구가 아프거나 작은 곳을 의뢰할 경우에 한해서 비념이나 굿을 해 주곤 한다. 단골은 연령층을 기준으로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 아이단골로 나누어진다. 대부분 훈장 어른의 자손이나 일과리 문씨의 자손이 상단골, 장년층이 중단골, 청년층이 하단골, 어린 아이는 아이단골이 된다고 한다.

(1) 명칭 : 일뿔할망당 혹은 장수원할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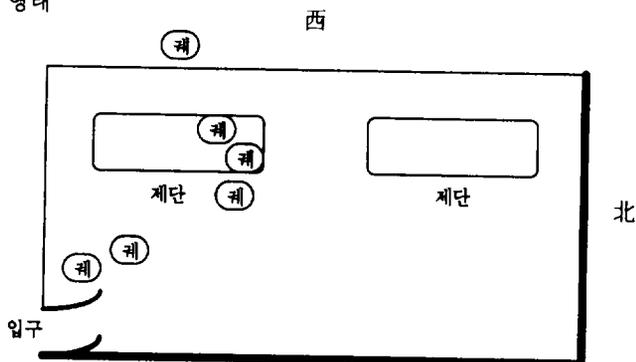
(2) 당신 : 중의선성, 제석천황, 용왕신의 세 신을 모신다.

(3) 제일 : 3일, 7일, 13일, 17일, 23일, 27일로서 삼칠일당이라 할 수 있다.

(4) 위치 : 장수원이라는 곳으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 짐성촌에서 약 1km 떨어져 있다.

(5) 제단 : 두 개의 제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왼쪽 제단은 할망당의 신위를 모시는 곳이고, 오른쪽에 있는 제단은 외지에서 시집온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가지 못하는 고향의 본향당신을 모시는 제단이다. 외지에서 시집을 오는 사람들인 경우는 그 본향당에 있었던 돌이나 나뭇가지 등을 가지고 와서 이를 본향당신으로 여기고 할망당신과 함께 모시고 있다.

(6) 당의 형태



(7) 제물

① 메

① 마을 주민인 경우 :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마을 내의 혼인을 한 경우는 사발메 1, 보시메 2을 준비한다.

② 외지에서 시집을 온 경우 : 고향에서 모시고 있던 본향당신을 위한 본향메로 보시메 1를 더 준비하여 당신에게 제물을 올린 다음 오른쪽에 위치한 제단에 올린다.

③ 과일류 : 사과, 배, 감, 토마토 등 복숭아를 제외한 3종류를 올린다. 1종류로 3개를 올리거나 각기 다른 과실로 3개를 올리면 된다.

④ 채소류 : 올리지 않는다.

⑤ 해어 : 구운생선 혹은 우럭

⑥ 폐백 : 무명실 1타래, 백지, 물색형걸 3조각(단, 검은색 제외)

⑦ 제주 : 감주를 올리지만, 최근에는 간소화 경향으로 인해 소주나 음료수를 올린다.

⑧ 기타 : 조와 쌀로 만든 들레떡 등을 올린다.

⑨ 잔은 두 개를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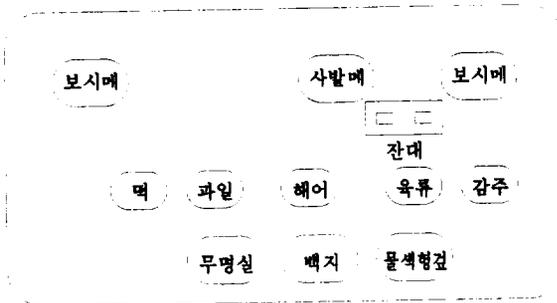
⑩ 제물은 한꺼번에 제단에 차리지만 잡식하는 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 중의선심 : 사발메, 과일, 음료수나 감주를 올린다. 술이나 육류, 해어는 올리지 않는다.

- 제석천황 : 보시메, 해어, 육류, 과일, 소주나 음료수

- 요왕신 : 제석천황에게 올리는 제물과 동일하다.

(8) 제물진설도



(9) 비념 : 식구 중 딸을 제외한 아들내외, 손자, 남편 등의 거처지와 나이 등을 구두로 읊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재수 좋게 해달라고 빈다. 시집간 딸은 출가외인이라 하여 집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원시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심방과 함께 당을 찾을 때는 제가 끝난 후 쌀점을 쳐서 딸의 금년 운수를 봐 줄 뿐이라고 한다. 또한, 일년 농사의 풍작과 해산물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한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요왕신을 각별히 위한다.

(10) 祭次

- ① 할망당 입구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당에 들어서면서 합장을 하고 허리 숙여 절한다.
- ② 배석에 올라서서 가지고 간 제물을 제단에 진설한다. 배석은 제단 밑에 신발을 벗고 올라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으로 평평하고 기다란 바위를 말한다. 제물을 진설할 때는 중의선심에게 먼저 제물을 올리고 제석천황, 요왕신 순으로 올린다.
- ③ 다음과 같이 신에게 고한다.

“일만일신 삼만제석 주물천신 만주백관 신우엄전입네다. 중의선심님이요, 제석천황 하늘님이요 아이고 단골님네 밍빈값 복빈값 세경땅에 빌어먹은 값 행우발신 혼 값 저손 키운 값 물레 오랐수다.”²⁾

- ④ 식구 수대로 나이와 거처지 성명을 아뢰어서 굿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며 재수 좋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 ⑤ 3배를 한다.
- ⑥ 제단 오른쪽에 맞붙어 있는 2개의 궤³⁾에 잡식한 제물을 세 손가락씩 떠 넣은 후 돌로 구멍을 막는다. 1개의 궤는 중의선심, 또 다른 하나는 땅을 차지한 제석천황을 위한 것인데, 중의선심의 궤에 먼저 잡식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제석천황의 궤에 잡식을 한다.

2) “일만일신 삼만제석 주물천신 만주백관 신우엄전입니다. 중의선생님, 제석천황 하늘님. 단골님네 밍 빈 값 복 빈 값 세경땅에 빌어먹은 값 行爲發身한 값 저손 키운 값 물레 왔습니다.”
 3) 濟州道, 『濟州語辭典』(濟州道, 1995), p.60에 따르면 “위로 큰 바위가 가리워지고 땅이 가로 깊숙하게 들어가게 된 곳”이라 하였으나, 당의 ‘궤’는 “당신이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 ⑦ 차려 놓은 제물을 모두 내려 놓는다.
- ⑧ 다시 잡식을 한 후 제단 뒤 큰 바위에 있는 케, 일명 '고망돌'에 일곱 손가락을 떠 넣은 후 돌로 구멍을 막는다. 일곱 손가락을 떠 넣는 이유는 北斗 七元星君을 위함이다.
- ⑨ 제단으로 돌아와서 잡식을 한 후, 제단 왼쪽 밑에 있는 2개의 케에 잡식을 한 후 돌로 구멍을 막는다. 이 2개의 케는 '할망올래'라 하여 제단에 오르지 못한 올래⁴⁾의 신들을 위하는 것으로 잡식을 대우하는 것이다.
- ⑩ 다음은 제단 밑에 있는 구멍에 케를 묻는다. 이는 윗대의 메인심방을 위함이다.
- ⑪ 잡식을 한 후 제단 뒤에 있는 평평한 바윗돌에 올라서서 바다를 향해 잡식한 것을 뿌린다. 이는 바다의 용왕신을 대우하는 것으로 고하는 내용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청요왕, 백요왕, 흑요왕, 천지요왕, 황신요왕, 요왕신 가세요. 이 비행기 탕 텅이는 사람, 일본 출입하는 사람, 하다 스고 나지 말라고, 요왕대우죠.”⁵⁾

- ⑫ 제단으로 돌아와서 잡식을 한 후, 잡식한 것을 사방에 뿌린다. 여러 잡식들을 대우하는 것으로 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병 잡수고 가세요. 집이 선몽 들이지 말고, 감기, 고통 사들이지 마세요. 잔뜩 먹고 가세요. 잡식 먹고 가서 굶어슨 향어슨 염질 토질 대야초 다 주지 말고 잡수고 가세요.”⁶⁾

- ⑬ 생쌀이나 콩을 제단 주위나 바다를 향해서 뿌린다.
- ⑭ 제비를 잡아 점을 친다. 제비쌀이 2, 4, 6, 8 등 짝수로 나와야 재수가 좋다.
- ⑮ 이 마을 출신이 아니라 외지에서 시집은 사람들인 경우는 제단 오른쪽에

4) 거릿길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

5) “청용왕, 백용왕, 흑용왕, 천지용왕, 황신용왕, 용왕신 가세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 일본 출입하는 사람, 모두 사고 나지 말라고 하는 용왕대우죠.”

6) “神兵 잡수고 가세요. 집에 現夢하지 말고, 감기, 고통, 사(邪) 들이지 마세요. 배불리 먹고 가세요. 잡식 먹고 가서 경계없는 방향없는 염질 토질 대야초 모두 주지 말고 잡수고 가세요.”

있는 또다른 계단에 매 한 그릇을 올려 절한다.

(11) 본풀이

이 당 본초는 우리 이 섬 중에 본데 없었거든. 홀연 광풍홀 때에 물고개 절고개 옛날 올라올 적에다가 올라온 섬중이요 할로산 헛봉 뱃겨⁷⁾ 고산 당산봉 내려설 때⁸⁾ 솟은 봉우리. 산방은 송악산 저 불서⁹⁾ 부처님 불법을 지르게¹⁰⁾ 생겼네. (그게 버금¹¹⁾에는 또)¹²⁾ 어시싱¹³⁾에 당군뭇물 오백장군 이 산 앞 아흔 아홉, 저 산 앞 아흔 아홉, 백골이 못차니깐 왕도 곰도 신마저 못 솟아나니 (그 버금에는) 고씨, 양씨, 부씨 삼성 솟아졌수다. (고랑부 삼신이 솟아났조. 고랑부 삼신 끝에는) 그 버금에는 절 오백 당 오백을 설련¹⁴⁾하니깐, 이제 영천리 임목사님이 오라서 저 광정당이라고 헌 달 물을 타고 육방 하인 거느리고 넘어가거나 육방하인 허는 말씀이,

“아, 여기는 물 하마를 시기고 넘어가시라고 했수다.”

이렇게 하니깐 임목사님이,

“거 무신 소리 허느냐. 썰데 없다.”

고, 허명 물체를 탁 냈지. 탁 놓니 물이 놀려드¹⁵⁾니 물 다리가 푹 꺾어져서 거기서 죽었어. 이젠 거저 죽으니깐 그 목사님이 큰 무당서 불러오라고 하니깐 불러오니깐,

“절 오백 당 오백 다 나눈에 비와라. 비우지 않으면 너의 목숨이 간다. 내 손에 간다.”

이랬거든. 이러니깐 큰 심방이 이젠,

“아이고, 절 오백도 살려 오십서. 당 오백도 살려 오십서.”

막 빌었거든. 비니깐 머릿박만 비왔조. 머릿박만 비우니깐,

“다 비우라. 몸뎡이¹⁶⁾장 다 비우라. 이제 웅 다 보이게 하지 못하면 당신은 신이 작다. 신이 못하다.이 영급이 없다.”

고, 그 절 오백 당 오백 내 놓라고 답도리 허여¹⁷⁾.

“아이고, 몸뎡이까지 다 살려오라서 내 목숨을 살려줍서, 살려줍서.”

그렇게 비니깐 몸뎡이¹⁶⁾장 다 나오니깐 그 영천리 임목사가 불을 탁 지더부렀¹⁸⁾

7) 첫 봉우리 뱃겨져

8) 내려설 때

9) 불사(佛寺)

10) 이르게(謂)

11) 다음

12) () 안 내용은 제보자의 습관적인 어투로, 본풀이를 구술하는 도중 이런 투로 조사자에게 재확인하였다. 이하 같음.

13) 어승생 오름

14) 세우니까

15) 달려드니

16) 몸뎡아리까지

17) 재촉해

절 오백 당 오백을 불천수를 시켜부니¹⁹⁾ 그 후론 우리 곤는²⁰⁾ 많이 옷손당은 금백조, 셋손당은 식명절, 내알손당 소로소친국. 제느려난 아덜 간디두 오덜, 딸 간디두 오덜 손지방상이 일흔 오덜을 이 섬이 설련을 후니 이계 신우엄전이지. 신우엄전이 이젠 다 벌어져서 그 이후로 각자 본향이 되었습시다. 경허영²¹⁾ 다음은 또 이낙²²⁾ 본향만씩 따 나지²³⁾. 이 본향 할마님은 제주성 내로 이리 왔죠. 제주성 내에서 그 삼당인디, 광정당 이계 7시락당, 하원당, 그 당이 이 우리 섬중에 다 벌어졌죠. 증산총이고 해변이고 다 벌어진디 우리 대정읍은 일뻘할망, 일뻘조, 일뻘. 일로가민²⁴⁾ 저 목안테레는 축일이 많 허죠. 축일든 땅에는 쇠날에 땡기지. 쇠날에 그 할마님이 이 제주성내로 이레 타 왔죠. 이 모실포²⁵⁾도 큰당한집은 무수물,²⁶⁾ 절 앞이 무수물. 이제 저 예막은개엔 헌건 하동 델캬부락²⁷⁾에 예막은갯할마님. 그 버금은 섯동짓할마님. 섯동짓할마님은 이 가는중수, 오는 보제기 다 우리 배에강 빌자고 해도 그디강 오랑²⁸⁾ 또 할마님신디 콩드리곡²⁹⁾ 그러는거여. 겨난³⁰⁾ 섯동짓할마님이 여기 갈라오랴오. 여기 갈라오고 또 일로 가민 영락리, 영락리 내늘동네 폭낭³¹⁾ 알로³²⁾ 좌정후고³³⁾ 따르³⁴⁾ 무통린 가민 저 물동산에 이제 모시고 또 저 고산은 가민 당할망, 당오름³⁵⁾에 모셨조³⁶⁾ 또 두모³⁷⁾는 가민 살레 마르³⁸⁾ 이 할마님 7치 개맞디 모셨다가 이제는 거기 집도 짓어불고 후니까, 그 할마님

-
- 18) 질러버렸조
 - 19) 불천수를 시켜버리니
 - 20) 말하는
 - 21) 그렇게 해서
 - 22) 제, 자기
 - 23) 다르지
 - 24) 이쪽으로 가면
 - 25)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 26)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2리 남쪽에 있는 못.
 - 27)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1리 약포동 동남쪽 해안에 위치한 멸치를 잡던 곳.
 - 28) 그곳에 갔다가 와서
 - 29) 정성을 드리고
 - 30) 그러니까
 - 31) 팽나무
 - 32) 아래로
 - 33) 坐定하고
 - 34) 또한
 - 35) 高山里 堂山峯
 - 36) 모셨조
 - 37)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 38)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남쪽 지경에 있는 '살레'(찬장)처럼 생긴 밭이름.

어디 뻗는지 모르지. 우리 이 대정읍은 일로 저 신도³⁹⁾각장, 신도⁴⁰⁾각장 우리 대정읍이
쪼 또 거세기⁴¹⁾ 일로 저 쪽에 가민 저 산방산 붙은 부락, 사계. 사계는 큰당할마님, 알
당할마님 그렇게 그던 당 두 개고 우리 이 모실포는 당이 낮이 되쪼 이 보딘디만⁴¹⁾
저 무수물. 무수물이 질 큰할마님. 경 절 오백 당 오백 불천수 시겨부난 그 후로는 각
자 본향 뻗지. 이 신우엄전이 영 흠어지니깐, 이 할마님신디 오민 땅 촛지 물 촛지 산
촛지 제석천황 하늘님. 상쾌적이⁴²⁾ 중쾌적이 하쾌적이. 그 버금은 할로산 생겨두고 요
왕님. 요왕님, 요왕님, 배로 선왕 배로 선왕 배로 무쟁⁴³⁾ 신도본향입네다.

진성기가 조사한 일과본향 본풀이를 들면 다음과 같다.⁴⁴⁾

일과본향① <장수원>

장수원당 할마님은 / 모실계 삼본향으로 / 가지갈라온 할마님이우다. /
장수원에 모신 / 상쾌적인 중의선성, / 중쾌적인 제석천황, / 셋쾌적인 일곱의똥, /
올래 할마님은 / 가는 보제기 / 오는 보제기 / 가는 줌수, 오는 줌수 /
인정 받는 할마님이우다./
조손가지들 / 맹장수, 복장수 시겨, / 돌림 들게 맏서/
세경땅에 벌이 농작 시겨줍서. / 밭을에 굿인 액년 들게 맏서. /
수덕좋은 이 할마님은 / 은작지, 서작지, / 감은작지, 넉은빌레로 /
좌정호신 할마님이우다. /

일과본향② <장수원>

장수원 한집님은 / 이 모실개 큰당으로부터 / 가지갈라단 설립훈 / 한집이우다. /
올라스민 중의괴남 / 느려스민 제석천황 / 고망돌 일곱애기 / 상미울청이우다. /

(12) 금기사항

개나 고양이 등 죽은 시체를 보거나 몸이 비린 사람은 당에 갈 수 없다.

3. 가신신앙

각 가정 별로 그 주택 내부 곧 울타리 안에 모셔지는 신에 대한 신앙을 가정신

39) 남제주군 대정읍 신도리

40) 어떤 말을 생각하기 위한 “음…, 저기…”와 같은 발어사.

41) 가까운 곳만

42) upper를 지키는 이

43) 묶어서

44)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1), pp.548~549.

양, 또는 가신신앙이라 할 수 있다.

1) 성주풀이 : 가옥을 신축했을 때 행해지는 성주를 위한 의례

2) 문전제 : 제사를 할 때의 문전신을 위한 문전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행한다. 그러나, 정월에 택일을 하여 심방을 데려다가 행하는 신년제로서 일년 동안 가내의 평안과 행운을 기원하는 문전제를 지내는 가정은 몇 가구에 불과하다.

3) 귀양풀이 : 장례를 지낸 날 밤에 행하는 死者供養儀禮이다.

4) 크스 :

(1) 정월 3일(음력)에 심방이나 스님을 모셔다가 행하는 제의이다. 집안에 액을 막고, 일년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며, 명과 복을 빈다. 과거에는 산에 가서 깨끗한 곳을 골라 제를 지내고 온 다음 집안에서 제를 지냈는데, 유신시절에 엄격히 통제 한 이후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몇몇 가구에서만 집안에서 크스를 행하고 있다.

(2) 제물 : 떡은 모두 5종류로 좁쌀로 만든 떡 2가지, 메밀로 만든 떡 2가지, 쌀로 만든 떡 1가지 를 올린다. 그 외에 과일, 해어(구워서 올림), 돼지고기, 향 등을 올린다.

(3) 제차 : 초감제 — 세경본풀이 — 칠성본풀이 순으로 행한다.

5) 할망상 : 아이가 아팠을 때 병이 낫게 해 달라고 빌면서 차리는 상

(1) 제신 : 삼승할망

(2) 제물 : 매3, 생쌀, 실, 찬 물(생수), 과일, 해어, 향

제보자

제 보 자 : 대정읍 일과리 이묘생(여무·76세)

조사일시 : 1997. 8. 3 ~ 8. 4

조사장소 : 할망당 앞

여무 이묘생은 한경면 청수리에서 3남 3녀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이런 까닭에 어머니께서 지어 주신 “쟁이장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20세 때 대정읍 일과리로 시집을 왔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몸이 아프자 28

새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신이 이상하여 1년쯤 지나 중단하고 절간에 다니기 시작했다. 39세경부터는 길을 걷다가 혹은 밭에 가다가도 췌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리고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다 기절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몸은 계속해서 나빠져 앓아 눕게까지 되자 굶을 하기에 이르렀다. 굶을 한 지 사흘째 밤에 옥황상제가 현몽하여 “지금의 믿음을 거두지 않으면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다. 화륵공덕 하라.”함에 신말이 되라는 지시라 믿고 심방으로 나서고 싶었지만, 남편의 강력한 반대와 8남매인 자식들 때문에 심방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몸이 점점 쇠약해지자 더 이상 견디다 못해 할망당에 메인심방이었던 이씨 할망과 송씨할망, 윤씨할망과 함께 굶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몸도 좋아지고, 무업을 해서 번 돈으로 살림도 조금은 나아져 갔다. 하지만, 남편의 강력한 반대로 자유롭게 심방생활을 하지는 못했다.

제보자가 맹두를 물려받은 경위를 살펴보면, 자식이 없었던 시어머니 흥춘매씨가 제보자와 동갑내기인 수양아들에게 맹두를 물려주었는데, 48세 때 돌아가시게 되자 제보자에게 물려주었다고 한다.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독립하여 큰심방으로서 무업을 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편의 반대가 심하여 큰 굶은 거의 하지 않고, 성주풀이나 귀양풀이, ㅋ사(告祀) 같은 작은 굶만을 행하여 왔다. 나이 70이 넘음에, 몸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눈도 침침하여 무업을 그만두려 하였으나, 79세 때 까지만 하면 며느리 중 무업을 전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신의 계시를 받아 그 때까지만 무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묘생씨는 슬



제보자 이묘생

하에 5남 1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장가를 들지 않은 막내 아들과 같이 살고 있다. 자식들 중에는 무업을 전수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이가 없다 함에 아직 장가 들지 않은 막내 아들이 결혼하면 그 며느리에게 맹두를 물려주길 바라고 있다.

제보자는 연신 '나는 신을 받아서 백성을 살리라고 산 사람이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큰 곳을 하여 돈을 많이 벌겠다는 재물욕이 없이 청렴하며 현재까지도 어느 집에 아이가 아플 때면 찾아가서 비염을 해 주고 또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됨을 만족으로 여기고 있다.

제보자의 집을 찾았을 때 제보자는 남편을 의식한 채 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였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도까지만 말씀하셨다. 남편 또한 할망당에 대해 미신이라며 대답을 회피하였고, 제보자가 할망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화를 낼 정도여서 거의 조사를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제보자만을 모시고 할망당에 가니 남편이 무서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없으셨다며 할망당의 본풀이 까지 자세히 얘기해 주셨다. 할망당에 제물을 차리지 않으면 못간다고 하시거나, 할망당의 입구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당터로 들어서는 등 할망당을 매우 신성시하고 있었다.

이묘생씨 일대기

옛날은 우리 영 댁이는 신 곳인 사람을 막 나쁘게 생각했죠 (예, 옛날은 경 해 십주께.) 옛날은 경헌디 이젠 양 유래가 없지, 유래가 없이니까 나도 예순만 나시 민 돈 벌어점직 헌디예. 이제는 돈도 흥전하고 우리 다닐 땐 무사 거 잘 안쳤죠. 없으니까 없으니까 못주는 거죠.

(관세음보살)

이거 배워두민 예. 나 입만 놀이민 이거 참 영 배왕 실어논덴 허니까 배와만 주 민 좋은디 젊은이덜 잘 들어예.

내게 신을 붙여야. 내게 신을 붙으민 팽동쳐서 영 앓을 내 공력으로 다 나오죠. 그 말을 자 배와서 어떡해요. 내가 신을 배와서 신을 탁 미쳐서 막 아프거나 웅 어떻게 헌 사람을 내가 그렇게 아플 때마다 손이 이렇게(엄지손가락을 검지에 바 싹 붙히고 구부리면서) 뭐 육갑도 아무것도 내가 안 배웠지. 말자고만 말자고만. 야기 8남매고 탁 춤 뉘쿠시 시신이죠. 말자고만 이렇게 이렇게 탁 죽어가다가 공중

으로 첫소리가 와상와상 나른 발디 가도 막 퍼뛰다가 내가 폭 죽어요. 죽을 때민 이 손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엄지손가락을 검지에 바싹 붙이고 오르르면서). 거고 (그리고) 영 나사니까 어디 아기 때 맞춘 디도 탁 들어가민, 몇 시간 되민 나겠다. 똥 나겠다. 아똥 나겠다. 그러든 아들 나고 똥 낳고. 이 애기 아픈 디 강도(가서도) 아이고 왜 배염(뱃)을 죽였어요. 아이고 배염 죽인 탓인디. 이 상에 빌어야, 이 애기가 살아나죠.

그렇게 내가 막 신이 컷는디, 우리 주인이 날 불 붙영 캐와볼겠다고 그렇게 나를 담도리(담달)허니까, 내가 아기도 두 개 잃어부렀죠. 경허단 이젠 우리 부락에 이 점박, 육짓점박 오란 막 잘 안덴. 겨난 이젠 내가 구경을 이틀이나 갔지. 가는 날은 아이고 저도 봐 주시오. 내가 이 몸 달려서 살질 못허겠소. 아 신랑 데려오세요. 그 보살님 잘 알데. 우리 집의 주인을 돌아오랜. 아예 그 디 아기광 돌아오난, “당신 왜 우리보단 더 신 곳인 부인을 이렇게 입막았느냐. 당신 부인 막으니깐 즈식 두 개로 해서 당신 오장에 불 든 중 알아요. 왜 이렇게 부인을 담도리해요. 우리보다 더 신 곳인 부인인디, 왜 이렇게 담도리 허느냐?”고 그랬지. 겨고 건 뭐 쓸 필요도 없는 건디.

경허난 내게 신을 의탁허든 허염도 쉽고. 이렇게 이렇게 쓸도 영 좁으든 땀이다. 이 내 그 신을 미치든 나오는 것이고, 그러는 거. 배와서는 절대 못허지. 신 미쳐야. 그 디 가민 이디 본풀이고 뿔이고, 내가 혼어시(그리) 심들이(힘들여) 배우젠도(배우려고도) 앓했죠. 영 행 “성주 허여 도라. 코시 허여 도라.” 허든, 이렇게 팽풍(병풍)쳐서, 아이고 절 허면서, 곱게. 아이고 내 복력이 이러구나. 이렇게 일을 보고 가세요. 내 몸으로 이러죠. 이러니까 게서 절 드러두고 앉아 이렇게 연물을 쳐가든 뱅뱅 대구정으로 뱅 나오라 경 허여 세경본 풀어두고, 영 앓으든 아 벌어먹겠다고 이렇게 해서 오라오라 했죠. 이거 내 신을 굶어야 한다고 양. 영 이걸 배와사 허켄 허길래 이거 또 경 아년 영 거치 첨 2찌영 들영도 보는 것도 싹곡, 들영 허는 사름이 많으죠.

이 당 본초는 우리 이 섬중 물고개 절고개 옛날 올라 울적에다가, 올라왔죠, 올라오니깐 이 산 앞 아홉아홉 저 산 앞 아흔아홉 골이 있죠. 백 골이 찻으든 신 이나나(신이 나든가) 노련헌 사름이 날 건디, 혼 골이 부족허니깐 고랑부(高良夫) 삼신(三神)이 솟아났죠. 이것이 내 본초를, 고랑부 삼신 끝에는 절 오백 당 오백이

쥬 절 오백 당 오백을 이제 설련은 하니까, 이제 그 절오백 당 오백을 영천지 임 목사가 오라서, 절 오백 당 오백을, 저 광정당이라고 헌 디 그 목사님이 몰을 타고 육방 하인 거느리고 넘어가거나 육방하인 허는 말씀이, “아, 여기는 이렇게 몰 하 마(下馬)를 시키고 넘어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니깐 몰채를 탁 냈지. 탁 노니 몰 다리가 꺾어져서 거기서 죽었어. 죽으니깐, “이 절 당 오백 영급이 없다.”고, 이 넘어가도 양반이 그 꾸며서 “너는 여기 왔다가 몰발 짤랑 얻어먹으라.”

흫으로 만들어서 세와두니까 그 영급으로. 젠디, 우리 이 신이엔 헌 건 저 들맹 이로 모시민 신되여 이치가 말이여. 이 닥치니깐 이젠 몰은 꿩어지건 이젠 거저 죽으니깐 그 목사님이 큰 무당서 불러오라고 무당서 불러오라고 하니깐 불러오니 깐 “절 오백 당 오백 다 나눈에 꿩아라. 꿩우지 았으면 너의 목숨이 간다. 나 손 에 간다.” 이랬거든. 이러니깐 큰 심방이 이젠 “아이고, 절 오백도 살려오십서. 강 오백도 살려오십서.” 막 벌었거든. 비니깐 머리박만 꿩왔쥬 머릿박만 꿩우니깐 “다 꿩우라고, 몸뎡이까장(몸뎡이까지) 다. 이제 웅, 다 보이게 하지 못하면, 당신은 신 이 작다고.” 신이 못되고 이 영급이 없다고 이런 거쥬, 이치는. “아이고, 몸뎡이까 지 다 살려오라서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비니깐 몸뎡이까장 다 나오니깐, 그 영천리 임목사가 불을 탁 지더부렀쥬. 절 오백 당 오백 불을 탁 지더부니, 우리 곁는 말이 옷손당은 금백쥬, 셋송당은 시명질, 내알손낭 소로소천 국. 제 느러난 아털 간 디 두 으털을 툐 간 디두 으털, 손자방상이 일흔 으털을 이 섬이 설련을 해려. 이게 신우엄전이지 신우엄전이 이젠 다 벌어져서. 이젠 제 본향 토폴 마련해서 이 본향 할마님이 제주성내로 이리 왔쥬. (제주성에서 와서 마썰?) 예. 제주성내서 그 삼당인디, 영 았인 신 미칠 땐 곱아 지는디. 광정당, 이제 7시 락당, 하원당, 그 당이 이 우리 섬중 그 당이 다 벌어졌쥬. 중산층이고 해변이고 다 벌어진디, 우리 대정읍은 일뵐할망, 일뵐쥬 일뵐. 일로가민 저 목안테레는 축일이 많어쥬. 축일 든 땅에는 쇠날에 멩기쥬. 쇠날에 그 할머님이 이 제주성내레 이레 타왔쥬. 게 이 모실포도 큰당 한집은 문수물, 절 앞이 뎡컷부락에 예 마은갓 할마 님. 그 버금은 셋동짓 할마님. 셋동짓 할마님은 이 가는 즘수 오는 보제기(어부) 다 우리 배에강 빌자고 빌자고 해도 그 디 강 오당 할마님신디 저 배에강 공드리꼭 그러는 거여. 겨난(그러니) 셋동짓 랑망이 여기 갈라오왔쥬. 여기 갈라오고 또 일로 (이리로) 가민 영락리. 영락리 내눌동네 폭낭알로 좌정허고 따로 무릉린 가른 저

물동산에 이제 모시고, 또 저배지당 비지 나게 구경 얹힌디 비지낭개, 또 저 고산은 가민 당할망 당오름에 모셨죠. 또 두모는 가민 살레미르 이 할마님 ㄴ찌 모셨다가, 그 디 영 차 타명 우리 어릴 때 바당에 가면서 구경했죠. 이제는 거기 집도 짓어붙고 하니까 그 할마님 어디 뻗는지 모르죠. (그것이 전부 하모리에서부터 갈라오고 갈라오고 헌 거로구나?) 그렇죠 우리 이 대정읍은 일로 저 신도꺼정 신도꺼정 우리 대정읍이죠. 또 거기서 일로 저쪽 가른 저 산방산 불은 부락 사계. 사계는 그 부락에 간 보니까는 큰 당할마님, 알당 할마님, 그렇게 그딘 당 두개고. 우리 이 모실포는 본향이 넷(넷)이 되죠. 보딘 디만, 이 보딘 디서도 저 문수물. 문수물이 절 큰 할마님. 문수물은 누게 앉는지 몰르지, 집사가 누게 앉는지 몰라예. 경 절 오백 당 오백 불천수 시켜부난, 그 후로는 이 본향법 신우엄전법, 신우엄전이 이젠 영 훌어지니깐 각자 본향됐죠. 예 각 마을마다 있죠 이 신우엄전이 영 훌어지니깐 땅초지 이 할마님 신디 오민 땅초지 물초지 산초지 제석천황 하늘님 영 우린 이렇게 허여.

(저난 아까 할무니를 만났던 그 스님이 그 나보다, 우리보다 더 신을 잘 아는 분을 못하게 한다 했던 그 스님을 지금 여기 모시는 거짜?) 이 시님은 몰르죠, 내가 이 중의 시님을 어떻게 온 차례 몰라. 이 루이 본향 할마님에는 중의 선성님이 생겼는디 다른 본향엔 중위선성안 생기죠. (아까 그 스님은 애기 낳고 살고 그럴 때 무니까 크게 신이 있는데 집이 하르브지가 못하게 하고 아기도 둘 잃어붙고 허니 걸 말씀해주신 거지예.) 예. 이렇게 영 덩이는지 원천강을 갔죠. 내가 신이 세니깐, 어디 이 점방신디 가른 점괘가 잘 안 나오지. 원천강을 간 보니까 내가 막 큰 심장으로 나사고 요랑거진 소미차고 요디 아래 요정들은 영 푼푼푼한 옷 입고, 옷 입고 영 물 받고, 이렇게 해서 이 거 당신 팔자요. 내 요 다리 꺾은 석덜 앉고 이 풀 꺾어서 일만 허고, 아기덜만 살릴라고 죽어가다가 살아나른 발디 가고 발디 가고 출(풀) 비레가다가 영 칩현 디서 썬권을 ㄴ져다가 아기구덕 진 양 시러 지니깐 아이고 앉아도 내 정신으로 “저넌은 심방질 못행 정 했다.”고. 어디 강 들어보고랜도 아니하고 어디 강 병원에 가젠도 아니하고. 그리 내불었지. 죽으라고 죽으른 땅 파서 묻겠다고 그러니깐 이제 원청강을 (강)보니까 내가 그랬지 그내 나구나 내 이세상 그디날 때 내가 이렇게 태우고 낳구나 허면 이 동넷 할망이 덩길 때 날 데리고 덩기세요. 간 청허니깐 “아이고 신랑신디 허가 맡고 오른 둘앙

맹기겠다.” 겨난 이젠 아기 떼두고, “우리 신랑 허가 안줘요 내 ㄱ찌 가겠어요.” 허연 시 반디(세군데)가 오랏거든. “아 심방 무당 싫다.”고 “떠나라.”고 떠나라고 허니, 내 아기 배에 담고 안은 아기 업은 아기 허고 남의 집에 가서 으섯덜 살았쥬. (그 거 몇설 때 쫘이파?) 그때는 서른 아홉설에 서른아홉설에 내가 그 원청강을 간 와서 그렇게 심방질 강 떡 받아당 주니 (남편이) 떡 느시 안 먹어 예수 믿당 설러두고 (몇살 때 설롭디가?) 서른으덧에 예배당에 맹여졌지 서른 으덧에 맹이다가 내가 설러두고 에 이젠 내 복력에 태운 일을 해야겠다. 헨 시밭디 간 오니간, 이 무당 줄기를 주지 말켄 이렇게 해서 막 따끄니까 떠난다고. 나 고생 무수히 헨 할망이쥬. (떠나기네 쥬 그 다음엔?) 남의 집에 간 살면서. 살아지쥬던데, 영 나가 니간 술 없다고 허른 술주고 술 대신 거지고(가지고). 에 아덜 성계 드리고 내 나 갖지. 나가서 애기 아프른 오시라고 오시라고 해서, 아기 입당 해줘라. 강 그자 아무저영 굴아됨 으라도 “애기 관결치 않염직 허우다.” 이렇게 해뵤 오라도, 애기덜 이 오골오골 일어나. 내 죽어가는 사름 질로 많이 살렸쥬. 으 번이다 열 아홉난 아덜 고등학생인다, 이 놀래맹이다가 교통순경 만나서 심어다가 막 답도리 허니간, 그걸로 오꽃 아기가 뵤난. 뵤들여 도렌 행 간 보니간, 울레에 울레에서 담을 다였어. 이 얘기가 이 탓일까 허연, 내가 제빌 줍으니 닐팡(내일파) 므리(모래) 이 담을 아니 아스른 이 아길 베린다. 아이고 살아날 건디 허연, 이젠 담 댓뵤어리 앓았쥬. 앓으니간, 이렇게 이 동티 걸릴 거는 영 맹기영 거이 덜쥬. 떠다가 탁 덜어지른 동티야 게른 그 아기 앞이서 동티 말을 말아야. 동티 말을 허른 급헌 동티는 탁 죽어 붙어요. 겨난 아이고 영영 험수다, 걸렸수다, 이렇게 동티 말을 말아야 급헌 동티는 탁 죽어블쥬. 경 행 영 그 자랑 내 얻어먹을 만이 내 얻어 먹으렌 태우니간에 아맹 굴아도 내가 이 신을 받아서 내 얻어먹으라고 허른 다 도와주지, 도와줘. 내 이 신에 신에서 뵤서 잡신을 돈딱 굶갈라주지.

(할므니 아프셔가지고 예. 어렸을 때부터 아프셨수팡?) 아이고, 내가 어머니 배밖으디 떨어지니 내가 고생헌 사름이지 우리 어머니 키울적에도 내가 이 신을 받아서 이 백성을 살리라고 내가 산 사름이지 우리 어머니 들은 말이 영 죽으른 땅파서 강 이당 데레 뇌서 태역 뒤올라고 영 들릴보민 개끔 ㄴ그락 해서 안아오고 안아오고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쾌양이장시라고 팽이(로) 땅 파서 붙젠 허연 산 거라고 팽이장시라고 별랑(별명) 지었지. 경허니 내게 몇번 죽을 대목을 넘긴 것이

내가 이처럼 만민 백성을 살리라고 나를 이렇게 했구나 그런 할망이지(겨난 신이 내려가지고 심방허게 뵈수과?) 응 나는 신이 내려가지고 내 팔자에 태와야된 팔 아니과양?)응 서른 아홉째 경 땡여가니깐 남편이 딱 막으니 마흔 넷에서 땡여전 디 어땡사 해시니 막 죽어가니 내가 아이고 나는 못 살겠소 못살겠소 집이서 앉안 굴안 우리 옛날은 새뉘은 집, 새신을 바닷가 양 손에 탁 붙이고 날 불불영 죽일라고 그러니깐 이말저말 앉양 못갓죠. 앞이서 겨난 이디 앉아난 할마니가 죽으니깐 이 스부락에서 어땡 형네까. 오라서 정월 혼덜만 정월에만 오라주시오. (4부락마시고.) <둥일리, 일과리, 7칸다리 새미> 니 부락이지 니 부락 단골들이 다 오든 정월엔 오당 아적이 오랑 앉으면 혼 이십만원 남죠. 오랑 이 디 돈 물린 것이 이디 술은 뭐 서너말 허나마나. (할머니 전에는 누계가 여기 매연 해났수광?) 여기 그 전에는 빌레 할망이라고 모실포 저 막 그 할마니가 컷죠. 그 할마니가 여기 모났죠. 여기도 모시고 저 모실포도 모시고. (겨난 할무니는 서른 아홉에 신들리고 난 다음에는 그 빌레 할무니 밑으로 강 배우멍이네…….) 아뇨 이 디 앉아난 그 이시 양망, 이씨 할망에 유씨할망에 그 두시왓(여기 사는 이씨 할망허고 윤시할망?) 예 이씨할망에 윤시할망에 두 시왓이여 두 시왓인디 이렇게 성제가 벗허고 우리 여자 서이만 송시허고 이씨할마니허고 윤씨할망에 두 시왓이여 두 시왓인디 송시허고 이씨할망허고 윤시 할망허고 내허고 너이만 어디 큰 곳 갈라든 우리 너이만 가 남 자벗도 안허고 그래 땡겨났쥬. (이게 그 서른 아홉 때 마썸?) 예. 그대 영 땡이다가 마흔 넷 낭 아기놓곳 설런 (마흔 다섯 정도에 그대부터 설런마시?) 그때부터는 내가 큰 할망마님덜허고 벗했지. 서른 아홉에는 자주 아프고 거기다 공중으로 췌소리나거 내가 탁 자바져서 기절허지 기절허든 꼭 나그네가 좃아와 애가기 아팠땡을 허든가 어른이 아팠땡을 허든가 꼭 좃아오든, 주인을 느시 거시니까 눈치채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나를 칭하여간 경허여 가니 주인이 “너는 왜 칭허여 가느냐.” 내가 갓는 말이 “그 어른덜크라 물어보세요.” (신이 내리고 난 다음부터 여기 다니는 이씨 할망, 윤씨 할망, 송시할망 허고 끝이 다니면서 소미로 허여네 조금씩 조금씩 곳을 허기 시작허당 경허당 마흔 넷 쯤 나가지고서는 그때는 본격적으로 고집해서 할무니 혼자서 곳을 허기 시작헌거네 양?) 날 7라예. 난 큰 곳은 안 허젠 큰 곳은 일절 주인 무서우니깐. 족족헌 성주굴은거 귀양풀이 굴은거 크시 굴은거 으령거 허여. (죽은 곳만 허는구니양? 앉은 곳만) 예. 거고 내가 믿음이 죽으니까 큰 곳을

허젠 허민 돈이 많이 들지. 많이 드니까니 내가 놈 손해 아니 시길라고 내가 조그마니 조그마니 벌어들였지.

(예배당도 막 믿었던 행계 그때 언제봐?) 그물 일곱. 여덟에 예배당 범당 그렇게 믿다가 으꼇 예배당 믿어가니 미치고정 두래 됐어(거기 혼 십년 땡겨수가?) 아니 아니 혼 일년 일년 믿다가 미친광이 되어 혼 해 으 농업해서 검질 아니매서 그러다가 내가 영 가서 기도드리당 보민 신랑 죽으라고 기들 드러지. 신랑은 군인가 브니까 경허니깐 신랑 군인간 오랑 탁 드러누니깐, 이렇게 자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허여. 물론 보리낭개기로 먹였조. 요샌 그 하간 거 많이 허니깐 먹지마는 보리낭개기로 물 빨아먹고, 이렇게 이렇게. (끔찍없이 드러놓는 시늉을 하며) 가딱, 고개도 가딱 못허연. 탁 절박해 부렸지. 영 허연 자 숯불에 밥허영 안내른 흐르 시 사발을 먹어도 대변을 못 봐. 혼 여드래 아흐래 열흘 가도 게니, 대마지 지름을 가다가 들어 먹어도 느시 못고쳐. 이제는 주인이 허는 말이 “아이고 나는 못살겠다. 이젠 귀신에 들어앉아야 겠다.” 귀신에 들어앉아야겠다고 짐사 벌어들다가 공을 벌어들라. 이젠 짐사덜 벌어들다가 공을 드렸지. 공을 드리니까 그 짐사가 가면서 “아주머니 서서히 선물을 들일테니 그 선물 들여서 아무러케나 허시오.” 이러케 해서 가부니간 사흘 즈나젠 내 선물을 들인디 잊어볼도 았해. “너네덜은 믿다가 하늘 옥황에서 멸망지신 느려 볼겠다. 이러니깐 내 믿음 설러볼고. (땡망 채실) 여라 이젠 홀수 없다. 내가. 내가 홀수 없다. 이제는 뽕배우예 올른 괴기 칼 맛 아이보느냐 그래서 내가 이젠 나섰지. 이젠 홀수 없다고 부처님도 나를 나리 동겨주고 예수님도 나를 아이 동겨주고 신에서만 나를 동겨주니 홀수 없다. (관세음보살)

(믿으랜 홀 땡 홀수 어시 믿은 거우다게.) 그러쥬. (신뽕이 되랜 형겨주뽕.) 예 신뽕이 되서 벌어들으랜. (경행이네 언제쫘부터 안 허게 됐수광?) 땡겨봄 설름?(예.) 이제도 툼툼이 애기덜 아픈 단 가주. (아. 툼툼이 가고?) (죽은긋 같은 것도 안허게 되었을 땡 언제봐?) 이젠 일혼 나건 딱 설르젠 했지. 설르젠 허니까니 눈도 영 어두와볼고, 줌도 집에 누른 집에 누영 사흘밤만 자른 빈쭈름 눈을 터서 영 줌을 못자지. 견 아이고 내가 이젠 심도 없고, 어 이젠 늑어가니 몸도 깨끗이 문허고 “아이고 못허겼어요. 날 들어왔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허나네 “일혼아홉 나건 설르라.”고 “일혼아홉 나건 설렁 들어 맞아라.”고 하니, 이젠 일혼아홉 나건 내 신을 받아서 내가 허다가 이것을 누겔 물려줘요. 내 속으로 가만히 남주지 말고 옹 영

이기로랑 영 뵈지. “남 주지도 말고 가만히 났다가 태운 메누리 오건 주라.”고. “아
 덜덜은 안 태왔다.”고. 그래 혼 후에는 내가 안심하고 땡겨. 영 후다가 이 내게 태
 운 사람은 하고, 영 배왕 하는 사람은 아기 아기 업은 전을 아이 되고, 내 신은 크
 니깐 내가 장에 가고. 이제 장에가도 돈 벌어점직 해도 얘기덜 8남매에게 즈손덜
 막 거새기 허니깐. 장에 돈 벌레 안감서. (웃음) (거른 그 멧두는 어디서 물려 받읍
 데가?) 멧두? 우리 시어머니가 얘기 으신 시어머니 흥시가 혼혼장 돌인디, 막 날궜
 짜 아파서 영 혼 스주 문딱 떠블고. 경 현 어머니가 이서 나니깐 그 즐기지. (시어
 머니도 심방해났수과?) 흥혼장 딸이라고, 아이고 막 목안(제주시) 대정이고 뭐 소
 문난 할망이주. (시어머니마씨?) 응. (큰 심방이라났구나 양?) 겨난 나를 결혼시켜
 두고, 아버지 돌아가부니깐, 저 고산, 고산 신랑 정해서 가서 경 현 할망이 내게 태
 왔지. 태우니깐 특별혼 날만 또 좇아와. (시어머니 이전에는 누구신지 혹시 아שמ
 가?) 유전이엔 혼 건 그 할마니 유전이엔 혼 건 영 거느리는 거 보니깐, 이 조상이
 할으브지가 저 개 드리고 산애, 사농(사냥) 조상인디 조상이 떨어져 신을 믿쥬. 이
 사농 하던 이가 벨 기술을 몬 허쥬. 그렇게 그 조상 거느리고 이제 그 벼금은 우
 회 외삼촌 메누리. 우리 시어머니 메누리가 이제 그 신을 타고 점박 점순이, 이렇
 게 영 하김영 큰 어른덜이영 이 점을 잘 치니깐, 다 모시고 가지. 영 사두서(선 채
 로) 영 골다가 아무 건 아무겨 했다. 아무 건 아무영 했다. 매양 영 굴으니 굴으른
 여기선 아이고. (시어머니 며느리 성함은 어땡 되는지 혹시?) 짐씨. (김씨?) 이름은
 모르지. (시어머니는?) 흥혼장 딸 흥춘매. (예.) (언제 쯤 멧두를 물려 받으셨수과?)
 나? 나 물려받기는 혼 거저 쉰 념영. 또 쉬양아덜(수양아들)이 여기 이셨쥬. 쉬양
 아덜이 나영 갑장인디, 그대 마흔 으덱에 그 우리 쉬양아지방이 나영 갑장인디, 돌
 아가젠 허난, 이저 본굽으로 나도 영 얘기를 영 땡여 가니깐 오랑 업어가시라고.
 그래서 업어다가 이제. (시왕?) 쉬양아덜, 쉬양아덜. 돌지 들아 나중에는 이 조상
 물려가라고. (게난 그 흥혼장 딸 시어머니 아덜이 어서났수과?) 예. 아기영 나보질
 못해반. 이 심방질 말자고 막 이 스주 떠부니깐, 아기 설 떠부니깐. (시어머니가 얘
 기가 없어가지고 수양아덜을 돌았는데.) 예. 경 쉬양아덜이 이 이영 주라고 주니깐,
 마흔 으덱에 돌아가니깐, 그 마흔 으덱에 나도 마흔 으덱에 7져오라졌쥬. (그 집
 안에 시집을 간 거파?) 아니요. 양 칩이(집에) 왔지. 그 흥시어머니 시집인 내가 허니
 깐 본굽으로 본굽으로 이건 준다고, 날 불러다가 나를 땡겼지. (젠 멧두는 하나 마

섬? 하나 물려받으셨수과?) 응. (그 다음에 이씨 할무니가 당메랜 혜신디 그건 안 허겠던 행이네.) 난 경허연, 이디 그 할머니랑 영 술 두되하고 오랑 이 수축홀 때 에 오랑 ㄱ찌 했다가 앓이라 하니깐. 주인보고 굴으니깐 “내 팔자로 벌어먹지 경헌 디 앓지 말라고.” 경 해브난 본향 못 메연. (멩두신이 사농신이다, 이 딸이네 양?) 예. 사농신을 우리 시어머니가 그 신을 붙였주마는 이제 두루회. (거지 모셨던 거 구나.) 예. 경 헨 거 물려받앙 완. 경 헨 본향에 강 앓첸허른, “아이고, 이 섬 중에 절오백 당오백이요.” 영 허영. (경 허영 시작할 거 아니파양?) 예. 일만일신 삼만제 석 주목천신 만주백관 신우엄전입네다. 여우 허른 단골이 하 으만 허른 얻어 먹겠다. 그렇게 허영 처음 앓앙 절 험 때 강 앓아서 덩덩 두드리고, “일만일신 삼만제 석 주물천신 만주백관 신우엄전입네다.” 이렇게 허른 아 큰 심방이라고 그래. 이 허 눈 어두운 것이 단골이쥬. 그러면 아 그만허른 얻어먹겠다. 그렇게 허여. (저기 예 굿허래 올 때, 요 할망당 딱 올 때에, 들어 강 출려난 다음 뒀랜 험디가?) 그디 가른 영 상당골 중단골 하단골, 그 집사 흥는 말이, 아이고 단골님네 명빈 값 복빈 값 새경땅에 벌어먹은 값, 행위발신 값, 즈손 키운 값, 물레오랐어요. 이렇게 흥는 거여.

<본향 본초>

이 섬 중에 본 데 없었거든. 들연 광풍 홀 때에 올라온 섬 중이요. 할로산 챗봉 뱃겨 고산 당산봉 느려설제 솟은 봉우리, 삼방은 송악산. 저 북서 부처님 불법을 지르게 생겼네. (그게 버금에는 또) 으 시상에 당군마물 오백장군 이 산 앞 아흔아홉, 저산 앞 아흔 아홉, 백 골(골짜기)이 못차니깐 왕도 곰도 신마져 못 솟아지니. (그 버금에는) 고씨 양씨 부씨 삼성 솟아졌수다. 그 버금에는 절오백 당오백을 설련하니깐, 영천리 임목사님이 이제 오라서 물 타고 넘어가다가 광정당에 놀려드난, 막발 절르니깐 저 무당서 불러다가, 그 절오백 당오백을 내 놓으라고 답도리허여. 절 오백 당 오백을 불천수를 시겨부니, 그 후로 이젠 아덜 으넝 똥 으넝 손지방상 일흔 으넝법을 마련허난, 신우엄전 법을 마련허니, 그 이후로 이제 각자 본행(本郷)이 되었습니다. 경 허영 다음은 또 이녜 본행 만씩 떠나지(다르지). 상케직이 중케직이 하케직인 할로산 생겨두고, 요왕님 요왕님 요왕님 배로 선왕 배로 선왕 배로 무경 신도본향입네다. 요 선성이우다. 요 과정당 조상이우다. 다 건너두고 덜 몬져 메 올린 단골부터 나올령 츄츄츄츄츄 다 올려놓고, 이젠 썰 줍으면서 올히 굿수

자, 어느 둘이 좋수다, 궂수다 이렇게 허영. 이젠 제반 건어그네 제반 걸영. 이젠 허여똥. 말쑈 그 잠식허여. 이태우른 배웅이 쉽곡. 날 콜리 쉽곡. 경 아니민 이 심방질도 잘도 어려운 거게. 혼 삼십년씩 땡겨도 신 생길 중을 몰라. 항상 곱아도 내 오장에 안 들어가메. 나왕이 젊은이덜도 벗허당 이제 손실돈돈 큰 심방을 다 죽어. 불로 저 목 인제 은 이덜 나광 혼 삼년씩 ㄱ찌 땡이다가, 난 어디 가민 욱심 세서 박박박박 안여지. 욱심 쉐 거는 영 벗허다가, “니대로 빌어 먹어라. 나영 땡이든 많 이 못 번다.” 그래 난 이 야기덜이영 이 세 살 오라서, 곤 몸 막음을 해야 되여.